

제 6 편

성씨와 인물

제1장 성 씨

제2장 인 물

제1장 성 씨*

제1절 개 관

1. 성씨의 유래

우리나라는 중국의 한자문화(漢字文化)가 들어온 삼국시대부터 성(姓)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¹⁾ 비록 『삼국지(三國誌)』 위지동이전(魏志東夷傳)에,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는 기록이 있기는 하지만, 이것은 당시 족내혼(族內婚)을 하지 않는 우리의 풍속을 보고, 일정한 집단을 같은 성이라 표현한 데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삼국사기(三國史記)』나 『삼국유사(三國遺事)』 등의 사서(史書)에 의하면, 고구려의 경우 시조 주몽(朱蒙)이 건국하여 국호(國號)를 고구려(高句麗)라고 하였기 때문에 ‘고(高)’ 씨라 하고, 백제는 온조(溫祚)가 부여 계통에서 나왔다 하여 ‘부여(夫餘)’ 씨 그리고 신라는 ‘박(朴)’·‘석(昔)’·‘김(金)’의 3성 전설이 있다고 하여 마치 삼국이 성읍국가 시대부터 성을 사용한 듯이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들은 중국문화를 수용한 이후 즉 한자를 사용한 뒤에 지어낸 것이라 하겠다.

우리가 성을 사용하기 시작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고구려는 대략 장수왕대(長壽王代, 413~491)부터 중국으로 보내는 국서(國書)에 고씨를, 백제는 근초고왕대(近肖古王代, 346~374)부터 ‘여(餘)’ 씨라 하였다가 무왕대(武王代, 600~640)에는 부여 씨라 하였다. 한편, 신라는 진흥왕대(眞興王代)부터 김성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왕성 외에도 고구려의 경우에는 해(解)·을(乙)·예(禮)·송(松)·목(穆)·우(于)·주(舟)·마(馬)·손(孫)·창(倉)·동(董)·예(芮)·연(淵)·명임(明臨)·을지(乙支) 등 10여 종 이, 백제는 사(沙)·연(燕)·협(劔)·해(解)·진(眞)·국(國)·목(木)·백(苜) 등 8대성과 왕(王)·장(張)·수미(首彌)·사마(司馬)·고이(古爾)·흑치(黑齒) 등 10여 종, 그리고 신

* 제1장은 장득진 집필임.

1) 이하의 내용은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2, 1991과 李樹健, 『韓國中世社會史研究』, 일조각, 1984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라는 박·석·김의 3성과 이(李)·최(崔)·정(鄭)·손(孫)·배(裴)·설(薛)·장(張)·요(姚) 등의 10여 종이 존재하고 있었다.

삼국시대에 성씨의 취득은 다른 여러 집단으로부터 분리됨으로써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특권을 향유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종전보다 더욱 자기 씨족 내의 혈연공동체의 일체감을 갖게 하였다. 따라서 왕실이나 귀족과 같은 지배층부터 성을 갖기 시작하여 이후 관료·양인·천민의 순서로 점차 보급되어 갔던 것이다.

성씨의 보급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성씨는 점차 도태되었고, 단지 신라계의 성씨를 중심으로 후삼국시대부터 한자성(漢字姓)이 보급되어 나아간 듯하다. 신라의 경우 7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당과 신라 간의 문물교환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을 계기로 성골(聖骨)이 아닌 진골(眞骨)과 육두품(六頭品) 계층이 점차 성을 취득하였던 것이다. 또한 통일 후 9주와 5소경에 왕족이나 귀족을 정책적으로 이주시킨 결과 성을 취득한 중앙의 귀족과 관료들이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이후 후삼국시대에 이르러서는 지방의 호족(豪族)·촌주(村主) 등의 세력이 중앙집권화가 무너진 틈을 타 자칭성(自稱姓)·모성(冒姓) 등의 방법을 통하여 점차 성씨를 취득하게 된다. 이들 호족과 촌주들은 당시 사회·정치적 변동을 이끄는 주도 세력으로 등장하였는 바 그 시기의 지방 군·현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있던 계층이었다.

후삼국시대 호족출신의 하나였던 왕건(王建)은 고려 건국 후 곧 전국 군·현의 개편작업을 실시함과 아울러 군·현의 토성(土姓)을 분정(分定)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국의 각 군·현에 각기 출신지와 거주지의 토성이 분정되면서부터 성씨체계가 확립되었다.

성씨체계가 확립된 시기를 고려 초기로 잡는 또 하나의 근거로 이중환(李重煥)의 『택리지(擇里志)』를 들 수 있다. 곧 그는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하자 비로소 중국식 성씨제도를 전국에 반포함으로써 사람들은 모두 성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이 모두 성씨를 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일부 특수층을 제외하고는 10세기 말 이후인 성종대(982~997)에 가서야 비로소 지방 군·현의 양인층에 이르기까지 조금씩 성씨가 수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이처럼 확립된 성씨체계는 분관(分貫)·분파 등을 거치면서 분화와 발전이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조선왕조의 성립과 아울러 이 체제도 다시 정비되었는데 이것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관찬(官撰) 지리지(地理誌)인 『세종실록지리지(世宗實錄地理志)』와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의 성씨조이다. 두 지리지의 각 읍(邑) 성씨조는 고려시대 인민(人民)을 파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편제된 성씨체계의 구체적인 자료로 이를 통해 당시까지의 성씨를 알 수 있다.

성씨가 보급된 이후로도 공(公)·사노비(私奴婢), 향(鄉)·소(所)·부곡민(部曲民), 역민(驛民)·진민(津民) 등의 성이 없는 무성층(無姓層)이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무성층은 16세기 말기에 이르러 신분의 향상 또는 신분해방을 통하여 성을 취득해감에 따라, 조선 후기 300년간을 통하여 점차적으로 성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더욱이 1894년의 갑오경장(甲午更張)을 통하여 종래의 신분과 계급이 타파되었으므로 성의 보편화·대중화가 더욱 촉진되었다. 1909년에는 새로운 민적법(民籍法)을 시행함으로써 누구나 성과 본(本)을 가지도록 법제화하였으며 이로써 국민 모두는 성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이르러 우리의 성씨사에서 가장 큰 수난기를 맞는데 바로 일제에 의한 ‘창씨개명(創氏改名)’이었다. 창씨개명은 1939년 말부터 시행되어 내선 일체(內鮮一體)와 황국식민화(皇國植民化) 정책의 일환으로 우리의 성과 이름을 일본식으로 고치도록 강요한 것이다. 지금도 50대 후반의 이름에는 이러한 잔재가 남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창씨개명도 일제 패망 직후인 1945년 9월부터 미국이 군정을 실시함으로써 무효화되었다. 곧 1946년 10월 23일 미군정이 「조선성명복구령(朝鮮姓名復舊令)」을 법령 제122호로 공포하자 우리 민족은 다시 옛 성과 이름을 되찾았던 것이다.

성씨의 수용과 보급과정을 간단히 말하자면, 삼국시대 말기부터 왕실과 중앙의 귀족이 그리고 지배층 일반에게 성과 본관체계가 확립된 시기는 고려 초기였다. 이후 고려 말기까지 양민층에 점차 성씨가 보급되었으며 조선 후기에 이르러 신분의 상승과 해방으로 천인층까지도 성씨를 가질 수 있었다. 이후 한말에 이르면 거의 모든 국민이 성과 본관을 갖게 된다고 하겠다.

2. 성씨의 특징과 본관

우리나라의 성씨제도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그것을 수용하고, 정착·분화하는 과정에서 고유의 관습을 포함하였기 때문에 우리만의 독특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복잡하고 고유한 면이 많이 보이는데, 예를 들면 성과 본관은 가문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름은 자기 가문의 세대를 알려주는 행렬(行列)과 개인을 구별하는 자(字)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성과 이름을 알면 개인은 물론 그 가문의 세대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한국인의 성은 다른 나라들과는 달리 부계(父系)를 본위로 한 칭호이므로 소속된 가정이 바뀐다 하더라도 성은 변하지 않는다. 예컨대 호주가 ‘김(金)’을 성으로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내는 ‘박(朴)’을 성으로 가지고 있을 수 있으며 며느리도 ‘홍(洪)’이라는 다른 성을 가지고 있는 식이다. 이러한 성불변(姓不變)의 원칙은 결혼을 하면 남편의 성을 따르는 미국이나 유럽국가와는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우리의 성씨가 가지는 또 하나의 특징이다.

게다가 강한 혈연의식으로 성씨에 대한 관념이 지극히 남달라 호적에 반드시 본관을 기재하여 부계의 혈통을 밝히고, 동성동본(同姓同本) 사이에는 혼인도 못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성의 수가 270여 성에 지나지 않는데 이것 역시 이웃 나라인 중국과 일본에 비하여 극히 적은 편이다. 또한 인구의 50% 이상이 김·이·박·



최씨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우리가 단일 민족 계통임을 알려준다.

성씨는 그 분화 과정에서 성을 가졌다고 하여도 이를 통해서는 동족을 구분할 수 없으므로 본관(本貫: 관향)이 도입되었다. 그리하여 성이 같아도 본관이 다르면 이족(異族)으로 여기고 성과 본이 같아야만 동족으로 간주하였다. 그러나 이 경우 예외도 많아 성과 본관이 같아도 조상의 연원을 달리하는가 하면, 성과 본관이 다를지라도 조상이 같을 수 있다. 이처럼 성과 본관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우리나라 성씨체계의 또 다른 특징을 이룬다.

본관은 신분의 표시이기도 하였기에 성과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주로 지배층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후대로 내려오면서 점차 성이 보편화되자 아울러 본관도 널리 보급되었다. 본관제는 고려 초 새로운 관료군으로 편입한 호족층들이 상경입사(上京入仕)하여 개경에 모여 살게 되자 다른 호족의 가문과 자신의 가문을 구분하기 위해 조상의 원래 거주지를 본관으로 칭하면서 정착된다. 그러나 점차 자손이 늘어나고 현달(顯達)하자 봉군지(封君地)·사관지(賜貫地)·벼슬이름, 후손의 일부가 새로 이주하여 정착한 곳의 이름에 의해 새로운 본관이 생겼으며, 이것이 점차 확대되어 본관이 수십이 넘는 현상을 가져왔다. 이후 조선시대에는 후손들 가운데 현달한 자가 배출되면 그를 중시조로 하여 새로운 본관을 만들기도 하였다.

족보(族譜)는 성씨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자료로서 조선시대 초기 왕실과 관부에 의해 처음 작성·간행되었다. 이후 명문 가문에 의해서 사적으로 간행되기 시작하였는데 1476년(성종 12)의 『안동권씨성화보(安東權氏成化譜)』가 최초의 것이다. 16세기 중반인 1565년(명종 20)에는 『문화류씨가정보(文化柳氏嘉靖譜)』가 간행되면서부터 이를 모범으로 하여 명문세족(名門勢族)에서 앞을 다투어 족보를 간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러한 결과 17세기 이래로 족보가 여러 가문으로부터 쏟아져 나오게 되었다.

조선 전기에 간행된 족보의 대부분은 이의 간행을 위해 초안(草案)을 하는 등 성의를 보였을 뿐 아니라 관계 사료를 충실히 보완한 뒤 편찬하여 내용에 하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후의 족보들은 중간 단계를 거치지 않고 관계 자료 검토도 없이 간행한 것이 많았다. 그리하여 족보의 내용에 자의적인 수식을 가하였음은 물론 조상을 극단적으로 미화시키고, 선대의 벼슬을 지나치게 과장시켰으며 심지어 조작한 것도 있었다. 게다가 모화사상(慕華思想)에 젖어 ‘기자동래설(箕子東來說)’을 내세우면서 자기 시조가 중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거나 하는 식으로 족보를 꾸몄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족보는 17세기 후반부터 보급되기 시작하여 시대가 내려올수록 편간(編刊)이 두들어진다. 특히, 한말이나 일제시대 및 최근에 간행되는 족보 가운데에는 17세기나 그 당시에 편간된 적이 없는 것이 많은데 이들은 성관의 유래나 조상의 세계(世系) 및 관직 등에 관한 서술에 실증적인 근거가 없다. 따라서 요즘은 간행된 책으로서 이를 인용한 『한국성씨대관(韓國姓氏大觀)』·『한국인(韓國人)의 족보(族譜)』 등에는 역사 사실과 너무 어긋난 것이 많음을 볼 수 있다.²⁾

더욱이 1909년 새로운 민적법이 시행되면서 이때를 기회로 성이 없는 사람에게 본인의 희망에 따라 호적을 담당한 동(洞)의 서기(書記)나 경찰(警察)이 마음대로 성을 지어 주기도 하고, 머슴의 경우는 무조건 자기 주인의 성과 본관을 따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무성층이 성과 본관을 정하면서 자신의 선대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그냥 자신의 주위에 있는 대성(大姓)을 모방하여 정하였으므로, 대성·대본관의 수가 더욱 늘어났다. 성과 본관을 개변(改變)하는 사람들이 당시 대성거족(大姓巨族)에 투탁함으로써 자신들의 지위를 높이려 했던 것이다. 족보들 가운데 상당수가 19세기 말이나 일제시대 심지어는 현대 이후에 간행된 것도 있으므로 개작의 요소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족보는 반드시 당시의 역사 사료와 비교·검토하여야만, 선대의 인물이나 성격 등을 제대로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역사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3. 성씨의 종류

우리나라는 성의 수가 중국의 2,568개에 비해 10분의 1, 그리고 일본의 10만 개에 비하여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적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5세기에 존재하였던 성씨의 종류를 집대성한 『세종실록지리지』에는 250여 개의 성씨가 나타나 있다. 『세종실록지리지』에는 대략 성의 종류를 4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첫째 본관에 의한 구분, 둘째 성씨의 출자(出自)에 의한 구분, 셋째 성의 소멸과 이동 등에 관한 구분, 넷째 사성 및 귀화성에 의한 구분이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이미 소멸된 망성(亡姓)을 포함하고 있다.

1486년(성종 17)에 편찬된 『동국여지승람』에는 270여 개의 성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세종 이후의 귀화성을 포함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영조대 이의현(李宜顯)이 편찬한 『도곡총설(陶谷叢說)』에는 이보다 많은 298성이 보인다. 『도곡총설』에 수록된 성수는 『세종실록지리지』의 성과 『동국여지승람』의 성수 및 이후 귀화한 성의 수를 합한 것으로, 여기에는 조선 후기에 이미 소멸된 망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아울러 정조대에 이덕무(李德懋)가 편찬한 『양엽기(盎葉記)』에는 성의 숫자를 음운별로 구분하여 379성을 싣고 있어 전보다 훨씬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이미 소멸된 망성을 포함하여 한자성이 들어오기 이전까지의 고유명자(固有名子)를 모두 기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한편, 19세기 후반인 고종대에 발간된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는 가장 많은 496성이 나타나는데 이는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의 고문헌에 수록된 모든 성을 총망라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성수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수록된 약 250여 개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성씨와 관련하여 근대적 의미의 전체적인 연구조사가 이루어진 시기는 일제강점기인

2) 李樹健, 「朝鮮後期 姓貫意識과 編譜體制의 변화」, 『구국 황종동교수 정년기념 사학논총』, 1994, 3~5쪽.



1925년이였다. 이후 5년 간격으로 13차례에 걸쳐 인구조사가 시행되었는데 인구조사와 더불어 성씨와 본관이 조사된 시기는 1930년에 이르러서였다.³⁾ 비록 국세조사(國勢調査)의 일환으로 일제의 조선총독부가 조사한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 인구와 성씨·본관을 모두 파악했다는 것은 획기적인 일이었다. 이 결과 전국에 걸쳐 250성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조선시대의 그것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된 후 우리 손으로 성씨를 조사한 것은 1960년에 이르러서였다. 인구센서스의 부대조사로 실시되었으며 30년 전의 성수보다는 8성이 많은 258성으로 확인되었다. 당시 조사에는 성씨만을 한자로 기입하게 하여 여기에 기록된 성씨의 종류와 분포 상황을 발표한 것이었는데 현지조사가 불충분하여 미확인된 것이 상당수 있었다. 또 해방 이후 남·북이 분단된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지역은 조사할 수 없었다. 따라서 1930년의 조사와 비교하는 데는 약간의 무리가 따르기는 하나 한국전쟁 사이에 북으로부터 내려온 월남인(越南人)이 많았으므로 비록 지역의 분포 상황은 다르지만 성씨의 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여겨진다.

성씨·본관의 조사

조사연도	성씨수	기 타
1930. 10. 1	250	· 성씨 및 본관을 처음으로 조사
1960. 12. 1	258	· 전 인구의 성씨를 한자로 조사 · 한글 기입 성씨 미확인, 현지조회 불충분 · 인구수·가구수 집계
1975. 10. 1	249	· 가구주의 성씨만 한자로 기입 · 가구수 집계
1985. 11. 1	274	· 전 인구의 성씨 및 본관 조사 · 성씨는 한자로 본관은 한글로 기입 · 현지 확인 보완 · 인구수 및 가구수 집계

이어 1966년의 인구센서스, 1975년의 총인구 및 주택조사에서는 가구원 개개인의 성씨를 조사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가구의 성씨만을 한자로 기입케 하여 조사하였으나 역시 미확인된 성씨가 많았다. 그러던 중 1985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북한을 제외한 전국의 성과 본관을 조사한 결과 274개의 성과 3,435개의 본관이 파악되었다.⁴⁾ 이 조사는 현재까지는 가장 최근의 것으로 앞으로

3) 이의 결과로 다음의 책자가 간행되었다. 朝鮮總督府, 『朝鮮の姓』, 1934.

1930년대 일제에 의해 조사된 성씨 및 동족마을은 우리나라의 특징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는 혈연관계를 조직적으로 파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곧 일제는 식민통치 자료로 삼기 위해 이러한 조사를 행한 것이라 하겠다.

의 논의는 이것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⁵⁾ 본관과 성씨의 숫자는 『세종실록지리지』의 그것과 비교할 때 성수는 비슷하나 본관은 약 1,000여 개가 적다. 한편 1975년의 249성에 비하여는 25성이 새로이 나타났다.

1985년 현재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100명 이상의 성은 230개인데 우선 인구 2만 명 이상인 84개의 성씨를 순위별로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전국의 주요 성씨

순 위	성	순 위	성	순 위	성	순 위	성
1	김(金)	22	고(高)	43	나(羅)	64	여(呂)
2	이(李)	23	문(文)	44	임(任)	65	추(秋)
3	박(朴)	24	손(孫)	45	전(田)	66	도(都)
4	최(崔)	25	양(梁)	46	민(閔)	67	신(愼)
5	정(鄭)	26	배(裴)	47	신(辛)	68	석(石)
6	강(姜)	27	백(白)	48	지(池)	69	소(蘇)
7	조(趙)	28	조(曹)	49	진(陳)	70	설(薛)
8	윤(尹)	29	허(許)	50	엄(嚴)	71	선(宣)
9	장(張)	30	남(南)	51	원(元)	72	주(周)
10	임(林)	31	심(沈)	52	채(蔡)	73	길(吉)
11	한(韓)	32	유(劉)	53	천(千)	74	마(馬)
12	신(申)	33	노(盧)	54	방(方)	75	연(延)
13	오(吳)	34	하(河)	55	양(楊)	76	표(表)
14	서(徐)	35	유(兪)	56	공(孔)	77	위(魏)
15	권(權)	36	정(丁)	57	현(玄)	78	명(明)
16	황(黃)	37	성(成)	58	강(康)	79	기(奇)
17	송(宋)	38	곽(郭)	59	함(咸)	80	방(房)
18	안(安)	39	차(車)	60	변(卞)	81	반(潘)
19	류(柳)	40	구(具)	61	노(魯)	82	왕(王)
20	홍(洪)	41	우(禹)	62	염(廉)	83	금(琴)
21	전(全)	42	주(朱)	63	변(邊)	84	옥(玉)

한편, 인구 2만 명 미만 1,000명 이상의 성은 육(陸)·인(印)·맹(孟)·제(諸)·탁(卓)·진(秦)·남궁(南宮)·장(蔣)·모(牟)·국(鞠)·어(魚)·여(余)·은(殷)·편(片)·용(龍)

4) 이 보고서는 1988년 아래의 책에 정리 수록되어 간행되었다.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 『1985년 인구 및 주택센서스 한국인의 성씨 및 본관조사 보고』上·下, 1988.

5) 1985년 인구센서스의 자료에 대한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현존하는 성씨가 조사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신고자의 착각이나 오류로 본관을 잘못 기록한 데에 있다고 하겠다. 뿐만 아니라 성씨의 관향 곧 본적을 모두 한글로 기록하였으므로 이것이 같을 경우 비록 시조가 다르면서도 관향 이름과 한글 발음이 같은 경우 모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다.



· 예(芮) · 구(丘) · 봉(奉) · 유(庾) · 경(庚) · 정(程) · 진(晉) · 사(史) · 부(夫) · 황보(黃甫)
· 석(昔) · 가(賈) · 태(太) · 복(卜) · 목(睦) · 계(桂) · 피(皮) · 형(邢) · 채(菜) · 두(杜) · 지
(智) · 감(甘) · 동(董) · 음(陰) · 온(溫) · 장(章) · 경(景) · 제갈(諸葛) · 사공(司空) · 호(扈)
· 좌(左) · 선우(鮮于) · 갈(葛) · 범(范) · 하(夏) · 전(錢) · 빈(賓) · 팽(彭) · 서문(西門) · 소
(邵) · 승(承) · 시(施) · 상(尙) · 간(簡) · 화(化) · 설(僉) · 공(公) · 강(疆) · 빈(彬) · 시(柴)
· 위(韋) · 진(眞) · 호(胡) · 노(路) · 우(于) · 반(班) · 천(天) · 단(段)으로 나타난다.

또한 1,000명 미만 100명 이상인 성은 견(甄) · 국(國) · 순(荀) · 도(陶) · 당(唐) · 강(强)
· 모(毛) · 방(邦) · 방(龐) · 창(昌) · 양(樑) · 독고(獨孤) · 웅(邕) · 평(平) · 승(昇) · 종(鍾)
· 섭(葉) · 묵(墨) · 마(麻) · 궁(弓) · 대(大) · 빙(氷) · 도(道) · 견(堅) · 근(斤) · 풍(馮) · 기
(箕) · 원(袁) · 연(連) · 국(菊) · 영(永) · 이(異) · 낭(浪) · 한(漢) · 아(阿) · 장(莊) · 내(乃)
· 구(邱) · 만(萬) · 채(采) · 해(海) · 창(倉) · 이(伊) · 궤(鵲) · 판(判) · 포(包) · 초(楚) · 매
(梅) · 군(君) · 요(姚) · 필(弼) · 점(占) · 순(舜) · 곡(曲) · 봉(鳳) · 송(松) · 동방(東方) · 개
(介) · 미(米) · 범(凡) · 준(俊) · 순(淳) · 수(洙) · 야(夜) · 자(慈) · 종(宗) · 서(西) · 여(汝)
· 수(水) · 운(雲) · 뇌(雷) · 연(燕) · 돈(頓)이다.

이 밖에 인구 100명 미만의 화성은 탄(彈) · 초(肖) · 강(剛) · 사(舍) · 삼(森) · 돈(敦) ·
웅(雍) · 나(奈) · 편(扁) · 애(艾) · 양(襄) · 성(星) · 후(後) · 운(芸) · 단(單) · 비(丕) · 영(榮)
· 순(順) · 단(端) · 사(謝) · 추(鄒) · 난(欒) · 묘(苗) · 교(橋) · 학(郝) · 부(傅) · 제(齊) · 영
(影) · 담(譚) · 환(桓) · 후(候) · 강절(綱切) · 심(辻) · 흥(興) · 두(頭) · 호(鎬) · 춘(椿) · 뇌
(賴) · 누(樓) · 저(邸) · 강전(岡田) · 소봉(小峰) · 장곡(長谷) · 초(初)로 나타난다.

위의 성씨들은 대개 최근에 생겨났거나 외국인들이 한국에 귀화하여 생긴 것으로 여겨진다. 또 인구센서스의 조사시에 호적기재의 착오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 본관별 인구수

(단위: 천 명)

순위	본 관	인구수	순위	본 관	인구수	순위	본 관	인구수
1	경주 김씨	3,767	11	안동 권씨	559	21	남평 문씨	344
2	밀양 박씨	2,705	12	인동 장씨	539	22	전주 최씨	343
3	전주 이씨	2,308	13	평산 신씨	460	23	제주 고씨	318
4	경주 김씨	1,523	14	금령 김씨	424	24	경주 정씨	301
5	경주 이씨	1,217	15	순흥 안씨	418	25	창녕 조씨	300
6	진주 강씨	921	16	동래 정씨	415	26	수원 백씨	296
7	경주 최씨	876	17	안동 김씨	398	27	한양 조씨	273
8	광산 김씨	751	18	달성 서씨	398	28	나주 임씨	263
9	파평 윤씨	647	19	남양 홍씨	382	29	문화 류씨	256
10	청주 한씨	598	20	해주 오씨	377	30	밀양 손씨	243

성의 수와는 별도로 주요 성의 본관수는 김 : 282, 이 : 237, 박 : 127, 최 : 127, 정 : 122, 강 : 32, 조 : 56, 윤 : 44, 장 : 61, 임 : 90, 한 : 40, 신 : 52, 오 : 69, 서 : 54, 권 : 11, 황 : 55, 송 : 48, 안 : 35 등으로 나타난다. 주요 본관별 인구수는 앞의 표와 같다.

앞의 30대 본관 가운데 수로왕(首露王)의 후손인 김해(金海) 김씨(金氏)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총본관수 3,435개와 비교할 때 이 수는 실로 엄청나다고 하겠다. 더욱이 이러한 현상은 다른 나라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것이며 우리나라 성씨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대본관들의 대부분은 고려나 조선시대의 명문거족(名門擧族)들이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앞의 대성이 이미 당대에 널리 퍼져 있었다는 것도 있겠지만 문벌(門閥)을 숭상하였던 조선시대 사람들이 앞의 대성들을 선호하였기 때문에 인구가 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16세기 내지 그 이후의 무성층 등이 족보를 개편하거나 윤색(潤色)하는 사례가 많았기에 후대로 내려올수록 대성에 포함되는 인구가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제2절 구리의 성씨

구리시는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행정구역 개편이 여러 차례 있었다. 1914년 3월 1일 일제의 지방제도 개편의 일환으로 구리면이⁶⁾ 생겼고, 이후 몇 차례 개편이 있다가 1973년 인구의 증가로 구리면이 구리읍으로 승격되었으며 이어 1980년 양주군에서 남양주군으로 분리되었다. 1985년 인구가 8만을 넘자 다음해인 1986년 1월 1일자로 다시 구리시로 승격되었다. 따라서 이에 소속된 인창리·사노리·교문리·수택리·토평리·아천리·갈매리의 7개 리가 8개의 행정동으로 바뀌었다.

현재 구리시는 경기도의 여느 신생 시와 마찬가지로 폭발적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하나의 읍이 시로 변한 예이다. 또한 교문동·인창동 등의 대규모 택지개발로 인구가 더욱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토착성씨는 없어지고 새로운 성씨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6) 당시 구리면의 행정구역은 墨洞里·中下里·上鳳里·新內里·忘憂里·仁倉里·四老里·橋門里·水澤里·土坪里·峨川里·葛梅里 등 12개 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1. 성씨의 종류와 인구상황

우리나라는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백성들에게 요역(徭役)·징세(徵稅) 등을 부과하기 위해 호구조사(戶口調査)라는 명목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했다. 정확한 호구조사는 부국강병(富國強兵), 곧 국가의 살림을 살찌우고 이를 통하여 나라를 강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였고,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조선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사람의 수인 인정(人丁)이 세(稅)의 근간이 되었으므로 식년(式年)마다 호구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밖에 총인구의 수와 인구동태 등을 파악함으로써 정치를 시행하는 자료로 삼으려 했던 것도 호구조사의 목적 중의 하나인데, 이것은 지금의 인구조사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그러나 그 당시의 호구 내지 인구조사는 근래에 실시되고 있는 과학적인 방법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실제의 인구수보다는 적게 올리는 것이 보통이었고 지방 수령도 자신이 통치하는 고을에 부역이 많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여 정확한 숫자를 기록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세력가의 집안은 관리들과 결탁하여 호구수를 누락시키는 경우가 더욱 심하였다. 따라서 읍지를 편찬할 때 조사된 인구수나 호적대장(戶籍臺帳)을 기초로 하여 계산된 호구·인구수는 같은 시점의 실제 수와 일치하지 않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더욱이 16세기 이전까지는 천민계층이 총인구의 절반 가량이었으므로 전체적인 호구나 인구조사는 아니었다.

근대적 의미의 성씨조사는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일제에 의해 실시되었다.⁷⁾ 여기에는 전국 도·군별의 성씨통계 및 집성촌수가 기록되어 있는데, 국세조사의 일환으로 조사된 것이었다. 해방 후인 1953년에 이러한 내용을 조사한 바가 있어 『경기도지(京畿道誌)』 하권에 그 내용을 수록하고 있다.⁸⁾ 비록 이 수치가 구리시에 국한한 것은 아니지만 참고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30·1953년 양주군의 성씨별 세대수⁹⁾

성씨	1930년	1953년	성씨	1930년	1953년	성씨	1930년	1953년
김(金)	3,847	4,723	이(李)	3,728	4,851	박(朴)	1,481	1,844
최(崔)	985	1,269	정(鄭)	579	627	윤(尹)	578	696
조(趙)	451	627	한(韓)	526	591	장(張)	293	302
홍(洪)	527	815	강(姜)	416	507	안(安)	403	500
류(柳)	314	455	신(申)	191	474	임(林)	345	268
송(宋)	129	351	황(黃)	132	300	서(徐)	115	334

7) 朝鮮總督府, 앞의 책에서 발췌 정리.

8) 京畿道誌編纂委員會, 『京畿道誌』下, 1957에서 발췌 정리.

9) 1930년의 통계는 『朝鮮の姓』, 1953년의 통계는 『京畿道誌』下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성씨	1930년	1953년	성씨	1930년	1953년	성씨	1930년	1953년
오(吳)	211	313	권(權)	190	196	고(高)	135	226
전(全)	143	139	심(沈)	68	117	양(梁)	67	76
유(劉)	99	93	문(文)	77	94	백(白)	92	153
허(許)	125	162	민(閔)	79	102	손(孫)	150	136
유(兪)	140	149	원(元)	138	218	남(南)	150	146
차(車)	86	77	우(禹)	108	97	조(曹)	103	110
구(具)	92	126	노(盧)	114	174	임(任)	135	152
지(池)	142	141	배(裴)	48	66	방(方)	40	56
성(成)	64	55	엄(嚴)	60	52	신(辛)	15	18
함(咸)	64	55	정(丁)	34	34	주(朱)	54	50
곽(郭)	33	40	나(羅)	30	26	하(河)	21	20
현(玄)	131	76	공(孔)	35	38	염(廉)	34	26
천(千)	30	2	진(陳)	32	38	양(楊)	20	34
왕(王)	10	55	변(邊)	66	63	채(蔡)	36	1
석(石)	16	23	진(秦)	2	-	마(馬)	15	23
변(卞)	14	3	여(呂)	35	31	신(愼)	6	1
강(康)	6	4	남궁(南宮)	42	48	인(印)	3	-
연(延)	16	19	어(魚)	35	42	경(慶)	4	5
길(吉)	24	34	용(龍)	9	15	목(睦)	53	41
설(薛)	1	1	표(表)	27	23	추(秋)	23	26
맹(孟)	19	25	기(奇)	2	-	사(史)	7	6
전(田)	50	42	선(宣)	1	2	봉(奉)	17	22
탁(卓)	6	10	음(陰)	1	1	도(都)	1	1
노(魯)	3	3	피(皮)	3	-	편(片)	16	5
모(牟)	-	1	은(殷)	1	2	호(扈)	2	1
주(周)	2	4	경(景)	1	1	옥(玉)	-	5
복(卜)	-	2	석(昔)	-	2	반(潘)	2	1
제(諸)	1	-	소(蘇)	1	-	도(陶)	2	2
동(董)	3	4	상(尙)	1	1	팽(彭)	12	17
육(陸)	1	-	부(夫)	1	1	태(太)	3	4
위(魏)	17	16	금(琴)	-	5	노(路)	-	2
수(洙)	-	1	낭(浪)	4	5	풍(馮)	2	-
형(衡)	1	-	전(錢)	1	-	승(承)	1	3
범(汎)	1	-	정(程)	2	5	승(昇)	1	-
하(夏)	-	1	방(房)	-	2	구(丘)	-	2
돈(敦)	-	1	야(夜)	-	1	계(桂)	-	2

앞의 표에서와 같이 구리시를 포함하고 있었던 양주군의 성씨가 1930년은 114성이고, 1953년에는 115성으로 거의 같다.¹⁰⁾ 비록 5세대 이내의 희성인 경우에는 다소의 변동을

보이고 있긴 하지만 양 자료를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점은 보이지 않는다. 한편, 1930년 양주군의 대성 분포를 살펴보면, 이씨의 경우 총 3,728세대 가운데 구리면은 231세대이고, 김씨는 총 3,847세대 중 구리면은 451세대였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의 성씨의 분포와 성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않는다.¹¹⁾ 다만 앞서서도 잠시 언급한 것처럼 1985년도에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이 인구센서스를 실시하여 성씨와 인구수 및 본관을 조사한 기록이 있을 뿐이다. 이 조사에서는 인구가 2만 명 이상의 84개 성씨는 군 단위까지 조사하였고, 이하 100명까지의 139개 성씨는 시·도 단위까지 그리고 100명 미만의 52개 성씨는 전국 단위로 통계를 내었다. 이 통계에서 274개의 성씨와 3,435개의 본관수가 확인되었다. 이 조사가 한글로 표기된 성씨의 관향을 하나로 묶어 각 성씨마다 인구수를 소개하고 발음이 같은 관향인 경우도 함께 포괄하여 수록하였다는 점과 북한지역이 조사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어떻든 이 통계자료는 지금까지의 어떤 조사보다도 광범위하고 정확하여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이 자료는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의해 컴퓨터에 각 내용이 항목별로 수록된 후 원본인 조사카드는 국사편찬위원회 자료관리실의 지하 서고에 보관되고 있으나 워낙 수가 많아 정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성씨와 관련된 자료로는 아직까지 1985년도의 통계만 있으므로 이에 의거하여 당시 구리읍을 포함하고 있었던 남양주군의 성씨와 가구수·인구수 그리고 주요 본관 등을 알아보기로 한다.

남양주군의 성씨와 주요 본관

(1985. 11. 현재)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수	주요 본관의 인구수	전국 본관수
1	김(金)	12,299	50,202	김해(5,399)·경주(2,364)·광산(3,584)·안동(3,087)·강릉(1,287)	282
2	이(李)	9,405	38,965	전주(4,931)·경주(1,406)·광주(380)·연안(213)·함평(177)	237
3	박(朴)	4,751	19,378	밀양(3,899)·반남(157)·순천(113)·무안(81)·함양(94)	127
4	최(崔)	2,658	10,968	경주(1,145)·해주(394)·전주(347)·강릉(338)·수원(65)	127
5	조(趙)	1,344	5,685	한양(578)·배천(133)·풍양(191)·함안(135)·양주(74)	56
6	정(鄭)	1,237	5,505	경주(361)·연일(113)·하동(879)·동래(302)·초계(101)	122

10) 참고로 경기도의 다른 지역의 성수는 인천시 : 155성, 수원시 : 127성, 고양군 : 93성, 광주군 : 102성, 포천군 : 94성, 가평군 : 99성, 양평군 : 99성, 여주군 : 118성, 이천군 : 112성, 용인군 : 103성, 안성군 : 111성, 평택군 : 99성, 화성군 : 119성, 시흥군 : 121성, 부천군 : 116성, 김포군 : 98성, 강화군 : 93성이다. (경기도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474~478쪽 참조)

11) 구리시에 사는 주민의 호적등본을 모두 조사하여 통계를 내면 가능하나 시간이 너무 걸려 1985년의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수	주요 본관의 인구수	전국 본관수
7	윤(尹)	1,333	5,473	파평(4,450) · 남원(279) · 해평(146) · 칠원(151) · 해남(106)	44
8	장(張)	1,166	4,957	인동(840) · 안동(104) · 결성(36) · 단양(34) · 홍덕(28)	61
9	강(姜)	1,026	4,305	진주(997) · 전주(11) · 금천(2) · 대전(2)	32
10	한(韓)	1,016	4,181	청주(974) · 곡산(30) · 경주(4) · 충주(3)	40
11	신(申)	1,012	4,123	평산(791) · 고령(168) · 영월(17) · 아주(15) · 파평 · 경산(2)	52
12	안(安)	973	4,078	순흥(773) · 죽산(127) · 광주(43) · 탐진(13) · 태원(3)	35
13	오(吳)	851	3,561	해주(638) · 동북(44) · 보성(41) · 고창(35) · 나주(31)	69
14	홍(洪)	878	3,485	남양(782) · 풍산(55) · 남영(12) · 남해(6)	40
15	서(徐)	800	3,380	달성(560) · 이천(150) · 대구(19) · 남양(18) · 부여(14)	54
16	임(林)	785	3,280	나주(308) · 평택(230) · 예천(61) · 부안(41) · 풍천 · 경주(16)	90
17	류(柳)	751	3,135	문화(420) · 진주(139) · 고흥(66) · 전주(46) · 서산(15)	52
18	황(黃)	756	2,941	평해(232) · 창원(217) · 장수(157) · 상주(38) · 덕산(26)	55
19	송(宋)	719	2,864	여산(224) · 은진(224) · 예산(60) · 진천(41) · 김해(31)	48
20	권(權)	696	2,819	안동(676) · 예천(13) · 경주(2)	11
21	전(全)	522	2,194	정선(232) · 천안(86) · 옥천(39) · 나주(37) · 경주(22)	66
22	고(高)	501	2,022	제주(452) · 장흥(30) · 개성(5) · 횡성(3)	38
23	손(孫)	488	2,021	밀양(375) · 경주(73) · 평해(19) · 안동(7)	23
24	유(兪)	465	1,938	기계(307) · 무안(28) · 강진(41)	30
25	백(白)	443	1,751	수원(424) · 남포(6) · 대흥 · 태인 · 임천(2)	30
26	문(文)	440	1,637	남평(362) · 감천(34) · 정선(22) · 함평(4)	43
27	양(梁)	325	1,393	남원(232) · 제주(79) · 남양(8)	29
28	원(元)	321	1,344	원주(318)	9
29	조(曹)	325	1,316	창령(322) · 청양(2)	20
30	허(許)	309	1,291	양천(195) · 김해(93) · 하양(10)	30
31	남(南)	298	1,250	의령(1990) · 고성(36) · 영양(41)	17
32	우(禹)	273	1,089	단양(267)	13
33	배(裴)	269	1,081	경주(97) · 성주(51) · 김해(32) · 달성 · 홍해(24)	44
34	구(具)	230	1,053	능성(206) · 창원(12) · 능주(5)	18
35	노(盧)	242	1,037	교하(57) · 광주(37) · 광산(34)	42
36	지(池)	254	1,032	충주(244) · 청주(6)	13
37	임(任)	240	996	풍천(152) · 장흥(57) · 곡성(13)	24
38	함(咸)	243	968	강릉(163) · 양근(76)	12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수	주요 본관의 인구수	전국 본관수
39	주(朱)	222	881	신안(201) · 능성(10) · 경주(5)	25
40	차(車)	209	872	연안(202) · 문화(2)	22
41	민(閔)	197	811	여흥(190) · 여주(2)	11
42	엄(嚴)	193	810	영월(186)	8
43	전(田)	192	748	담양(123) · 단양(19) · 남양(16)	39
44	정(丁)	176	706	나주(77) · 압해(64) · 영광 · 창원(8)	17
45	현(玄)	170	705	연주(128) · 성주(23) · 창원(10)	31
46	성(成)	178	697	창령(170) · 강릉 · 전주(2)	13
47	곽(郭)	156	693	현풍(123) · 청주(26) · 선산(2)	23
48	하(河)	178	683	진주(161) · 진양(4) · 전주(3)	13
49	방(方)	164	677	온양(155) · 남원(5)	19
50	양(楊)	150	664	남원(93) · 청주(46)	10
51	진(陳)	157	663	여양(124) · 영양(15) · 강릉(4)	35
52	나(羅)	153	621	나주(111) · 금성(28) · 안정(8)	15
53	신(辛)	140	588	영월(56) · 영주(40) · 영산(42)	9
54	유(劉)	134	535	강릉(82) · 배천 · 풍천(26) · 거창(12)	28
55	염(廉)	123	501	파주(108) · 용담(11)	16
56	천(千)	98	440	영양(81) · 예양(6) · 언양(3)	30
57	심(沈)	123	437	청송(102) · 풍산(12) · 삼척(7)	16
58	변(邊)	98	435	원주(85) · 황주(8) · 장연(2)	13
59	공(孔)	116	427	곡부(102)	8
60	채(蔡)	94	404	평강(70) · 인천(16) · 경주(2)	12
61	여(呂)	68	303	함양(48) · 성주(14)	18
62	강(康)	72	297	신천(59) · 곡산(6) · 평양 · 파주(2)	15
63	추(秋)	78	295	전주(24) · 추계(20) · 밀성(16)	16
64	길(吉)	73	295	해평(43) · 선산(23) · 성산(4)	8
65	노(魯)	71	286	광주(18) · 함평(17) · 강화(21)	13
66	변(卞)	62	265	초계(41) · 밀양(19) · 원주(2)	11
67	표(表)	63	250	신창(63)	10
68	석(石)	50	212	충주(35) · 해주(4) · 경주(3)	17
69	위(魏)	50	210	장흥(45) · 광산(2)	8
70	연(延)	48	203	곡산(48)	13

순위	성씨	가구수	인구수	주요 본관의 인구수	전국 본관수
71	신(愼)	52	199	거창(50)	4
72	왕(王)	46	182	개성(43)	7
73	마(馬)	43	182	장흥(26) · 목천(10) · 의성(5)	5
74	설(薛)	31	149	순창(18) · 경주(11) · 목천(2)	8
75	도(都)	31	141	성주(26) · 전주(2)	14
76	주(周)	26	120	상주(16) · 철원(4) · 초계(3)	16
77	소(蘇)	33	119	진주(31)	2
78	명(明)	21	107	서촉(12) · 연안(8)	5
79	반(潘)	25	103	거제(16) · 광주(4) · 결성(2)	2
80	선(宣)	19	89	보성(19)	5
81	기(奇)	20	89	행주(18)	3
82	금(琴)	19	79	봉화(19)	6
83	방(房)	14	61	남양(10)	9
84	옥(玉)	11	48	의령(9)	8

앞의 표는 1985년 11월을 기준으로 남양주군의 성씨 가운데 인구 2만 명 이상에 해당하는 84개 성씨의 가구수와 인구수 및 그 성씨의 주요 본관의 인구수를 정리한 것이다. 주요 본관의 인구수는 대성인 경우 순차적으로 대략 5개 정도의 본관을 적었으나 본관의 수가 적은 경우는 2가구 이상만을 기록하였다. 남양주군의 성수는 위에 열거한 84성 외에도 더 많으리라 생각되지만 이에 대한 통계는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인구 2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도를 단위로 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러나 1953년의 통계와 비슷한 120성 내외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남양주군의 성씨와 본관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러나 앞의 자료들이 남양주군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조사하는 데 지나지 않아 현 구리시의 성씨와 본관 등을 파악할 수는 없다. 그러나 현재 구리시는 아니지만 그 전신인 구리읍의 성씨와 인구수를 처음으로 정리한 자료가 간행되었는데 1978년 양주군에서 간행된 『양주군지』가 바로 그것이다. 오래된 자료이나 최초로 구리읍의 성씨와 인구를 정리한 것으로 참고삼아 여기에 전재(轉載)한다.

구리읍의 본관 및 가구·인구수

(1977. 7. 31. 현재)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가(賈)	서산(瑞山)	1	6		문화(文化)	1	7
간(干)	남양(南陽)	1	3		봉화(奉化)	9	52
갈(葛)	양주(楊州)	3	13	기(奇)	행주(幸州)	4	18
	청주(淸州)	4	14	길(吉)	해평(海平)	17	78
감(甘)	합포(合浦)	1	7	김(金)	강릉(江陵)	325	1,495
강(康)	신천(信川)	1	5		경주(慶州)	724	3,547
	용인(龍仁)	2	8		광산(光山)	317	1,526
	임실(任實)	1	3		광양(光陽)	7	34
	진주(晉州)	18	89		금산(錦山)	11	56
	충주(忠州)	17	82		김해(金海)	872	4,185
강(姜)	광주(光州)	18	85		나주(羅州)	18	87
	봉일(鳳壹)	13	62		남원(南原)	8	48
	안동(安東)	147	661		부안(扶安)	12	57
	진주(晉州)	235	775		상주(尙州)	6	27
계(桂)	수안(遂安)	6	27		선산(善山)	17	78
계(季)	강화(江華)	1	9		순천(順天)	31	148
고(高)	개성(開城)	15	74		안동(安東)	215	1,096
	담양(潭陽)	14	72		연안(延安)	17	86
	연안(延安)	13	59		울산(蔚山)	25	125
	전주(全州)	19	91		원주(原州)	5	23
	제주(濟州)	23	105		의성(義城)	8	42
	청주(淸州)	12	55		의주(義州)	16	78
공(孔)	곡부(曲阜)	2	9		인동(仁同)	82	401
	창원(昌原)	18	86		장성(長城)	27	124
곽(郭)	선산(善山)	17	31		청주(淸州)	4	18
	파평(坡平)	5	24		청풍(淸風)	17	73
	현풍(玄風)	18	98		충주(忠州)	7	31
구(丘)	평해(平海)	14	63		풍산(豐山)	19	98
구(邱)	은진(恩津)	2	11		함창(咸昌)	1	4
구(具)	강릉(江陵)	3	14		행주(幸州)	12	57
	능성(綾城)	22	103	나(羅)	나주(羅州)	12	62
	창원(昌原)	15	72	남(南)	고성(固城)	11	59
국(鞠)	담양(潭陽)	3	14		남원(南原)	8	38
	진주(晉州)	4	19		영양(英陽)	48	216
궁(弓)	토산(兎山)	1	7		의령(宜寧)	92	457
권(權)	강화(江華)	28	142	내(乃)	개성(開城)	1	3
	안동(安東)	147	686	노(盧)	광주(光州)	12	59
	예천(醴泉)	32	158		교하(交河)	7	36
근(斤)	청주(淸州)	1	6		풍천(豐川)	18	86
금(琴)	계양(桂陽)	2	9	노(魯)	강화(江華)	21	109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능(能)	덕현(德峴)	1	8	민(閔)	여흥(驪興)	3	13
당(唐)	밀양(密陽)	2	9		영주(榮州)	6	28
도(都)	성주(星州)	8	38	박(朴)	경산(慶山)	4	17
동(董)	광주(廣州)	3	18		경주(慶州)	15	60
	남원(南原)	2	9		고령(高靈)	287	1,432
두(杜)	두릉(杜陵)	1	5		김천(金泉)	3	14
등(登)	고성(固城)	3	17		무안(務安)	21	111
류(柳)	개성(開城)	1	6		밀양(密陽)	566	2,825
	고흥(高興)	2	9		봉산(鳳山)	4	21
	광주(廣州)	2	8		상주(尙州)	28	137
	문화(文化)	47	233		순천(順天)	17	82
	서산(瑞山)	3	18		안성(安城)	2	9
	선산(善山)	7	28		운봉(雲峰)	16	64
	전주(全州)	18	88		의창(義昌)	7	35
	정주(貞州)	1	7		임실(任實)	1	5
	진주(晋州)	37	187		전주(全州)	17	83
마(馬)	광주(光州)	1	3		죽산(竹山)	44	217
	목천(木川)	8	42		창원(昌原)	12	48
	수원(水原)	1	5		청송(靑松)	7	31
	장흥(長興)	2	9		함안(咸安)	132	653
	전주(全州)	1	3	반(潘)	거제(巨濟)	4	17
매(梅)	충주(忠州)	2	7		광주(光州)	2	9
맹(孟)	맹산(孟山)	4	18	방(方)	군위(軍威)	2	7
	신창(新昌)	8	41		상주(尙州)	3	15
	파주(坡州)	2	12		신창(新昌)	1	6
	울진(蔚珍)	1	4		온양(溫陽)	8	39
명(明)	충주(忠州)	4	22	방(房)	남양(南陽)	1	7
	한양(漢陽)	5	18	방(芳)	철원(鐵原)	4	12
모(牟)	함평(咸平)	1	5	방(邦)	광주(廣州)	1	2
목(木)	미상(未詳)	1	3	배(裵)	경주(慶州)	17	81
목(睦)	사천(泗川)	8	42		김해(金海)	22	48
	수원(水原)	2	7		대구(大丘)	9	35
목(穆)	미상(未詳)	1	6		성주(星州)	4	21
문(文)	감천(甘泉)	5	21	백(白)	남양(南陽)	2	10
	강화(江華)	2	8		대흥(大興)	3	15
	안동(安東)	7	36		선산(善山)	8	39
	정선(旌善)	17	78		수원(水原)	36	151
	청주(淸州)	2	9		직산(稷山)	11	50
	충주(忠州)	2	9		한양(漢陽)	8	41
	함평(咸平)	42	201	범(凡)	안주(安州)	3	14
미(米)	장단(長湍)	1	4	변(卍)	밀양(密陽)	2	9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변(卞)	초계(草溪)	7	34	송(宋)	남양(南陽)	7	34
	파평(坡平)	2	4		덕산(德山)	2	8
	한양(漢陽)	1	6		신평(新平)	13	62
변(邊)	황주(黃州)	12	59		안산(安山)	1	5
복(卜)	면천(沔川)	4	19		은진(恩津)	14	68
봉(奉)	강화(江華)	1	6		진천(鎭川)	17	80
	하음(河陰)	12	58		홍주(洪州)	4	18
비(丕)	농서(隴西)	1	5	순(舜)	파주(坡州)	2	9
빈(彬)	대구(大丘)	4	19	신(申)	강화(江華)	4	20
빈(賓)	수성(壽城)	3	13		고령(高靈)	17	82
	육창(陸昌)	2	9		신천(信川)	8	37
사(史)	거창(居昌)	5	23		아산(牙山)	15	72
	의성(義城)	1	5		영해(寧海)	2	8
	청주(淸州)	2	10		이천(利川)	10	49
상(森)	삼가(三嘉)	3	13		천안(天安)	17	83
서(徐)	남평(南平)	3	14		평산(平山)	51	248
	달성(達城)	11	47	신(辛)	광주(廣州)	8	37
	이천(利川)	3	13		영산(靈山)	21	103
	장성(長城)	9	43		영월(寧越)	4	17
	황산(黃山)	2	10	신(愼)	거창(居昌)	11	53
석(石)	광주(廣州)	1	5		과천(果川)	7	34
	천안(天安)	1	4		문등(文登)	2	8
	충주(忠州)	2	9		평산(平山)	1	4
	화원(花園)	8	39	심(沈)	삼보(三陟)	2	8
석(釋)	수원(水原)	4	19		전주(全州)	3	13
선(鮮)	협계(俠溪)	7	34		청송(靑松)	19	97
선(宣)	광주(光州)	4	21		풍산(豊山)	5	23
설(薛)	경주(慶州)	5	24	안(安)	광주(廣州)	49	240
	순창(淳昌)	7	12		순흥(順興)	227	1,031
	안산(安山)	2	9		제천(堤川)	11	53
성(成)	강화(江華)	2	9		주천(酒泉)	35	173
	창녕(昌寧)	11	52		죽산(竹山)	81	403
소(邵)	평산(平山)	2	11		창평(昌平)	7	34
소(召)	대동(大同)	1	4		충주(忠州)	27	132
소(蘇)	진주(晋州)	8	39	양(梁)	남원(南原)	5	23
손(孫)	경주(慶州)	42	210		제주(濟州)	42	207
	밀양(密陽)	31	249		청주(淸州)	1	4
	평해(平海)	17	84		충주(忠州)	1	5
송(宋)	강음(江陰)	14	67	양(楊)	남원(南原)	2	8
	견주(見州)	15	73		중화(中和)	3	13
	김해(金海)	2	9		청주(淸州)	7	33
	여산(礪山)	42	207	양(良)	제주(濟州)	3	14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양(良)	채운(彩雲)	16	76		한양(漢陽)	5	21
양(陽)	김해(金海)	2	8	위(魏)	장흥(長興)	8	42
어(魚)	함중(咸從)	21	104	유(劉)	강릉(江陵)	13	63
엄(嚴)	상주(尙州)	12	64		거창(居昌)	4	18
	영월(寧越)	42	205		백천(白川)	2	9
여(呂)	함양(咸陽)	11	57	유(兪)	기계(杞溪)	42	198
연(連)	전주(全州)	8	38		창원(昌原)	27	131
연(延)	곡산(谷山)	8	38	유(庾)	무송(茂松)	1	4
염(廉)	광주(廣州)	15	73	육(陸)	옥천(沃川)	7	33
	서원(瑞原)	37	179	윤(尹)	남원(南原)	17	83
	순창(淳昌)	21	104		파평(坡平)	136	575
	순흥(順興)	7	54		함안(咸安)	24	121
예(芮)	부계(缶溪)	3	13		해평(海平)	72	352
	부여(扶餘)	2	8	은(殷)	연안(延安)	24	19
오(吳)	나주(羅州)	23	113	은(隱)	태인(泰仁)	2	8
	동북(同福)	11	53	음(陰)	죽산(竹山)	3	13
	연일(延日)	4	17	이(李)	가산(嘉山)	3	14
	장흥(長興)	1	4		강동(江東)	2	8
	함양(咸陽)	5	23		거창(居昌)	7	33
	해주(海州)	38	186		경산(京山)	42	98
오(午)	밀양(密陽)	2	8		경주(慶州)	441	2,203
옥(玉)	교하(交河)	1	5		공주(公州)	2	9
	반성(班城)	3	13		광주(光州)	25	123
	안동(安東)	1	4		광주(廣州)	138	685
	의령(宜寧)	2	8		덕수(德水)	48	236
온(溫)	온양(溫陽)	2	9		수원(水原)	4	18
왕(王)	강릉(江陵)	2	8		순천(順天)	7	33
	개성(開城)	8	37		신평(新平)	24	117
	해주(海州)	1	4		아산(牙山)	12	57
용(龍)	광주(廣州)	1	4		안성(安城)	3	14
	인천(仁川)	1	4		양주(楊州)	1	6
	홍천(洪川)	7	34		연안(延安)	184	913
우(禹)	강화(江華)	6	29		영천(永川)	84	417
	단양(丹陽)	18	87		예안(禮安)	7	34
	양주(楊州)	4	18		용인(龍仁)	42	93
	영주(榮州)	7	34		원주(原州)	17	83
	예안(禮安)	7	35		장수(長水)	51	253
옥(郁)	해주(海州)	3	14		전의(全義)	117	580
원(元)	광주(廣州)	13	63		전주(全州)	681	3,400
	원주(原州)	18	87		진보(眞寶)	8	38
	이천(利川)	2	9		진천(晉川)	32	157
	파평(坡平)	3	14		청송(靑松)	7	33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인(印) 임(任)	청주(淸州)	47	231	조(趙)	능성(綾城)	3	33
	청해(靑海)	7	34		장흥(長興)	11	53
	평창(平昌)	4	18		창녕(昌寧)	18	88
	한산(韓山)	52	258		창평(昌平)	5	24
	함평(咸平)	32	48		양주(楊州)	5	24
	홍천(洪川)	6	28		풍양(豊壤)	18	87
	연안(延安)	3	14		한양(漢陽)	5	23
	과천(果川)	15	73		상주(尙州)	12	57
	진주(晋州)	7	34		신안(新安)	22	107
	풍천(豊川)	42	94		광주(廣州)	5	24
임(林)	청주(淸州)	4	18	지(池)	단양(丹陽)	7	33
	나주(羅州)	6	29		충주(忠州)	8	37
	남해(南海)	3	17		풍주(風州)	1	4
	보안(保安)	7	32		나주(羅州)	5	23
	부안(扶安)	9	39		덕창(德昌)	2	8
	선산(善山)	5	28		부여(扶餘)	1	5
	순창(淳昌)	4	22		삼척(三陟)	12	57
	진주(鎭州)	1	5		여양(驪陽)	7	33
	평택(平澤)	18	78		풍기(豊基)	5	23
	거창(居昌)	2	8		연안(延安)	17	82
장(章) 장(張)	단양(丹陽)	3	13	차(車)	용성(龍城)	2	7
	덕수(德水)	25	121		평산(平山)	8	38
	부안(扶安)	12	57		진주(晋州)	2	8
	안동(安東)	5	23		광주(光州)	1	4
	인동(仁東)	47	234		평강(平康)	10	47
	정선(旌善)	18	82		영양(潁陽)	12	57
	천안(天安)	6	28		김해(金海)	2	8
	안주(安州)	27	131		강릉(江陵)	3	14
	담양(潭陽)	8	38		경주(慶州)	48	237
	태산(泰山)	45	218		동주(東州)	5	24
점(占) 정(丁)	괴산(槐山)	2	8	추(秋)	수성(隋城)	7	32
	나주(羅州)	14	67		수원(水原)	2	8
	영광(靈光)	4	17		전주(全州)	29	143
	창원(昌原)	7	33		충주(忠州)	2	9
	강화(江華)	2	8		화순(和順)	1	4
	경주(慶州)	152	758		양지(陽智)	18	87
	동래(東萊)	137	683		광산(光山)	7	33
	연일(延日)	87	431		영순(永順)	3	13
	초계(草溪)	18	89		용강(龍岡)	1	5
	하동(河東)	249	1,243		절강(浙江)	4	18
제(諸) 조(曹)	옥과(玉果)	2	8	표(表) 하(河)	신창(新昌)	7	34
	남평(南平)	1	4		진주(晋州)	2	8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성 씨	본 관	가구수	인구수
한(韓)	청주(淸州)	18	87	형(刑)	괴양(槐陽)	32	157
	평산(平山)	7	34	홍(洪)	남양(南陽)	32	157
	한양(漢陽)	5	23		풍산(豐山)	15	73
함(咸)	강릉(江陵)	2	9	홍(弘)	전주(全州)	2	7
	경주(慶州)	4	17	황(黃)	장수(長水)	5	24
허(許)	김해(金海)	2	8		창원(昌原)	7	33
	양천(陽川)	15	73		평해(平海)	7	33
	하양(河陽)	7	33	남궁(南宮)	함열(咸悅)	4	17
현(玄)	순천(順天)	3	13	제갈(諸葛)	남양(南陽)	1	4
	창원(昌原)	8	37	독고(獨孤)	광릉(廣陵)	2	9

비고: 표에 나타난 수치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확인할 방법이 없어 그대로 전재한다.

출전: 양주군지편찬위원회, 『양주군지(楊州郡誌)』, 1978, 626~631쪽.

2. 관적성씨(貫籍姓氏)

구리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양주라고 하는 행정단위 아래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양주를 관향으로 하는 관적성씨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개관해 보고자 한다.

앞에서도 잠시 언급한 바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로 전국적인 성씨의 내용과 분포를 알려주는 기록은 『세종실록지리지』이다. 이 자료는 15세기에 존재한 전국의 성종(姓種)과 본관의 수가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구리시를 포함하고 있었던 양주군의 경우, 양주도호부(楊州都護府)에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나타난다. 양주도호부 내의 성씨를 살펴보면 토성(土姓)으로 한(韓)·조(趙)·민(閔)·신(申)의 4개 성이, 내성(來姓)으로 함(咸)·박(朴)·홍(洪)·최(崔)·부(夫)의 5개 성이 그리고 망성으로 정(鄭)·애(艾)의 2개 성이 보인다. 이어 『동국여지승람』 성씨조에도 『세종실록지리지』와 비교할 때 내성과 망성의 구분만 없을 뿐 그대로이다.

이와 함께 당시 양주도호부는 견주(見州)·사천(沙川)·풍양(豐壤)의 3개 속현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이 3개 속현의 성씨 역시 양주의 관적성씨에 포함된다고 하겠다. 3개 속현의 성씨를 살펴보면, 견주의 경우 이(李)·김(金)·송(宋)·신(申)·백(白)·윤(尹)·피(皮)의 토성 4개 성이, 사천의 경우 토성인 경(耿)과 망성인 이(李)·임(任)·송(宋)·허(許)의 5개 성이 있었다. 끝으로 풍양의 성씨로는 토성인 조(趙)와 망성인 이(李)·강(姜)·윤(尹)·유(劉)의 5개 성이 있었다.

앞에서 언급한 토성이란 성의 출자처(出自處)를 나타낸 본관과 부계(父系)의 혈통을 의미하는 성으로 구성된 복합어라 할 수 있다. ‘토성’이란 용어는 15세기의 공·사문헌에 자주 보이고 있으며 그것의 형성시기는 신라 말 고려 초의 전환기라 하겠다. 곧 토성



의 발생 원인은 성씨의 보급이 확대되는 시기인 후삼국의 정치적·사회적 혼란 속에서 신라의 신분질서인 골품제를 대신하는 새로운 지배층이 발생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새로운 지배층은 전국 각 지역의 호족들로서 고려 태조인 왕건을 도와 고려 건국에 이바지한 자들이었다. 고려가 건국되자 태조는 그들에게 당시의 세력관계를 고려하여 그들이 살고 있던 지역에 성관(姓貫)을 하사 분정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양주의 토성들인 한(韓)·조(趙)·신(申)은 고려 초기 이래 『세종실록지리지』의 편찬 시기인 15세기까지 양주에서 읍사(邑司)를 구성하여 지방행정을 장악하고, 징세와 부역을 담당할 세력이었다고 할 수 있다.

내성은 글자 그대로 다른 지방에서 양주군으로 들어온 성씨로 고려 초기 이래 옛 문헌에 토성과 함께 기재된 성이다. 곧 함(咸)·박(朴)·홍(洪)·최(崔)·부(夫)의 내성 가운데 함씨는 양근(楊根)에서, 박씨는 춘천(春川)에서, 홍씨는 남양(南陽)에서, 최씨는 수원(水原)에서, 그리고 부씨는 과천(果川)에서 각각 양주로 들어온 것이다. 이 가운데 부씨를 제외한 4개의 성씨는 대표적인 토성으로, 고려시대 토성의 분화과정에서 양주로 입거(入居)하였다고 여겨진다.

망성은 고려 초기부터 전해오는 고적(古籍, 예로부터 전해오는 책)에는 기록되어 있었으나, 『세종실록지리지』 편찬 당시에는 없어진 성을 말한다. 망성의 발생 요인은 자연적으로 족세(族世)가 쇠하여 후손이 단절된 경우와 급격한 정치·사회적 변화로 말미암아 가문이 갑자기 몰락한 경우가 있겠다. 특히, 망성의 경우는 경기지방에 심하였는데 수도인 한양과 지리적으로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즉 경기지방은 수도와 인접한 관계로 정치적 변화에 쉽게 휩싸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성쇠(盛衰)와 소장(消長)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빈번한 정권교체 때 세력을 잃은 재경관인(在京官人)들이 도태하여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된다. 더욱이 신진세력이 상경입사(수도로 올라가 벼슬을 하는 것)하면서 그들의 기반을 수도와 가까운 경기지역에 마련했던 것도 망성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사실은 『세종실록지리지』의 군·현 성씨의 도별·성종별 성관수를 보면 확인되는데, 경기도의 망성이 다른 지역과는 달리 141개로 전체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곧 양주의 망성은 15세기 초기에 이미 소멸된 성이었으며, 토성은 15세기 당시까지 사족(士族)과 이족(吏族)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위의 성씨 가운데 토성만이 조선시대에 양주를 본관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다.

이러한 토성·망성·내성이 양주지방에 있게 된 이유는 이곳이 1067년(고려 문종 21)에 남경유수관(南京留守官)으로 승격함과 동시에 이 부근의 군민들을 양주로 이주시켰기 때문이다. 위에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양주의 유력한 토성으로는 양주 조씨(趙氏)와 한씨(韓氏), 견주 이씨(李氏)와 송씨(宋氏)가 있었다. 남경과 양주·견주는 모두 같은 지방의 다른 이름이며 견주와 풍양은 양주의 속현으로 독자적인 토성이민(土姓吏民)을 가지고 있었다. 그 후 조선을 건국한 태조가 남경인 동시에 양주지역인 한양에 수도를 정한 뒤 그곳의 백성을 양주의 속현이었던 견주에 옮기고 양주라 개칭하였으므로 양주와 한양



은 적어도 그 당시만은 같은 지역이었다고 말할 수 있다. 비록 양주 조씨와 한양 조씨, 양주 한씨와 한양 한씨로 구분되어 있지만 이것은 군현의 개편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뿐이므로 이 모든 성씨를 양주의 본관 성씨라 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현재 양주지역에는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가 많이 거주하고 있지 않다. 왜냐하면 15세기 이후 다른 토성들이 자기들의 본관을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거나 몰락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한 채 그 계보를 이어가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1985년 경제기획원의 조사에 따르면 양주군(楊州郡)을 본관으로 하는 성씨는 17개이다. 김(金)·최(崔)·조(趙)·윤(尹)·한(韓)·황(黃)·송(宋)·양(梁)·진(陳)·함(咸)·석(石)·표(表)·편(片)·갈(葛)·도(陶)·낭(浪)·아(阿) 등이 그것인데, 당시 조사에서 본관을 한글로 기록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양주가 아닌 중국의 양주도 포함되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는 희성이나 중국에서는 비교적 많은 표·편·갈·도·낭·아씨 등이 그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성씨들은 또한 중국 귀화인일 소지도 있다. 그러나 위의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를 제외하고도 당시 양주의 속현이었던 풍양의 풍양 조씨, 한양의 한양 한씨와 조씨들은 양주를 본관으로 하는 성씨에 포함되어야 한다.

3. 동족마을(집성촌)

성씨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전통사회의 특징 중 하나는 성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집성촌(集姓村)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족마을이라고도 부르는 집성촌은 성씨와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느 한 마을에 같은 성과 본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함께 사는 곳이다. 이들은 자신의 관향과는 다른 마을에 정착하여 여러 대에 걸쳐 살아감으로써 그곳의 토박이 역할을 하였다. 이처럼 집성촌은 성씨를 같이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이를 통해 그 고장의 세거성씨를 파악할 수 있다.

동족마을은 동족부락·동성촌 혹은 씨족부락으로도 부르며 사회학·인류학적 접근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이다. 동족마을은 대체로 하나의 지배적인 동성동족집단이 특정 마을의 주도권을 가지고 집단적으로 거주하여온 마을을 말하지만, 연구자의 시각에 따라서 그 성격들이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즉 ① 동일한 선조, 동성동본자가 한 마을에 집단 거주하는 것 ② 같은 조상과 동족의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집합적 행동을 통하여 결속된 자연적 생활공동체, 즉 단지 동족의식을 기초로 정적(靜的) 공존태(共存態)에 그치지 않고 선조제사, 친목, 경제적 협동, 자위자강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 자연의 이해를 갖고 집합적 행동을 하는 생활공동체 ③ 한 마을 안에 존재하는 비교적 다수의 동성동본의 사람들이 조직체를 갖거나 적어도 집단적 행동을 취하는 마을 ④ 촌락 내의 조직과 씨족조직이 일치하거나 지배적인 영향력이 일치할 때, 수적인 위세나 선조의 권위가 존속되는 경우 그 자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위가 보장되는 마을 등의 정의가 그것이다. 그러나 정



의는 각각 다를지라도 동족마을의 형성배경에 대하여는 대체로 종법체계의 발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데는 일치하고 있다.

이러한 집성촌의 형태를 우리는 지금까지도 지방에 가면 흔히 접할 수 있는데, 호칭은 성씨와 관계되므로 ‘이촌(李村)’ · ‘김촌(金村)’ · ‘장씨촌(張氏村)’ · ‘박씨동(朴氏洞)’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집성촌이 형성된 시기의 연원을 고대 내지 고려 초까지 소급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나 실제 본격적으로 정착된 시기는 조선시대 이후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러면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는 동족마을의 형성과 발전은 어느 시기에 이루어지는가. 17세기 중엽 이후 친족체제 변화의 결과로 나타난 현상으로만 보아야 할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이미 이전 시기부터 지속되어온 족적인 규모확대와 그 조직의 과정으로 초래된 동족마을 형성이 결과적으로 조선 후기 여러 문종의 활동을 가능하게 한 기본배경이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가부장적인 친족체계가 일반화되는 것이 17세기 중엽 이후의 일이라는 점을 인정할 경우, 그 결과로 나타나는 동족마을의 형성발달 시기는 더 늦게 상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일제시기의 식민사학자들은 조선시대의 가족제도나 상속제도가 부계친족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종법제도와 같은 형태이며 그것이 조선시대 전 기간에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파악하였다. 남녀차별 동성불혼(同姓不婚), 이성불양(異姓不養), 장자봉사(長子奉祀), 대가족제 등이 바로 조선시대 전 기간에 같은 모습으로 지켜졌다고 보았던 것이다.¹²⁾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우리나라 학계에 의해 전면적인 수정이 가해져 이제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17세기 중엽을 분기점으로 가족 및 친족의식이 전면적으로 변화하여 왔다고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조선 후기 친족체제 변화의 주된 골격은 내외친(内外親)이 망라되는 양계친족(兩系親族)에서 적장자(嫡長子) 중심의 부계친족으로의 변화로 특징지어지며, 이는 제사상속 및 분재상에서 장자우대의 경향, 족보의 친족수록 범위 축소, 입양제도의 변화, 동족마을의 형성 등으로 증명된다. 따라서 동족마을의 형성시기는 17세기 이후로 보아도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즉 조선 전기의 자연마을 가운데 집촌의 경우 50~60호 이상의 규모를 갖춘 경우도 있었지만 이러한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것이었고, 대부분은 10호 미만의 아주 작은 규모로써 매우 분산적으로 존재하고 있었다. 이처럼 조선 전기 산촌(散村)들이 점차 성씨를 주축으로 하는 혈연적인 집촌(集村)으로 새롭게 변모하게 된 데는 조선 건국 이래 사족들의 이거와 정착과정이 연관되어 있다. 이 밖에도 농지가 평야 저지대로 확산되고 집약농법에 근거한 소농민경영의 생산방식에 따라 생산력이 증대되자, 신생 촌락들이 급속히 성장하게 된 것도 한 요인이었다. 이 같은 농지확산과 집약농법의 발달은 생산력의 증대와 함께 집촌화를 가능하게 하였고, 이 과정에서 주도적인 촌락을 중심으로 상대적인 결

12) 善生永助, 『朝鮮の聚落』, 1933; 조선총독부 중추원, 『李朝の財産相續法』, 1936.

이러한 견해는 아직도 일반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남아 있다.



속력을 강화하여 광역화하는 추이를 보여준다.

17세기 중엽을 중심으로 동족마음이 발생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우선 ① 성리학적 예제의 보급과 정착 ② 향안(鄉案) 질서의 해체와 사족의 위상 변화를 들 수 있다.

첫째로는 전통적인 유교의례라고 지적하는 가부장·적장자 중심의 부계친족체제가 정착하고, 이러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 시기가 대체로 17세기 중엽(효종 2년, 1650)을 분기점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당시 가족 및 친족의식의 변화는 향촌단위의 사회구조상에도 반영되어 동족마을의 형성이라는 조선 후기의 특징을 이루는 일련의 문중활동의 의식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둘째는 17세기 중엽의 조선사회가 지닌 정치·사회사적인 성격을 들 수 있다. 곧 중앙의 봉당정치와 별벌정국은 조선의 향촌 사회구조를 기본적으로 변모시키는 커다란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동성동족의 족통과 경제적 근거가 중심이 되는 동족마을의 형성은 종가를 중심으로 하는 결속력과 이를 통한 사회경제적 특권의 유지 존속을 도모하게 마련이었다. 따라서 이들 동족마을은 조선 후기 다양한 문중조직과 활동의 중심체 내지는 기초단위로서 존재하였고, 이를 통한 특정 성씨의 마을 내 주도권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전 시기처럼 이해를 같이하던 이성친족이나 방계친족의 지위는 감소하였고, 이들이 점차 마을 조직에서 이탈함으로써 보다 완전한 동족마을로의 위상을 마련하게 된다.

결국 동족마을의 형성은 문중활동이 보편화되는 시기와 연관시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는 17세기 중엽 이후에 나타나는 가부장적인 친족관념의 폭넓은 정착과 진전의 결과로 시차를 두고 이해하여야 한다.¹³⁾ 이렇게 친족 및 가족제도의 변화와 관련되면서 1~2세기의 시차를 두고 이루어지는 동족마을은 조선 후기 다양한 문중활동의 기초단위이자 중심처로 기능하였다. 그것은 우선 동족마을이 종가를 중심으로 족적인 전통이나 경제적 기반을 대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동족마을의 기반이 형성되면서(혹은 형성과도기에 그 결집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서) 문중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동족마을의 발생 요인은 우리 사회가 혈연공동체적 생활을 영위한 데에서 오는 유습이었다. 이러한 생활로서 마을의 제반 행사에 모두 힘을 합칠 수 있었고 향촌 사회의 노동 집약적인 일들도 자치적으로 상부상조하며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종가를 중심으로 한 지나친 위계질서로 인해 사회발전이 저해되는 부정적인 요소도 있었다.

이처럼 동족마을이 17세기를 중심으로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문을 높이려는 의도로 자기들의 마을이 300~400년 심지어는 500~600년 전부터 있었다고 과장하여 말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이치에 합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16세기 이전까지는 철저하게 자녀균분상속(子女均分相續)이 지켜져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녀와 친손자·외손자의 구분을 짓지 않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사위를 거느리고 있었던 경우도 많았고, 제사가 있

13) 물론 이 경우도 양반사족가문의 경우에 한정되는 논의이고, 특수 민촌(역원이나 장인촌)을 제외한 일반 민촌의 경우 동족마을의 형성은 훨씬 후대에나 가능했다고 본다.

을 때에도 자녀가 돌아가며 모셨다. 그러나 이러한 관습이 17세기에 들어서 붕괴하기 시작해 사위나 외손이 외가의 재산상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부계 중심의 동성동본이 함께 사는 집성촌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

집성촌의 형성과정은 한 종족이 어느 한 마을에 계속해서 여러 대를 거쳐 거주하는 경우와, 자기의 마을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하여 새로 마을을 구성하고 후손들이 그 마을을 계속해서 발전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천재지변이나 정치·사회적 급변으로 인해 도피 내지 유배한 이후 그곳에서 일족이 터를 잡고 사는 경우도 있었다. 그들은 비록 자신의 세대에는 몰락의 길을 걸었으나, 학문을 닦은 자손이 과거에 급제해 가문을 다시 일으키기도 하였다.

양주군의 경우도 같은 성을 가진 자들이 모여 사는 동족마을이 많이 있는데, 이는 면적이 넓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비해 살기가 좋아 다른 관향의 사람들이 많이 이주하였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인 1930년에 조사된 양주군 구리면의 동족마을을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다.¹⁴⁾

1930년 구리면의 집성촌

위 치	성	본 관	세 대 수
중하리	최(崔)	해주(海州)	22
인창리	최(崔)	해주(海州)	29
인창리	김(金)	김해(金海)	21
교문리·중하리	박(朴)	밀양(密陽)	34
목동리	김(金)	김해(金海)	25
수택리	김(金)	김해(金海)	26
수택리	조(趙)	한양(漢陽)	24
토평리	김(金)	경주(慶州)	20
신내리	윤(尹)	파평(坡平)	22
신내리	임(林)	경주(慶州)	37
망우리	정(鄭)	동래(東萊)	20
갈매리	안(安)	순흥(順興)	34
갈매리	이(李)	성주(星州)	23
사노리	추(秋)	밀양(密陽)	15
아천리	이(李)	전주(全州)	15

이 기록은 1930년 당시 구리면에 15개의 집성촌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서

14) 朝鮮總督府 中樞院, 『朝鮮の姓』, 1934.

울시에 편입된 지역인 중하리·묵동리·망우리 등을 제외한다면 9개의 집성촌이 있었다.
이와 아울러 1953년 구리면의 집성촌을 보여주는 기록으로는 『경기도지』¹⁵⁾가 있다.

1953년 구리면 집성촌

위 치	성	본 관	형성시기	세 대 수
중하리	최(崔)	해주(海州)	미 상	22
인창리	최(崔)	해주(海州)	미 상	45
인창리	황(黃)	창원(昌原)	미 상	20
인창리	김(金)	김해(金海)	미 상	30
교문리	박(朴)	밀양(密陽)	미 상	30
묵동리	김(金)	김해(金海)	미 상	24
수택리	김(金)	김해(金海)	미 상	22
토평리	김(金)	경주(慶州)	미 상	21
신내리	임(林)	경주(慶州)	미 상	60
망우리	박(朴)	밀양(密陽)	미 상	21
망우리	정(鄭)	송산(松山)	미 상	29
갈매리	안(安)	순흥(順興)	미 상	42
갈매리	이(李)	벽진(碧珍)	미 상	31
갈매리	박(朴)	밀양(密陽)	미 상	20
아천리	김(金)	김해(金海)	미 상	24
아천리	이(李)	전주(全州)	미 상	29

앞의 기록은 1930년의 기록과 비슷하게 당시 구리면에 16개의 집성촌이 있음을 알려 준다. 형성시기에 대하여는 양주군의 다른 면들과 달리 미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다른 성씨들과 비슷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현 구리시의 행정지역에 속하지 않는 곳도 있으나 대략 집성촌의 분포는 1930년의 자료와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구리시가 서울과 비교적 가까우나 인구의 이동이 적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다.

그러나 근래 들어 인창동이나 교문동 등에 택지개발이 활발해 타도시 거주민들이 많이 유입됨으로써 옛날부터 내려온 동족마을은 점차 사라지고 많은 성씨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1990년대 구리시의 세거성씨, 즉 집성촌 현황은 본책 상권 제5편 생활과 풍습, 제5장 친족에서 자세히 살펴보겠다.

15) 경기도지편찬위원회, 앞의 책, 524·525쪽.

제2장 인물

제1절 고려·조선조 인물*

고언백(高彦伯) ?~1609(광해군 1)

조선 선조 때의 무신으로 본관은 제주(濟州)이다. 임진왜란 당시 양주목사로 재직하면서 건원릉을 수호하고 왜적을 물리친 공을 세웠다.

교동향리(喬桐鄕吏)로서 무과에 급제하였고, 군관(軍官)·변장(邊將)을 역임하였다.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영원군수(寧遠郡守)로서 대동강 등지에서 적을 방어하다가 패배하였으나, 그 해 9월에는 왜병을 산간으로 유인하여 62명의 목을 베는 승리를 거두었다. 이어 1593년 양주에서 왜병 42명을 죽인 공으로 당상관에 올라 왕으로부터 양주목사를 제수받았다. 이는 양주에 건원릉이 있는 관계로 능침을 보호하고자, 스스로 자청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양주목사로 재직하면서 병사를 모으고 건원릉의 주산인 검암산 정상에 2개의 고루를 세워, 이 일대에서 약탈을 일삼던 왜병을 격퇴하는 전과를 거두었다.

이후 태릉에 왜군이 침범했을 때 방어를 잘하여 경기도방어사로 승진하였다. 또한 내원한 명나라 군사의 향도(嚮導)로서 서울탈환에 기여한 바가 컸으며, 경상좌도 병마절도사를 거쳐 1597년 정유재란 때에는 다시 경기도방어사가 되어 큰 전공을 세웠다.

종전 후 1604년 선무공신(宣武功臣) 2등에 책록되고 제흥군(濟興君)에 봉해졌으나 1609년(광해군 1) 광해군에 의해 임해군(臨海君)이 제거될 때, 임해군의 심복이라 하여 함께 살해되었다. 뒤에 선무공신으로 회복되었으며, 인조 때 병조판서로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燃藜室記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 1991
; 경기도, 『京畿人物誌』上, 1991

나만갑(羅萬甲) 1592(선조 25)~1642(인조 2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몽퇴(夢

* 제2장 1절은 장문철 집필임.

賚), 호는 구포(鷗浦)이다. 성균학유(成均學諭) 윤침(允忱)의 손자로, 세자시강원보덕(世子侍講院輔德) 급(給)의 아들이며, 정엽(鄭曄)의 사위이다.

1613년(광해군 5) 사마시(司馬試)에 장원으로 합격하여 성균관에 입학하였으나 이해에 인목대비(仁穆大妃)의 서궁유폐(西宮幽閉) 사건이 일어나자 벼슬에 뜻을 잃고 어머니를 모시고 귀향하여 오로지 책을 읽고 학문을 닦으면서 세월을 보냈다. 10년 동안 고향에서 독서로 나날을 보내고 있던 중, 1623년(인조 1) 인조반정(仁祖反正)이 일어나자 순릉참봉(順陵參奉)이 되었다. 이해에 통덕랑(通德郎)으로 알성문과(謁聖文科)에 병과(丙科)로 급제하여 숭문관 검치정사에 보용되었다. 1625년 예문관검열(藝文館檢閱)을 거쳐 홍문관교리(弘文館校理)에 임명되었다. 이때 노서(老西)의 거두인 김류(金瑬)가 북인인 남이공(南以恭)을 추천 등용하자, 소서(少西)의 일원으로 이를 적극 반대하다가 결국 강동현감(江東縣監)으로 좌천되었다. 그러나 그 뒤 이귀(李貴)의 도움으로 강등된 관직을 되찾게 되었다.

1627년 정묘호란이 일어나 왕이 강화도로 피난하게 되자, 종사관으로 왕을 따라 강화도로 가서 풍기를 바르게 하고 도민을 서로 경계하게 하여 범죄를 엄하게 다스렸다. 이듬해 환도한 후, 병조정랑·홍문관수찬·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했으나 이때 포로문제가 일어나 김류 등의 탄핵을 받고 귀양가게 되었다. 1631년 홍문관부수찬·사간원헌납이 되었으며 1634년 홍주목사를 역임하고, 이듬해 형조참의에 올랐으나 시정을 논하다가 파직당했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왕을 호종하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가 공조참의로 기용되었으며, 이어 병조참지로서 관향사(管餉使)가 되어 군량공급에 큰 공을 세웠다. 그러나 청과 강화조약을 맺은 후 무고를 받아 남해(南海)에 유배되었다. 1639년 유배에서 풀려나 영천(榮川: 지금의 영주)에서 여생을 보냈다. 후에 좌의정에 추증되었다.

저서로는 『병자록(丙子錄)』·『구포집(鷗浦集)』이 있다. 신도비는 1658년(효종 9)에 건립되었는데 청음(淸陰) 김상헌(金尙憲)이 글을 지었으며, 추기(追記)는 송준길(宋浚吉)이 글을 쓰고 손자 양좌(良左)가 지었다. 이 외에도 김수항(金壽恒)이 글을 지은 지명(誌銘)과 우암(尤庵) 송시열(宋時烈)이 글을 지은 묘표(墓表)가 있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上, 1991; 경기도, 『京畿金石大觀』6, 1992; 양주문화원, 『楊州郡誌』下, 1992

나상익(羅相翼)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이다. 조산대부(朝散大夫)로 현릉참봉(顯陵參奉)을 역임하였으나 자세한 행장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羅相翼墓碑銘』.

나성두(羅星斗) 1614(광해군 6)~1663(현종 4)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우천(于

天), 호는 기주(基洲)이다. 병조참지 만갑(萬甲)의 아들이며, 우의정 장유(張維)의 문인이다.

1646년(인조 24) 음사(陰仕)로 세자익위사세마(世子翊衛司洗馬)가 되었으며 이어 세자익위사익찬(世子翊衛司翊贊)을 거쳐 호조좌랑을 역임하였다. 그 뒤 봉산현감(鳳山縣監)을 지낸 뒤 효종 때에 해주목사(海州牧使)를 역임하였다. 청백리로서 이름이 있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羅星斗墓誌銘』; 『安定羅氏世譜』

나양좌(羅良佐) 1638(인조 16)~1710(숙종 36)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 자는 현도(顯道), 호는 명촌(明村)이다. 할아버지는 만갑(萬甲)이고 아버지는 성두(星斗)이며, 윤선거(尹宣舉)의 문인이다.

송준길의 천거로 희릉참봉(禧陵參奉)·동몽교관(童蒙敎官)·상의원주부(尙衣院主簿) 등에 임명되었으나 모두 사퇴하였다. 1683년(숙종 9) 평강현감(平康縣監)을 잠시 지내다가 사직하였다. 1685년 공조좌랑(工曹佐郎)·충청도도사(忠淸道都事)·종친부전부(宗親府典簿)·삭령군수(朔寧郡守) 등에 임명되었으나 역시 모두 사퇴하였다. 1687년 스승 윤선거의 누명을 벗기려고 상소했다가 영변에 유배된 후 이듬해에 풀려났다. 1689년 기사환국(己巳煥局)으로 자형 김수항, 매제 이사명(李師命)이 극형을 당하자 천리길을 달려가 이사명의 상을 치르고 돌아오니 모두들 그 의협심에 감탄하였다. 1706년 처음으로 장령(掌令)을 지냈다.

저서로는 『명촌잡록(明村雜錄)』이 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5, 1991

나영학(羅泳學) 생몰년 미상

조선시대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안정(安定)이다. 통정대부(通政大夫)로 참서관(參書官)을 지냈다고 하나 구체적인 기록이 없다.

〈참고문헌〉 『羅泳學墓碑銘』

범경문(范慶文) 1738(영조 14)~1800(정조 24)

조선 후기의 시인으로 인창동 최춘말에 묘가 있다. 본관은 금성(錦城), 자는 유문(孺文), 호는 검암(儉巖)이다. 중인 출신으로 가계와 생애는 확실하지 않고 슬하에 6남의 자손을 두었다.

그의 집은 아침마다 배오개시장(梨峴市)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장안의 광교(廣敎) 근처에 있었다고 전해진다. 17, 18세 때에 문장으로 이름나 진신대부(縉伸大夫)들 사이에 이름이 있었다. 여항시인인 김시모(金時模)·김진태(金鎭泰) 등과 교유하며 창작활동을 하였다. 최윤창(崔潤昌)·마성린(馬成麟)·백경현(白景炫) 등과 사귀었으며, 손아래인

천수경(千壽慶)을 비롯한 소위 송석원시사(松石園詩社)의 구성원들과도 관계를 맺었다.

음주를 좋아하고 성격이 소광(疎曠)하여 당시 이름있는 시인들과 수창하였으므로 그가 남긴 시 작품의 다수가 수창시이다. 저서로 『검암산인시집(儉巖山人詩集)』 2권 1책이 있다.

〈참고문헌〉 『儉巖山人詩集』; 『風謠三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1991; 『錦城范氏大同譜』上;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범세기(范世起) 1685(숙종 11)~1776(영조 52)

조선 후기의 인물로 인창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금성(錦城), 일명 혜기(惠起)로 한성 부좌윤(漢城府左尹)에 추증된 선봉(善奉)의 아들이다. 승정대부동지중추부사(崇政大夫同知中樞府事)를 역임하였다고 하나 이 외의 기록은 알 수 없다.

〈참고문헌〉 『錦城范氏大同譜』上;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범중은(范重殷) 1708(숙종 34)~1771(영조 47)

조선 후기 인물로 인창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금성(錦城)이며, 동지중추부사 세기(世起)의 아들이다. 한성부윤(漢城府尹) 겸 부총관(副總官)을 추증받았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錦城范氏大同譜』上;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송순(宋淳) 1538(중종 33)~1616(광해군 8)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진천(鎭川), 자는 혼원(渾元), 호는 망촌(忘村)이다. 생부는 계임(繼任)인데 진사 미복(眉福)에게 입양되었다.

1582년(선조 15) 식년문과에 합격하였다. 1587년 사헌부지평을 지낸 뒤 1596년 세자시강원보덕·사헌부집의를 거쳐 이듬해 동부승지·전라도관찰사·호조참의 등을 역임하였다. 1598년 병조참의·우부승지를 역임한 뒤 대사성·이조참의·예조참의·좌부승지를 지냈다. 잠시 강화부사·홍주목사로 나갔다가 대사간에 임명되었다. 1608년(광해군 즉위) 광해군이 즉위하자 병조참판·대사간·대사헌 등을 지내면서 자주 사직을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15년 형조판서·호조판서·지의금부사를 거쳐 이듬해 정헌대부로 대사헌에 다시 임명되었고 의령군(義靈君)에 봉해졌다. 죽은 후 1623년(인조 1) 인조반정이 일어나자 관작을 삭탈당하였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宣祖修正實錄』; 『光海君日記』;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신잠(申潛) 1491(성종 22)~1554(명종 9)

조선 중기의 문신이자 화가로 아차산 일대에서 오랫동안 머물렀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원량(元亮), 호는 영천자(靈川子)·아차산인(峨嵋山人)이다. 영의정 숙주(叔舟)의 증



손으로, 할아버지는 증예조참판(贈禮曹參判) 주(澍)이며, 아버지는 예조참판 종호(從漢)이다.

1513년(중종 8) 진사(進士)가 되고, 1519년 현량과(賢良科)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 검열이 되었으나 이해에 기묘사화로 파직되었다. 그 뒤 20여 년간 양주 아차산 아래에 은거하며 서화에만 몰두하다가 1543년 재등용되어 사옹원주부(司饔院主簿)가 되었다. 이어 태인현감(泰仁縣監)·간성군수(杆城郡守)를 역임하고, 1553년(명종 8) 상주목사(尙州牧使)에 임명되어 재직중 죽었다.

시·서·화에 모두 능하여 3절(三絶)로 일컬어졌으며 특히 묵죽(墨竹)과 포도그림을 잘 그렸다고 한다. 현재 그의 작품으로 단정지을 수 있는 것은 남아 있지 않으나, 국립중앙박물관의 심매도(尋梅圖)와 화조도(花鳥圖)가 그의 작품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저서로는 『영천집(靈川集)』이 있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明宗實錄』, 『國朝人物考』,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樸域書畫微』, 安輝濬, 『韓國繪畫史』, 一志社, 198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上, 1991.

신종호(申從漢) 1456(세조 2)~1497(연산군 3)

조선 전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와 묘갈이 있다. 본관은 고령(高靈), 자는 차소(次韶), 호는 삼괴당(三魁堂)이다. 영의정 숙주(叔舟)의 손자이며 봉례랑(奉禮郎) 주(澍)의 아들이다.

1474년(성종 5) 성균진사시에 장원급제하였으며, 1480년 식년문과에 다시 장원을 하여 그 해 감찰에 임명되었다. 이듬해 천추사(千秋使) 홍귀달(洪貴達)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어 명나라에 다녀온 후 수찬(修撰)·교리를 지냈다. 1486년 부응교(副應敎)로 있을 때 문과증시에 장원이 되어 과거제도가 생긴 이래 세 번이나 장원을 한 것은 그가 처음이라 하여 칭송을 받았다. 그 해 예빈시부정(禮賓寺副正)이 되었고, 『여지승람』을 정정하여 『동국여지승람』으로 다시 찬술하는 데 참여하였다. 그 공으로 녹피(鹿皮)를 하사받았으며, 왕명으로 요동(遼東)에 가서 한어(漢語)를 습득하고 돌아왔다. 1488년 홍문관직제학을 거쳐 부제학이 되었으며, 이듬해 동부승지가 된 뒤 예조참의·좌승지·우승지·도승지를 차례로 역임하였다.

1491년 대사헌으로 있을 때에 북호(北胡)의 변경침입사건에 관한 어전회의에서 영의정을 모욕한 죄로 파면되었으나 다시 등용되어 도승지, 동지중추부사, 병조·예조·이조 참판을 역임하였다. 1494년 경기도관찰사를 지내고, 이듬해 예조참판 겸 동지춘추관사(同知春秋館事)로 있으면서 『성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496년(연산군 2) 병을 무릅쓰고 정조사(正朝使)로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도중 개성에서 죽었다. 문장과 시·글씨에 뛰어났다. 저서로는 『삼괴당집(三魁堂集)』이 있다.

〈참고문헌〉 『成宗實錄』, 『燕山君日記』, 『燃藜室記述』,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3, 1991

오시만(吳始萬) 1647(인조 2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영석(永錫), 호는 춘헌(春軒)이다. 호조판서 정일(挺一)의 아들로, 예조판서 정위(挺緯)에게 입양되었다.

1666년(현종 7) 사마시에 합격하였고 1676년(숙종 2) 정시문과(庭試文科)에 장원으로 합격한 뒤 성균관전적과 사헌부지평을 지냈다. 1679년 문과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홍문관수찬·부수찬·부교리, 사간원헌납, 홍문관교리 등을 역임했다. 이듬해 이조좌랑을 거쳐 1689년 승지에 오르고, 1690년 대사헌에 올랐으나 부당하다 하여 다시 승지에 머물렀다. 1694년 당화(黨禍)를 입어 용천·강서 등지로 10여 년간 유배되었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1991

오억령(吳億齡) 1552(명종 7)
~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단이 있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대년(大年), 호는 만취(晩翠)이다. 사옹원직장(司饔院直長) 세현(世賢)의 아들이다.

1570년(선조 3) 사마시를 거쳐 1582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사관(史官)에 뽑혔다가 예문관검열, 호조·이조의 좌랑을 지냈다. 이듬해 사가독서(賜暇讀書)하고 이조정랑과 경상도안무사를 거쳐 사간원집의·홍문관전환을 역임하였다. 이때 일본의 사신 현소(玄蘇)가 오자 선위사(宣慰使)로



아천동에 있는 오억령의 단

서 그를 맞고, 왜병이 대거 침입해 올 것을 예언하여 선조에게 치계(馳啓)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전직되었다. 그 뒤 의정부검상(議政府檢詳)·성균관사성(成均館司成)을 거쳐 1591년 진주사(陳奏使) 질정관(質正官)이 되어 명나라에 갔다가 이듬해 돌아오던 길에 임진왜란이 일어나 개성에서 선조를 호종하였다. 이후 의주에서 이조참의, 우승부지, 대사성, 병조·공조·이조의 참의, 명나라 경략(經略) 송응창(宋應昌)의 부접반사(副接伴使) 등을 지냈다.

환도 후 대사간·도승지를 지내고, 이듬해 대사헌·이조참판, 이어 황해도관찰사 등을 역임한 뒤 1601년 부제학으로 청백리에 뽑혔다. 1604년 이조참판 겸 홍문관제학, 1607년 예조참판을 지냈고, 이듬해 선조가 죽자 고부청시청승습부사(告訃請諡請承襲副使)로 명나라에 갔으나 소임을 다하지 못해 귀국 후 한때 파직되었다. 그 뒤 병조참판·한성부판윤·대사헌·형조판서·우참찬·개성유수를 역임하였다. 1615년(광해군 7) 인목대비를



폐하는 데 반대하자 대북과 정인홍(鄭仁弘)이 앞서 사신으로 명나라에 가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일을 다시 거론하며 탄핵하니 병을 핑계로 사직하고 낙향하였다. 멀리 귀양을 보내자는 논의가 일어나자 4년간 대죄(大罪)하다가 죽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초서(草書)·예서(隸書)·전서(篆書)에 능했다. 백천(白川)의 문회서원(文會書院)에 제향되었고, 저서로는 『만취문집(晩翠文集)』이 있다. 시호는 문숙(文肅)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人物考』;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1991

오익(吳翊) 1574(선조 7)~1618(광해군 1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단이 있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필보(弼甫), 호는 월강(月岡)·묵재(墨齋)이다. 아버지는 우참찬(右參贊) 억령(億齡)이며, 어머니는 남양(南陽) 홍씨(洪氏) 일운(日雲)의 딸이다.

1603년(선조 36) 진사로 식년문과에 을과로 급제한 뒤 예문관봉교(藝文館奉敎)로 춘추관기사관(春秋館記事官)이 되어 임진왜란 때 불탄 실록의 재간(再刊)에 참여하였다. 1604년 예문관검열, 이듬해 대교(待敎)·승정원주서(承政院注書), 1606년 사헌부감찰(司憲府監察), 이듬해 성균관전직·병조좌랑을 역임하였다. 1608년(광해군 즉위) 사간원정언·예문관수찬을 지내고 이듬해 병조정랑·지제교로서 『선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1614년 검상, 이듬해 의정부사인(議政府舍人)·승정원승지를 역임하고 주청사(奏請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왔다.

글씨에 능하였고 함흥의 「환조정릉신도비(桓祖定陵神道碑)」 비문을 썼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國朝榜目』; 『朝鮮圖書解題』;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5, 1991

오전(吳塹) 1588(선조 21)~1634(인조 12)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북(同福), 자는 경보(敬甫), 호는 인주(麟洲)이다. 우참찬 억령(億齡)의 아들이다.

광해군 때 진사가 되었으나 아버지가 유배되자 과거를 단념하였다. 1623년(인조 1) 인조반정 후 의금부도사(義禁府都使)·빙고별제(氷庫別提) 등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았다. 1624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승정원주서가 되었으며, 이어 세자시강원설서(世子侍講院說書)·사서(司書), 홍문관교리·수찬, 사헌부지평 등을 역임하였다. 1633년 황해도 암행어사를 지냈다.

글씨를 잘 썼는데, 특히 해서에 뛰어났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6, 1991.

오정(吳靖) 1579(선조 12)~1623(광해군 15)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단이 있다.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여안(汝安)이며, 우참찬 억령(億齡)의 아들이다. 1603년(선조 36) 식년문과에 을과로 합격하여 병조참의까지 올랐다. 1623년(인조 1) 이조참의를 추증하였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同福吳氏大同譜』

오정위(吳挺緯) 1616(광해군 8)~1692(숙종 18)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군서(君瑞)·서장(瑞章), 호는 동사(東沙)이다. 아버지는 관찰사 단(端)이며, 당숙 전(鐔)에게 입양되었다.

1645년(인조 2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한 뒤, 1652년(효종 3) 홍문관부교리·수찬을 거쳐 1659년 승정원승지 등을 역임하고 1664년(현종 5) 예조참의가 되었다. 그 뒤 충청도관찰사·양주목사·경기도관찰사를 거쳐 1672년 호조·형조·공조의 판서를 역임하였다. 숙종 초에 서인 송시열에 대한 처벌문제로 남인이 온건파와 강경파로 분열될 때 청남(淸南)에 속하여 강경론을 지지했다. 1677년(숙종 3)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예조판서·우참찬을 지냈다. 1680년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으로 무안(務安)에 유배되었다가 다시 삭주(朔州)·보성(寶城)으로 이배(移配)되었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풀려나와 공조판서에 재등용되고, 이어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참고문헌〉 『孝宗實錄』; 『顯宗實錄』; 『肅宗實錄』; 『國朝人物考』;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 1991

이억기(李億祺) 1561(명종 16)~1597년(선조 30)

조선 중기의 무신으로 아천동에 의관을 거두어 치장한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수(景受)이다. 아버지는 필주군(泌洲君) 연손(連孫)이다.

어려서부터 무예에 뛰어나고 용맹하여 찬탄을 받았으며, 17세에 사복시내승(司僕寺內乘)이 되고, 그 후 무과에 급제하여 여러 벼슬을 거쳤다. 경흥부사(慶興府使)·온성부사(穩城府使)를 역임하면서 북방의 경비에 큰 공을 세웠다. 1591년(선조 24) 순천부사를 거쳐 전라우도수군절도사(全羅右道水軍節度使)가 되었다. 이듬해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이순신·원균 등과 합세하여 당항포(唐項浦)·한산도(閑山島)·안골포(安骨浦)·부산포(釜山浦) 해전 등에서 적의 병선을 대파하고 제해권을 잡는 데 크게 공헌하였다. 이순신이 무고로 투옥되자 이항복(李恒福)·김명원(金命元) 등과 함께 그의 무고를 주장하는 데 앞장섰다. 1597년(선조 30) 정유재란 때 통제사(統制使) 원균(元均)의 휘하에서 좌익군(左翼軍)을 지휘하여 용전하다가 칠천량(漆川梁) 싸움에서 원균과 함께 전사하였다.

난이 끝난 후 선무공신 2등으로 병조판서에 추증되고 완흥군(完興君)으로 추봉되었다. 1600년 여수의 충민사(忠愍祠)에 이순신과 함께 제향되었다. 시호는 의민(毅愍)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亂中日記』; 『懲毖錄』; 『燃藜室記述』,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8,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 上, 1991



이정빈의 아들 이명의 초상화(이현재 제공)

이정빈(李廷賓) 1539(중종 34)~1592(선조 2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경관(景觀)이며, 명종 때의 권신 양(樑)의 아들이다.

1563년(명종 18) 유학으로 알성문과에 갑과로 급제하였으나 아버지가 시제(試題)를 미리 알고서 답안지를 대신 작성하였다고 한다. 병조좌랑·정언을 거쳐, 급제 후 4개월 만에 이조좌랑이 되었으나 아버지가 이조판서가 되자 상피제(相避制)에 의하여 정언으로 전직되었다. 이때 그의 후임으로 친구인 유영길(柳永吉)을 추천하여 대간의 심한 반대를 받았으나, 대간이 오히려 삭직 및 외직으로 전출되었다. 아버지가 삭직되자 관직을 삭탈당하였고, 1592년(선조 25) 임진왜란 때 적에게 피살되었다.

〈참고문헌〉 『明宗實錄』; 『國朝榜目』; 『燃藜室記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 1991.

이척(李澈) 1572(선조 5)~?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급지(汲之), 호는 영호정(映湖亭)이다. 효령대군(孝寧大君) 보(補)의 7대손이다.

음서(蔭敍)로 훈련원도정(訓練院都正)이 되고,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 때 죽산부사

(竹山府使)로 군사를 이끌고 남한산성을 수비하였다. 이로 인해 왕으로부터 금대(金帶)와 금권(金圈)을 하사받은 후 공조참판에 올랐으나 청나라와의 화의를 반대하고 사직하였다. 후에 『절의록(節義錄)』에 수록되었다. 글씨에도 뛰어났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이충(李冲) 1568(선조 1)~1619(광해군 1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거용(巨容), 호는 칠택(七澤)이다. 양(樑)의 손자이며 정빈(廷賓)의 아들이다.

1600년(선조 33)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이듬해 무장현감(茂長縣監)을 거쳐 1602년 선전관(宣傳官)이 되고 1606년 성천부사(成川府使)로 나갔다. 이어 형조정랑·상례(相禮)·광주목사(廣州牧使) 등을 거쳐 1609년(광해군 1) 사도시정(司禦寺正)으로 춘추관편수관(春秋館編修官)을 겸직하면서 『선조실록』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어 대간으로부터 간신의 손자라 하여 탄핵을 받고 나주목사(羅州牧使)로 좌천되었다가 1612년 전라도관찰사에 올랐다. 이듬해 행대사간(行大司諫)·병조참판을 역임하고 1616년 선수도감제조(繕修都監提調)를 거쳐 1617년 좌참찬·우찬성이 되고 1618년 좌부빈객(左副賓客)·동지경연사(同知經筵事) 등을 역임하였다. 뒤에 우의정에 추증되었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光海君日記』;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18, 1991

이태(李郃) 생몰년 미상

조선 후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전주이다. 우찬성·충(冲)의 손자이며 민수(敏樹)의 아들이다. 숙종 때에 선혜청낭청을 역임하고 뒤에 한성부서윤을 지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肅宗實錄』; 『龜村遺稿』.

정기원(鄭期遠) 1559(명종 14) ~1597(선조 30)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교문동에 단(檀)이 있고 후손이 세운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사중(士重), 호는 견산(見山)이다. 별좌(別坐) 상신(象信)의 아들이다.

1585년(선조 18)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주서가 되었다. 이후 사헌부감찰이 되었다가 호조·형조·공조의 좌랑 등을 지냈다. 1592년 임진왜란 때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으로 명나라에 다녀온 뒤



교문동에 있는 정기원의 단



1594년 의주 행재소(行在所)에서 병조좌랑·춘추관기사관을 겸하였다가 곧 정랑이 되었다. 이해 안악현감이 되었다가 이듬해 병조정랑을 거쳐 사헌부장령 겸 지제교가 되었다. 이후 사간원헌납, 홍문관수찬, 시강원문학, 사간원사간, 종부시정(宗簿寺正), 승정원동부승지·우부승지 등을 역임하였다.

1596년 고급주문사(告急奏聞使)가 되어 다시 명나라에 가서 왜군이 재침입하여 올 움직임이 있음을 알렸다. 1597년 정유재란 때 명나라 부총병(副總兵) 양원(楊元)의 접반사(接伴使)로 남원에 갔다가 왜군과 싸움 도중 남원성에서 제장(諸將)과 함께 전사하였다. 양원이 조정에 돌아가 당시의 상황을 전하자 선조는 예조판서를 증직하였고, 뒤에 다시 승정대부 의정부좌찬성 세자이사 지경연춘추관사(崇政大夫議政府左贊成世子貳師知經筵春秋館事)를 더하였다. 1604년 선무공신 3등에 내성군(萊城君)으로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글씨도 잘 썼다. 남원의 충렬사(忠烈祠)에 제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의(忠毅)이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9, 1991;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정상신(鄭象信) 1539(중종 34)~1599(선조 32)

조선 중기의 인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입부(立夫)이다. 동래부원군(東萊府院君) 난중(蘭宗)의 현손(玄孫)이다. 음보(蔭補)로 빙고별좌(氷庫別坐)를 지냈고 내산부원군(萊山府院君)으로 추증되었으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宣祖實錄』; 『東萊鄭氏族譜』;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정윤주(鄭潤周) 1652(효종 3)~?

조선 후기의 인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동리(東里)이며, 별좌 상신(象信)의 현손이다. 음보로 참봉을 지냈으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東萊鄭氏族譜』;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정지교(鄭之僑) 1596(선조 29)~1659(효종 10)

조선 중기의 인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자서(子西), 호는 동리(東里)이다. 별좌 상신(象信)의 손자이고 회원(恢遠)의 차남이다. 1636년 이후 과거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東萊鄭氏族譜』;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정행일(鄭行一) 1630(인조 8)~?

조선 후기의 인물로 교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동래(東萊), 자는 도부(道夫)이며, 별좌 상신(象信)의 증손이다. 음보로 현감을 역임하였고 좌승지로 추증되었다고 하나 자세

하지 않다.

〈참고문헌〉 『東萊鄭氏族譜』: 한신대학교박물관, 『九里市 仁倉地區 文化遺蹟 및 民俗調査報告書』, 1994

조운흘(趙云佐) 1332(충숙왕 복위 1)~1404(태종 4)

고려 말·조선 초의 문신으로 본관은 풍양(豐壤), 호는 석간(石澗)·서하옹(西霞翁)이다. 평장사(平章事) 맹(孟)의 후손으로, 흥안군(興安君) 이인복(李仁復)의 문인이다. 『고려사』 권112에 사후 “양주 아차산 남쪽 마가야에 안장하였다.”라는 기록으로 보아 묘 소재지가 구리 지역으로 추측되나 정확한 곳은 알 수 없다.

1357년(공민왕 6) 문과에 급제하여 안동서기(安東書記)가 되었고, 함문사인(閤門舍人)을 거쳐 1361년 형부원외랑(刑部員外郎)에 올랐다. 홍건적의 침입 때 남쪽으로 피난하는 왕을 호종하여 1363년 2등공신이 되었다. 이듬해 국자감직강(國子監直講)이 되고 이어 전라(全羅)·서해(西海)·양광(楊廣)의 삼도안렴사(三道安廉使)를 지냈다. 1374년 전법총랑(典法總郎)이 되었으나 벼슬을 버리고, 상주 노음산(露陰山) 기슭에 은거하면서 스스로 석간서하옹(石澗棲霞翁)이라 하며 출입할 때는 소를 타고 다녔다. 이때 「기우도찬(騎牛圖贊)」·「석간가(石澗歌)」 등의 작품을 지었다.

1377년(우왕 3) 다시 좌간의대부(左諫議大夫)에 기용되고, 판교시사(判典校寺事)로 있다가 1380년 사임하고 광주(廣州) 고원장촌(古垣江村)으로 은퇴하였다. 그곳에서 자은사(慈恩寺)의 중 종림(宗林)과 친교를 맺으며 사평원(沙平院)·판교원(板橋院)을 중수하고 스스로 원주(院主)라 칭하였다. 1388년 다시 전리판서(典理判書)에 기용되고, 이해 밀직제학(密直提學)에서 서해도도관찰사(西海道都觀察使)로 나가 왜구를 토벌하였다.

이듬해 첨서밀직사사(簽西密直司事)를 거쳐 1390년(공양왕 2) 계림부윤(鷄林府尹)을 지냈다. 1392년 조선 개국 후 강릉부사로서 선정을 베풀었다. 이듬해 신병으로 사직하고 광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검교정당문학(檢校政黨文學)에 임명되었다. 그 후 사직하고 광주에서 여생을 보내다가 스스로 묘지(墓誌)를 짓고 73세에 죽었다.

저서로 『석간집(石澗集)』이 있다고 하나 전해오지 않는다. 편서로 『삼한시귀감(三韓詩龜鑑)』이 전하고 그 밖에 『동문선』에 5수의 칠언절구가 현전한다. 『고려사』에 묘가 아차산 남쪽 마가야에 있다고 전해지나 확인할 수 없다.

〈참고문헌〉 『高麗史』; 『高麗史節要』; 『太宗實錄』; 『東文選』; 『文獻備考』; 『燃藜室記述』;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 1991

채시구(蔡時龜) 1605(선조 38)~1681(숙종 7)

조선 후기의 인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문서(文瑞)이며, 예조판서 유후(裕後)의 입양 아들이다. 1654년(효종 5) 진사로 처음 지방관직을 맡았다가 후에 장성부사(長城府使)를 역임했다고 하나 자세하지 않다.

〈참고문헌〉 『平康蔡氏族譜』



채유후(蔡裕後) 1599(선조 32)~1660(현종 1)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사노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평강(平康), 자는 백창(伯昌), 호는 호주(湖洲)이다. 진사 충연(忠衍)의 아들이다.

17세 때 생원이 되고 1623년(인조 1) 개시문과(改試文科)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를 한 뒤에 교리·지평·이조좌랑·응교를 지내고 사간을 역임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 때 집의(執義)로서 인조를 호종하였다. 김류 등의 강화천도 주장을 반대하고 주화론에 동조하였다가 구금된 뒤 1638년 석방되었다. 난이 끝난 뒤 사은사 이성구(李聖求)의 서장관으로 심양(瀋陽)에 다녀왔다. 1641년 광해군이 제주도에서 죽자 예조참의로서 호상(護喪)을 맡았다. 1647년 동부승지를 거쳐 부제학·대사성·대사간을 역임하고 이조참의가 되었다.

1652년(효종 3) 이조참판에 오르고 이듬해 대제학으로서 『인조실록』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후 이조참판 겸 동지경연사를 역임하고 여러 차례 대사헌을 거친 뒤, 1657년 대제학으로서 『선조수정실록』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이어 예조판서·우참찬에 제수되었다. 이듬해 이조판서에 오르고, 대제학을 8년 동안 겸하였다. 이후 형조판서를 지내고 다시 예조판서가 되었으나 주실(酒失)을 저질러 사헌부의 탄핵으로 파직되었다. 현종이 즉위한 뒤 찬집청당상(撰集廳堂上)이 되어 『효종실록』 편찬에 참여하였고, 1659년(현종 1) 성절사(聖節使)로 청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9월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유계(兪槩)의 탄핵으로 사임하였다. 그 뒤 공조참판·내국제조(內局提調)를 거쳐 다시 대사헌이 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병사했다. 죽은 뒤 실록편찬의 공으로 승정대부 좌찬성에 추증되었다.

작품으로는 시조 2수가 전하며, 저서로는 『호주집(湖洲集)』이 있다. 시호는 문혜(文惠)이다.

〈참고문헌〉 『仁祖實錄』; 『孝宗實錄』; 『顯宗實錄』; 『顯宗改修實錄』; 『英祖實錄』; 『正祖實錄』; 『燃藜室記述』; 『國朝榜目』;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1, 1991

홍상(洪常) 1457(세조 3)~1513(중종 8)

조선 덕종의 사위로 아천동에 묘와 신도비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자강(子剛)이며, 좌의정 응(應)의 아들이다.

1466년(세조 12) 덕종의 딸 명숙공주(明淑公主)와 결혼하여 당양위(唐陽尉)에 봉해지고 오위도총부도총관(五衛都總府都總官)이 되었다. 연산군 초에 수록대부(綏祿大夫)의 위계를 받았으나 1504년(연산군 10)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함평으로 유배되었다가 안성으로 양이(量移)되었고, 다시 거제로 유배되었다가 제주로 이배되었다. 1506년(중종 1) 중종반정으로 풀려나와 조정에 돌아온 뒤 원종공신(原從功臣)이 되었다.

도량이 넓고 성품이 온화했으며 부귀로 사람을 억압하지 않아 백성들이 왕실의 사위인 줄 알지 못하였다. 시호는 소이(昭夷)이다. 신도비는 1514년에 건립되었는데, 성균관

사성 이행(李荇)이 짓고 사헌부장령 김희수(金希壽)가 썼다.

〈참고문헌〉 『中宗實錄』; 『燃藜室記述』; 『璿源系譜』; 『國朝人物考』, 신구문화사, 『한국인명대사전』, 1979; 한국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下, 1991; 경기도, 『京畿
金石大觀』6, 1992

홍응(洪應) 1428(세종 10)~1492(성종 23)

조선 초기의 문신으로 아천동에 묘가 있다.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응지(應之), 호는
휴휴당(休休堂)이다. 한성부윤 심(深)의 아들이다.

1451년(문종 1) 증광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좌정언(左正言)을 거쳐 사가독서를 한
뒤 집현전교리·필선(弼善)·보덕을 역임했다. 1463년(세조 9) 도승지로 있을 때에 영응
대군(永膺大君)과 함께 『명황계감(明皇誠鑑)』을 국역(國譯)하였다. 1466년 발영시(拔英
試)에 급제하고, 1468년(예종 즉위)에 남이(南怡)의 옥사를 다스린 공으로 익대공신(翊
戴功臣) 3등이 되었다. 그 뒤 지중추부사에 올라 익성군(益城君)에 봉해졌다. 1471년(성
종 2) 다시 좌리공신(佐理功臣) 3등에 오르고 익성부원군(益城附院君)에 진봉되었다.
1479년 우의정이 되고 1485년 경기·충청·전라·경상도의 4도순찰사를 지낸 후 좌의정
이 되었다.

문장이 뛰어나고 글씨를 잘 썼으며, 어진 재상으로 이름이 높았다. 성종의 묘정에 배
향되었으며,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참고문헌〉 『文宗實錄』; 『世祖實錄』; 『睿宗實錄』; 『成宗實錄』; 『大東韻府郡玉』; 『燃藜室記述』; 『槿域書畫徵』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5, 1991; 경기도, 『京畿人物誌』下, 1991; 경기도,
『京畿金石大觀』6, 1992

제2절 근대인물*

김규식(金奎植) 1880(고종 17)~1931

한말·일제 독립운동가로 호는 노은(蘆隱)이고, 이명은 서도(瑞道)이다. 구리면 사노리
출신으로 주명수와 결혼하여 4남 1녀를 두었다.

1907년 육군 참위(參尉)로서 군대가 해산당하자 철원에서 의병을 일으켜 수차에 걸쳐
일본군을 대파하였으나 부상을 당하고 은신하였다가 1912년 3월 만주로 망명하였
다.(1915년에 태어난 그의 외동딸 김현태의 증언에 의하면, 아버지는 1882년 임오생이며
구국운동을 하다 경술년 즉 1910년에 만주로 망명하였다고 한다.)

1919년 8월 북로군정서를 조직하고 사단장이 되어 무장투쟁에 앞장섰으며, 왕청현(汪

* 제2장 2절은 강진갑·김성환 집필임.



淸懸) 십리평(十里坪)에 세운 사관연성소의 교관으로 김좌진 등과 함께 청년교육에 힘썼다. 1920년 10월 북로군정서 제2연대 제1대대장으로 청산리전투에 참가하여 일본군을 대파하였으며, 이어 밀산(密山)에서 서로군정서와 대한독립단 등 여러 단체의 군대가 통합하여 대한독립군단(大韓獨立軍團)을 편성하자 이 군단의 총사령이 되어 3,500여 명의 군사를 이끌었다.

노령의 자유시(自由市)에서 참변을 겪은 후 연길현(延吉縣)으로 돌아와서 상해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상해노병회(上海勞兵會)의 지원을 받아, 1923년 5월 고려혁명군(高麗革命軍)을 조직하고 총사령에 선출되었다. 고려혁명군은 병농일치(兵農一致)의 체도를 실시하여 직접 농사를 지어 군수문제를 해결하였으며, 소련으로부터 비밀리에 무기를 구입하여 무장력을 강화하고 군사훈련을 계속하였다. 1925년에 북구 영안현(北溝寧安縣)에서 신민부(新民府)가 조직되자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해에 그의 식솔 7명 모두를 만주로 이주시켰다. 이때 일경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가재도구들은 그대로 둔 채 온가족이 한밤을 이용하여 빈몸으로 고향을 탈출하였고, 이주한 후에도 일경 및 주구의 감시와 탄압을 피해 자주 이사하였으며 중국옷으로 변장하기도 하였다.

1926년 4월 5일 길림성 영남(嶺南)호텔에서 각계의 혁신적인 대표들이 모여 고려혁명당(高麗革命黨)을 조직하자, 중앙위원으로 선정되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항일투쟁을 계속 할수록 장기적인 항일투쟁을 위한 2세 교육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연수현(延壽縣)에 학교를 설립하였다. 학교 운영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1931년 4월 10일 주하현(珠河縣)으로 가서 최악(崔岳)·홍진(洪震)·신숙(申肅) 등을 만난 후 최악의 사주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암살당하였다. 당시의 상황에 대해 딸 현태는 다음과 같이 회고하였다. “아버지는 연수에 조선학교를 꾸리는 데 선생이 부족하자 주하현(현재의 상지시) 하동에 전화를 걸었다. 하동에서는 전화로 토론하기 불편하니 한번 나오라고 했다. 이리하여 아버지는 하동으로 갔다가 하동3계에서 피살됐는데 … 강가에 가서 살해하고 묶은 채로 마의하에 던졌다.”

1963년 정부에서는 그의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하였다.

〈참고문헌〉 「경기도 양주군 구리면 사노리 金顯旭 호적등본」; 朝鮮總督府警務局, 『國外朝鮮ニ於ケル容疑朝鮮人名簿』, 1934;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공훈록』4, 1987; 김승학, 『한국독립운동사』, 통일사, 1965;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4, 1995

문일평(文一平) 1888(고종 25)~1939

국사학자이자 언론인으로 호는 호암(湖巖), 본관은 남평(南平)이며 천두(天斗)의 아들이다.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3742) 구리시 지역에 있다.

평안북도 의주 출생으로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성장하였다. 일본으로 유학가기 직전까지는 고향에서 한학을 수업하였으며 12세 때 결혼하여 3살 위인 부인 김씨로부터 한글을 배웠다.

일제의 강압적인 을사늑약이 있던 해인 1905년 일본에 유학하여 미국 선교사의 소개

로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중학부와 미사노리학원(正則學院)을 거쳐 이해 가을 메이지학원(明治學院) 중학부 3학년에 편입하여 홍명희·이광수 등과 수학하였다. 이후 1908년 졸업할 때까지 관서출신 유학생들의 자강운동단체였던 태극학회(太極學會)에서 평의원, 총무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학회의 기관지인 『태극학보』의 편찬에 참여하였다.

이때 저술한 글들은 주로 체육을 장려하여 건전한 국민을 양성하자는 것과 자유·진보·문명 등에 관한 계몽적인 논설들이었는데, 이것은 이 시기 자강운동가였던 최광옥·장응진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특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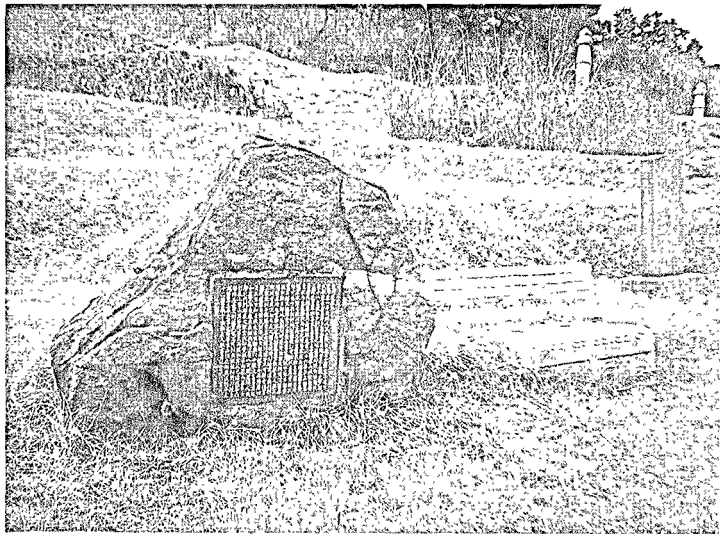
「아국(我國) 청년의 위기」라는 논설에서는 국가의 독립을 위해서는 개인의 자주성이, 개인의 진정한 자주를 위해서는 정신·언론·사상의 자주가, 정신의 자주를 위해서는 자국(自國)의 국수(國粹)를 존경하고 자국의 인물을 숭배하는 관념이, 사상의 자주를 위해서는 외계의 지식을 흡수 동화케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문명개화론’을 뛰어넘어 주권재민을 토대로 한 국민주권론과 국가독립론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훗날 민족주의사관의 형성에 기초가 되었다.

1908년 메이지학원을 졸업한 후 귀국하여 안창호가 세운 평양의 대성학교, 의주의 양실학교, 김규식이 교감으로 있던 한성의 경신학교 등지에서 황의돈 등과 함께 교편을 잡는 한편, 최남선이 운영하고 있던 광문회(光文會)에 관여하여 상동청년회(尙洞靑年會) 토요강습소의 교사로도 활동하였다. 즉 이 시기는 일본 유학생회에서 형성하였던 자강운동론을 교육을 통해 구체적으로 실현하던 시기였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자 교육을 통한 자강운동의 보급을 포기하고 미국 유학을 택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정치학을 연구하기 위해 1911년 일본 와세다대학(早稻田大學)으로 유학하였다. 이듬해 와세다대학의 예과를 수료한 후 정치학부에 입학하여 1학기를 수강하였으나 안재홍·김성수·장덕수·윤홍섭 등과 교류하면서 정치학보다는 역사와 문학 쪽으로 관심의 방향을 돌려 유학생 친목회의 기관지인 『학계보(學界報)』의 편집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역사학으로의 관심은 정치학 수업이 국권회복을 위해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기인한 것이다.

그리고 일황(日皇) 명치(明治)의 죽음으로 예비검속이 강화되는 등 신변에 불안을 느껴 즉각 중국행을 결행하였다.

상해로 건너가 신규식의 소개로 대공화보사(大共和報社)에서 일본어의 번역을 담당하는 한편 중국신문사 등에 근무하면서 논설을 쓰기도 하였다. 이때 중국은 신해혁명 직후



문일평 묘역

로 공화주의적인 사회분위기가 만연하였는데, 이러한 중국의 분위기는 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12년 5월 독립운동을 목적으로 신규식 등이 조직한 비밀결사인 동제사(同濟社)에 가입하고 여기서 함께 활동하였던 박은식·신규식·신채호 등과 함께 박달학원(博達學院)의 교사로 후진을 양성하기도 하였다.

이때 그는 시민적 민족주의사상과 대동사상(大同思想) 등을 정치사상으로 하고 국혼(國魂)을 중시한 민족주의 역사관과 대종교(大宗教)의 국교적(國敎的) 신앙을 공통이념으로 하던 동제사에서 홍명희·조소앙 등과 동거, 교유하였고 김옥균이 피살된 동화양행(東和洋行)을 방문하기도 하였다. 상해혁명당의 진기강(陳其美), 청년외교관 고웅균(顧雄鈞) 등 중국인사들과의 교유도 넓혔다. 또 장자(莊子)와 불교로 관심을 옮겨가며 다양한 학문적인 편력을 경험하고 이를 토대로 민중·언론·혁명·종교 등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였다. 민족주의사학을 학습하고 역사의 원동력으로서 민중을 강조하는 사관을 형성하는가 하면 정치외교사의 실리적인 면을 인식하는 등 향후 역사연구에 결정적인 기초를 마련하였다. 즉 이 시기는 일본, 국내, 상해를 오가면서 문명개화론의 한계를 극복하고 민족주의 역사학의 기초를 다지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18년 귀국 후 이듬해 3·1운동에 참여하여 3월 12일 「애원서(哀願書)」라는 제하의 글을 낭독하고 시위운동을 주도, 8개월의 징역을 선도받고 복역하였다. 1920년 4월에는 『동아일보』 창간을 기념하여 「삼각산」이라는 한시를 기고하면서 일본의 침략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강력하게 피력하였다. 특히 「애원서」에서 “조선독립은 민족이 요구하는 정의, 인도로 대세필연의 공리요, 철칙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 그의 3·1운동 참여가 민족자결주의를 토대로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역 후 중동, 중앙, 배재, 송도 등의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동시에 『조선일보』, 『중외일보』, 『개벽』 등에 논설을 기고하면서 역사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켜 갔다. 1923년에는 『동명』에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이라는 글을 발표하여 과거의 혁명운동을 계급투쟁적 입장에서 서술한 그의 역사관이 유물사관에서 말하는 계급이론과는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었지만 사회경제사관을 수용한 민중에 있음을 드러내 주었다. 그리고 이병도와 의 교류로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은 1925년 일본으로의 세번째 유학의 길을 떠나게 하였다.

그러나 동경에서 이케우치(池內宏)의 강의를 들었으나 일본의 식민사학적인 역사관의 팽배로 더 이상 일본에서 공부할 수 없음을 깨닫고 1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귀국하였다. 이때 우리손으로 쓰여진 역사교과서가 거의 전무한 실정에서 권덕규의 『조선유기(朝鮮留記)』와 황의돈의 『조선중등력사(朝鮮中等歷史)』가 간행되자 이를 뛰어난 교과서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즉 이 시기는 신채호의 강한 영향 아래 민족주의 역사학이 형성되던 시기로 특히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과 그의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이 1923년이라는 같은 시점에 발표되었다는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귀국 이후 1939년 타계할 때까지의 기간은 그가 국사학자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한 시기이자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시기이다. 이에 1927년 2월 『중외일보』의 기자 자격으로 신간회의 발기인에 참여하여 간사를 역임하였고 물산장려회의 이사로 선임되어 기관지 『자활(自活)』의 주필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비타협적 민족주의 집단으로서 신간회, 물산장려회에서의 활동은 그의 민족주의사학이 지니고 있는 비타협성, 민중적 성격과 연결되어 있다.

1933년 『조선일보』의 경영권이 방응모에게 넘어가자 그는 편집고문을 맡아 사론과 논설을 집필하였고 이후 자리가 안정되면서 역사연구에 전력하여 언론을 통한 역사의 대중화에 온힘을 기울였다. 즉 『조선일보』에서는 발매부수의 신장을 위해 그에게 계속 지면을 제공하였고 그는 이를 역사 관계의 특집기사에 많이 할애하였다. 이에 총독부에서는 수백 원의 막대한 월급으로 『매일신보(毎日申報)』로 오도록 유혹하였으나 이를 단호히 거절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학운동에 참여하여 국학의 진흥에 노력하였고 1934년 진단학회의 창립에 동참하여 실증주의에 입각한 문헌고증사학 방법론의 도입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가 남긴 100여 편의 글 중 90% 이상이 1927년부터 1939년 사이에 집필되었는데, 주로 대중적인 역사 관계의 것으로 신문과 잡지를 통하거나 대중강연을 통해 발표되었다. 이것은 그의 사학이 대중적인 역사서술체계, 조선심의 강조, 문헌고증사학의 방법론 도입과 연결되는 것으로 그가 우리의 역사 속에서 민족문화, 민족정신을 찾아 보급하려고 하였던 노력에 얼마나 부심하였는지를 알게 한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또한 중일전쟁 발발 이후 일제의 황국신민화정책 속에 국어·국사교육이 금지되자 1938년 홍명희, 송석하, 최익한, 황의돈 등과 함께 역사유적과 향토예술의 조사활동에도 관심을 보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대중적인 형식의 역사연구는 그의 관심사 중 하나였던 문헌고증사학의 방법론을 실제의 역사연구에 적용하는 데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것은 그의 저술 중 『조선일보』에 100여 회 연재된 「대미관계사 50년」 정도를 제외하고는 문헌고증사학의 방법론에 충실한 논저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짐작할 수 있다.

그의 역사학의 특징으로는 ‘조선심’과 ‘민중’의 개념을 들 수 있다. 특히 ‘조선심’은 다른 민족주의 사학자들의 ‘혼’, ‘열’ 등의 정신적인 면모를 뛰어넘은 문화적인 색채를 강조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조선심’은 조선의 역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조선사상으로 구체적으로 표현된다고 한다. 따라서 훈민정음을 발명한 세종을 ‘조선심’의 대표자, 조선사상계의 대위인으로, 훈민정음을 ‘조선심’의 결정(結晶)으로 평가하고 있다. 즉 “조선어, 조선사, 조선문학 등을 포괄하고 있는 조선학은 조선글의 발명과 발달로 존재의 가치가 증대되는 것으로 조선글의 창제가 없었다면 조선말은 절름발이 말이 되고, 조선역사는 눈먼 역사가 되며, 조선문학은 얼빠진 문학이 되어 조선학의 자립을 보기가 자못 어려웠을 것”이라는 그의 평가는 조선학의 토대로서 조선글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알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그의 평가에 따르면 조선글이 발명된 조선시대, 특히 세종 때는 조선심이 가



장 발전하였던 시기였다. 즉 조선시대의 문명은 이용후생의 견실성이 뛰어난 문화이며 세종 때는 앞으로 다가올 민중시대에도 사상계를 선도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조선 후기의 실학은 ‘조선심’의 재현이라 할 수 있으며 실학의 실사구시는 조선학의 자아확립 방법이다.

한편 그는 민중 중심의 역사관을 역사서술을 통해 구체화하려고 노력하였다. 민중 중심의 역사관은 1920년대 초반 신채호가 제기한 것으로 그는 역사 속에서 민중의 발견을 신세계의 발견에 비유하였다. 따라서 1933년 『조선일보』에 연재된 「사안(史眼)으로 본 조선」에서 미래의 문명은 과거의 문명과 같은 소수의 귀족문명이 아니라 다수의 민중문명으로 발전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조선문명이 실용적 색채를 띠고 있는 만큼 과거의 문명에는 미래의 민중문명을 배태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민중이 미래문명을 창조하는 주체이고 조선의 역사는 민중문명을 향하여 발전해 온 역사임을 밝히고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그의 역사관을 이루고 있는 핵심인 민중지향, 실용지향, 민족지향의 ‘조선심’과 ‘민중’의 두 가지 개념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상호 긴밀히 연결되어 문화주의적 발전사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민중은 역사를 창조하는 주체이자 미래는 민중들에 의해 역사가 주도될 것이다. 특히 조선의 역사는 조선글의 창제로 인해 조선심이 발현되면서 미래의 민중문명을 향해 발전하였다.”는 것이 그의 민족주의 역사관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조선심을 토대로 민중에 의해 조선이 다시 재흥할 것을 바라고 언론을 통해 민중들을 계몽시킴으로써 일제식민지하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염원하는 것이었다.

1927년 역사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그는 일제의 탄압과 민족운동의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해야만 했다. 논설은 크게 외교사, 정치사, 문화사 및 사적(史蹟)과 자연 등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정치사와 문화사에 대한 그의 관심은 계속되지만 1934년을 전후하여 일제의 민중운동에 대한 탄압이 가중되고 합법적인 민족운동을 더 이상 펼칠 수 없게 되자 국권의 상실을 강조하던 외교사에 대한 관심은 사적과 자연으로 옮겨진다.

외교사에 관한 논설로는 「대미관계 50년사」·「조선인의 국제안(國際眼)」·「만주와 조선인」·「한말외교」·「서세동점의 선구」 등이 있는데, 주로 1929~1933년경에 쓰여진 것이다. 그는 정인보, 신채호, 안재홍 등 다른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의 관심이 고대사에 편중되어 있던 것에 반해 민족의 문제를 근대의 대외관계사 속에서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미관계 50년사」에서 미국의 대한정책의 본질을 실증적으로 파헤쳐 미국의 제국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조선의 쇠퇴원인을 국제적 문맹(文盲)이라 결론짓고 신라의 통일을 소조선운동(小朝鮮運動)으로 격하시킨 데 반해, 고구려의 통일운동을 대조선운동(大朝鮮運動)으로 높이 평가하였다. 한편 김옥균·박영효 등 개화파의 갑신정변을 일본에게 이용당한 것으로, 일본의 침략을 조선 지도층의 국제적 혜안(惠眼)의 부족과 관련하여 이해하고

대외관계에서 실리적인 외교정책을 강조함과 동시에 제국주의의 침략적인 본질을 고발코자 하였다.

정치사에 관한 글로는 「역사상의 반역아」, 「조선 과거의 혁명운동」, 「한양조의 정치가 군상」, 「사상(史上)의 기인」 등을 들 수 있다. 정치사 연구에서 가장 큰 특징은 역사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민중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이다. 민중의 계급투쟁은 국력의 피해를 막고 사회의 정체를 극복하기 위한 역사의 진화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흥경래의 난과 동학농민운동을 상민계급의 1·2차 혁명운동이라고 평가하여 계급혁명적 성격을 논하고 이러한 인식을 현재에 접목시켜 우리 역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만주문제를 민중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였다.

문화사와 사적, 자연에 관한 글로는 「조선문화에 대한 일고찰」, 「세계문화의 선구」, 「문화적 발굴」, 「이조문화사의 별혈(別頁)」, 「근교산악사화」, 「고건물순례」, 「조선의 명산 거찰」, 「사(史)와 시(詩)의 도(都) 강화」 등이 있는데, 이들은 주로 1933년 『조선일보』로 자리를 옮긴 후 신문을 통하여 발표되었다. 즉 문화적인 색채가 강한 연구를 함으로써 ‘문화주의적 발전사관’을 제시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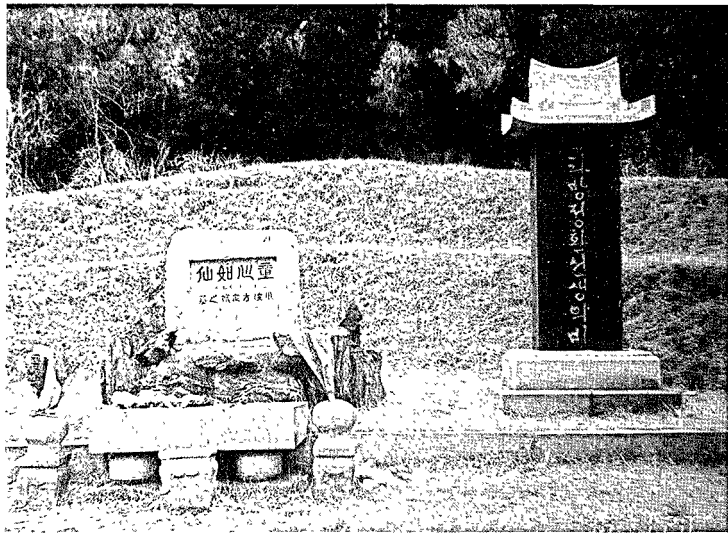
그의 역사관은 정치사적인 측면에서 실패한 역사를 문화적인 측면에서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서 ‘조선심’을 주체로 한 민중문화의 발전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역사관은 그가 제시하고 있는 민중이라는 개념이 역사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것이라 할지라도 왕조 중심적인 역사인식의 극복과 민족주의 역사학자들이 치우쳐 있던 정신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즉 일제강점기의 민족주의사학이라는 대전제에서 그는 정인보, 안재홍 등과 함께 신채호, 박은식 등에 의해 성립된 민족주의사학을 발전시켜 1940년대 손진태, 안재홍 등에 의해 제시된 신민족주의사학을 성립시키는 교량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이다.

그의 논설을 비롯한 신문, 잡지에 실린 여러 편들의 글들은 사후 『호암사화집』, 『호암전집』, 『소년역사독본』 등 5권의 유저(遺著)로 1939~1940년 사이에 출간되었다.

〈참고문헌〉 문일평, 『호암전집』, 1940; 홍이섭, 『호암 문일평』, 『한국사의 방법』, 탐구당, 1968; 김용섭, 『우리나라 근대역사학의 발달』, 『문학과 지성』, 1971; 이기백, 『민족주의사학의 발전』, 『민족과 역사』, 일조각, 1971; 이기백, 『호암 문일평과 그의 사학』, 『호암사론집』, 탐구당, 1975; 이만열, 『민족주의사학의 한국사인식』, 『한국 근대역사학의 이해』, 문학과 지성사, 1981; 김광남, 『문일평의 인물론에 대하여』, 『사학연구』36, 1983; 김광남, 『호암 문일평의 외교인식』, 『사학연구』38, 1984; 강만길, 『일제시대의 반민족사학론』, 『한국민족운동사론』, 한길사, 1985; 문철영, 『호암 문일평의 역사인식』, 『한국학보』46, 1987; 한영우, 『민족사학의 성립과 전개』, 『국사관논총』3, 국사편찬위원회, 1989; 조동걸, 『민족사학의 분류와 성격』, 『한국 민족주의의 발전과 독립운동사연구』, 지식산업사, 1993; 윤해동, 『문일평』, 『한국의 역사가와 역사학』하, 창작과 비평사, 1994

방정환(方定煥) 1899(광무 3)~1931

아동문학자로 호는 소파(小波)이며,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3703) 구리시 지역에 있다.



방정환 묘역

서울 야주개(唐珠洞)에서 가난한 집안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7세 때 보성보통학교에 입학하였으나 졸업을 못 하고 다시 1913년 미동보통학교를 졸업하고 선린상업학교에 입학했으나 2년 만에 중퇴하였다. 17세 되던 해 조선총독부 토지조사국에 취직했으나, 이곳이 토지조사사업을 담당하여 조선인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기관이었기 때문에 곧 사직하고 천도교청년회, 개벽사(開闢社), 천도교소년회 등 천도교와 관련을 맺었다.

1917년 손병희의 딸 용화와 결혼하면서 장인 손병희에게서 물심양면의 도움을 받는다. 청년문학단체인 '청년구락부'를 조직하

여 활동하면서 어린이운동에 열성을 보였다. 영민하였지만 불우한 소년시절을 보냈던 경험으로, 고생하며 자라는 아동들의 불행까지도 꿰뚫어 보는 눈을 갖게 되었다. 그의 어린이운동에 대한 열성과 집념은 이미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었던 것이다. 이어 천도교에서 운영하는 보성전문학교(普成專門學校)에 입학하였다.

3·1운동이 일어나자 그는 자신의 집에서 등사판으로 『독립신문』을 발행하다가,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모진 고문을 받았으나 끝까지 자백을 하지 않았고 1주일 만에 석방되었다. 1920년 일본 도쿄 도요대학(東洋大學) 철학과에 입학하여 아동예술과 아동심리학을 연구하였다.

1921년 23세 되던 해, 방학으로 서울에 돌아와 천도교소년회를 만들었다. 소년회라는 것은 그즈음 이미 진주, 광주, 안변 등지에 만들어져 있기는 했지만 서울에서 깃발을 올린 것은 이 천도교소년회가 처음이었다. 3·1운동 후 청년운동이 팽배해 있던 터라 이런 취지는 일반에게서도 지지를 받아 소년회는 전국 각지에 우후죽순격으로 결성되었다. 이러한 소년회 조직이 전국에 번져나가는 한편 방정환은 부모의 각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전국 순회강연을 했다. 강연내용은 어린이들을 위해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자는 것이었다. 그는 아동을 지칭하는 '어린이'라는 용어를 처음 만들어 '늙은이'·'젊은이'와 대등하게 격상시키기도 했으며, 어린이 동화집도 냈다.

같은 해 일본 도쿄에서 세계 명작동화집 『사랑의 선물』을 번역하였는데, 어린이를 위하는 마음으로 가득찬 소년운동 지사(志士)의 정성과 의욕이 담긴 책이었다. 『사랑의 선물』을 내면서 방정환은 더 큰 일을 구상했고 동지의 규합에 노력을 기울였다.

1923년 3월 1일에는 월간 『어린이』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순수아동잡지를 창간했고, 이어 도쿄에서 어린이 문제를 연구하는 단체인 '색동회'도 조직하였으며, 이해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지정하여 기념식을 가졌다. 이 색동회는 윤극영·마해송·윤석중 등이 가입

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잡지 『어린이』를 움직이게 한 원동력이 되고, 방정환이 오랫동안 구상해 오던 소년운동의 바탕이 된 것이다. “씩씩하고 참된 소년이 됩시다. 그리고 늘 서로 사랑하며 도와 갑시다.”라는 구호를 내세우고 전개한 이 어린이날 행사 기념식에서 ‘어린이날의 약속’이라는 전단 12만 장을 배포하였는데 그 의의는 자못 큰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른에게 드리는 글

- 一, 어린이를 내려다보지 마시고 쳐다보아 주시오
- 一, 어린이를 가까이하사 자주 이야기해 주시오
- 一, 어린이에게 존대말을 쓰시되 늘 부드럽게 해 주시오
- 一, 이발이나 목욕, 의복 같은 것을 때맞춰 하도록 하여 주시오
- 一, 잠자는 것과 운동하는 것을 충분히 하게 하여 주시오
- 一, 산보와 원족 같은 것을 가끔가끔 시켜 주시오
- 一,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쉽게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자세 타일러 주시오
- 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어린이 동무들에게

- 一, 돈은 해와 지는 해를 반드시 보기로 합시다.
- 一, 어른에게는 물론이고 당신들끼리도 서로 존경하고 서로 존대하기로 합시다.
- 一, 뒷간이나 담벽에 글씨를 쓰거나 그림 같은 것을 그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길가에서 떼를 지어 놀거나 유리 같은 것을 버리지 말기로 합시다.
- 一, 꽃이나 풀은 꺾지 말고, 동물을 사랑하기로 합시다.
- 一, 전차나 기차에서는 어른에게 자리를 사양하기로 합시다.
- 一, 입은 꼭 다물고 몸은 바로 가지기로 합시다.

방정환은 잡지 『어린이』를 꾸미고 그것을 유지 경영하기 위한 온갖 노력을 기울였다. 책 구석구석에 넘쳐 있는 애정의 물결은 독자와 편집자의 사이에 간격을 두지 않아, 실로 우리나라 잡지사에 길이 남을 잡지로 평가되고 있다. 『어린이』를 통하여 윤석중·이원수·서덕춘 등 아동문학가를 발굴하고, 이들의 육성에 힘썼다.

1925년에는 제3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동화구연대회(童話口演大會)를 개최하였고, 1928년에 세계 20여 개국 어린이가 참가하는 ‘세계아동예술전람회’를 개최하였다.

그가 남긴 작품은 번안물이 대부분으로, 원문의 뜻과 흐름을 손상시키지 않아 동화번안작가로서의 면모를 잘 보여주었다. 그가 번안 또는 개작한 동화들이 지닌 일관된 특징은 풍자와 해학의 정신과 교훈성이었다. 즉 종래의 유교(儒敎) 도덕에 얽매어 있던 어린이들을 어린이다운 감성으로 해방시키고자 하였다.

방정환은 우스운 동화를 할 때는 허리가 부러지게 듣는 사람을 웃기다가도 슬픈 동화를 할 때 눈물 바다를 이루게 하였다. 그의 초기 동화에 슬픈 노래가 많은 것도 그의 감



성적인 면을 말해주고 있다.

겨울 밤에 오는 눈은 어머님 소식
혼자 누운 들창에 바아삭 바삭
잘 자느냐 잘 크느냐 묻는 소리에
잠 못 자고 내다 보면 눈물 납니다.
「눈」의 일부분

이렇게 그의 동요에는 눈물이 어리는 것들이 많았다. 이러한 곱고 여린 마음의 소유자였기에 열혈(熱血)의 운동선상에서도 사나운 점이 없었던 것이며, 성내어 남과 싸우는 일이 없던 것도 그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세상이 어떻게 되든 그의 소신은 어린이를 사랑하는 일이었고, 그러기에 어린이들에게 준 『사랑의 선물』은 곱고 아름다운 그의 마음의 선물 그대로였던 것이다.

그는 아동문학가요, 사회운동가이면서 변안 및 개작작가·동화작가·동화구연가·아동잡지 편집인이었다. 그러므로 그는 금세기 우리나라의 지사요, 선구적 언론인이요, 교육자요, 문학가로 불려야 마땅한 인물이다. 그런 만큼 방정환의 정신적 소모는 대단히 컸다.

초조와 피로, 거기서 오는 건강의 피해는 마침내 신장염, 고혈압의 증세로 나타나 갑자기 입원 가료하게 되었다. 병원에서도 방정환은 몸이 좀 불편하지 않으면 간호사들에게 동화를 들려 줄 정도였다.

1931년 7월 23일, 서른세 살의 나이로 그는 짧고도 긴 일생을 마쳤다.

1957년 ‘소파상(小波賞)’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1년 40주기를 맞아 서울 남산공원에 동상이 세워졌으며, 1987년 5월 3일 동상은 서울 어린이대공원 야외음악당으로 이전되었다. 1978년 금관문화훈장, 1980년 건국포장이 수여되었다. 1983년 5월 5일에는 망우리 묘소에 이재철이 비문을 새긴 「소파 방정환 선생의 비(碑)」가 건립되었으며, 1987년 7월 14일에는 독립기념관에 그가 쓴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새긴 어록비가 건립되었다.

그가 발간한 책은 『사랑의 선물』과 사후(死後)에 발간된 『소파전집』(박문출판사, 1940)·『소파동화독본』(조선아동문학협회, 1947)·『방정환아동문학독본』(을유문화사, 1962)·『칠칠단의 비밀』(글벗집, 1962)·『동생을 찾으러』(글벗집, 1962)·『소파아동문학전집』(문천사, 1974) 등이 있다.

〈참고문헌〉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9, 1995 ; 이이화, 「천재 아동문학가 방정환」, 『한국사의 주체적 인물들』, 여강출판사, 1994 ; 이이화, 「방정환, 하얀 눈을 사랑한 운동가」, 『이야기 인물한국사』4, 한길사, 1993 ; 이원수, 「방정환」, 『한국의 인간상』3, 신구문화사, 1966 ; 윤석중, 「방정환」, 『한국 근대인물백인선』, 동아일보사, 1970 ; 유광열, 「방정환」, 『人物로 본 韓國史』, 중앙일보사, 1973

심점봉(沈點奉) 1893(고종 30)~?

독립운동가이며, 구리면 아천리 출신으로 직업은 농업이었다.

1919년 3월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여 전국에서 3·1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28일 오후 5시 같은 마을에 사는 이강덕과 함께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여, 아천리·토평리·교문리 일대에서 시위를 하였다. 다음날인 29일에도 아천리 아차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이로 인해 일본 경찰에 체포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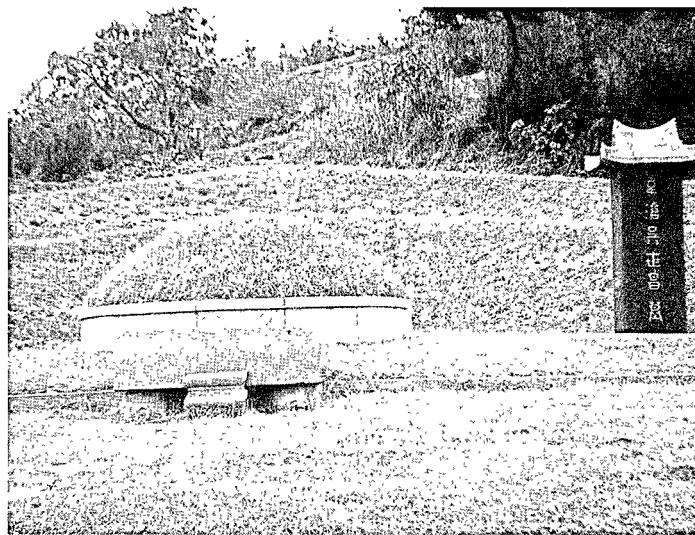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2, 1972;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5, 1972;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2, 1986; 양주문화원, 『양주군지』하, 1992

오세창(吳世昌) 1864(고종 1)~1953

서예가이자 언론인이며 독립운동가이다.

자는 중명(仲銘·中銘·重明)이며 호는 위창(葦滄)이다. 본관은 해주(海州)로 당상역관으로 지중추부사(知中樞府事)를 지낸 응현(應賢)의 손자이며, 역시 역관으로 승록대부(崇祿大夫)에 오른 조선 말 개화사상가이자 서화가·수집가인 역매(亦梅) 경석(慶錫)의 장남이다.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3733) 구리시 지역에 있다.

1883년(고종 20) 가업을 이어 역관으로 나갔다가 1886년 박문관 주사로 옮겨 『한성순보』의 기사를 겸하였다. 1894년 갑오경



오세창 묘역

장 때에는 김홍집 내각의 군국기무처낭청 총재비서관, 농상공부 참의, 우정국 통신국장을 역임하고 2년 후 서재필의 주도로 설립된 독립협회에 김가진, 김종한, 민상호, 이상재, 남궁억, 심의식 등과 함께 참여하였다. 1897년에는 일본 문부성의 초청으로 동경외국어 학교의 조선어교사로 1년간 체류하였다가 귀국한 후 모함에 의해 정치범으로 체포될 위기에 처하자 일본으로 망명하였다.

1902년 개화당사건으로 일본에 망명해 있던 손병희, 양한묵 등의 권유로 천도교에 입교하였으며 을사늑약이 있던 이듬해인 1906년 귀국하여 천도교를 배경으로 한 『만세보』를 창간하고 사장에 취임하여 매국단체인 일진회(日進會)를 규탄하였다. 그러나 재정난으로 『만세보』가 폐간되자 이듬해 대한협회부회장 겸 『대한민보』의 사장을 역임하여 국민계몽운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최남선, 박승빈, 이능화, 문일평 등 지식인 33명과 함께



발기하여 민족계몽과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창설하고 기관지인 『계명』을 발행하였다. 1921년부터 1933년까지 통권 24호가 간행된 『계명』은 우리나라 국학의 진흥에 관심을 기울였으며 그의 저서 『근역서화징(槿域書畫徵)』이 20호에 게재되었다.

1914년 5월 친일매국노 이완용의 후원이었지만, 한국현대 회화활동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서화협회(書畫協會)를 결성하여 조석진·강청운·정우향·김소호·김해강·이관재·고회동 등과 함께 활동하였다. 1918년에는 일제의 방해로 침체일로에 빠진 민족문화의 서화전통을 부흥시키고 외세의 영향으로 변화되는 사회풍조에 알맞은 민족예술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이었다. 이때 안중식·조석진·김규진·정대유·현채·강진희·김응원·정학수·장필주·김돈희·이돈영·고회동 등과 함께 발기인이 되어 서화협회를 조직, 새로운 시대감각에 친구회화의 가치와 전통을 접목시키며 동서미술의 연구 및 후진양성에 노력하였다. 즉 서화협회의 창설은 왕조시대의 폐쇄적인 서화가 사회에서의 종식과 동시에 개방적인 근대화단의 형성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3·1운동 때에는 천도교대표로 손병희의 집에 모여 이미 준비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후 민족대표 33인의 한 사람으로 활약하다가 경시청 총감부에 피체되어 서대문형무소에서 3년간 징역을 치렀다. 즉 1917년경 한때 독립청원운동을 구상했던 그를 포함한 손병희·권동진·최린 등의 천도교 측은 1918년 11월 『대판매일신문(大阪毎日新聞)』에서 월슨이 발표한 14개조의 강화원칙 가운데 민족자결에 관한 조항이 있는 것을 보고 조선도 민족자결에 의해 독립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들은 당초 월슨의 민족자결을 민족자치로 이해하여 자치운동을 추진하려고 했다가 해외에서의 독립운동 소식이 전해지자 비로소 독립운동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이에 독립운동을 기획하면서 설사 독립은 되지 않더라도 최소한 자치나 총독부의 개선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이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무력으로가 아니라 일본정부에 그 취지를 설명하고 평화를 희망하는 세계의 현상에 맞추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이상적인 독립안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비폭력 무저항주의에 입각한 평화적 시위와 열강에의 독립청원방식을 통하여 독립운동을 전개하려고 하였다.

이에 1918년 말 파리강화회의에서 약소민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을 감지한 그는 1918년 12월 초를 독립운동의 궐기시점으로 생각하고 권동진과 함께 손병희의 동의를 얻어냈다. 그러나 독립운동을 천도교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여러 단체들과 연합하여 봉기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과 제반 사정으로 이때의 궐기가 여의치 못함을 깨닫고 이듬해 국내에서의 총궐기를 계획하였다. 그리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후 권동진과 함께 기독교, 불교, 학생 측의 개별적인 독립운동계획을 단일화하고 각 단체의 대표들에게 서명을 받는 작업에 착수하였다.

출옥 후 일제의 감시 속에서도 독립운동가들과 비밀리에 연계를 맺고 조선의 독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해방 후에는 서울신문사 명예사장, 민주의원 의원, 대한독립촉성 국민회장, 건국애국단체 총연합회장 등 각 정당과 사회단체의 고문을 맡아 정당·단체의 올바른 육성에 노력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대구에서 피난중 사망하여 사회장으로 장례하였으며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복장(復章)이 수여되었다.

한편 그의 대표적인 편저라 할 수 있는 『근역서화징』을 비롯하여 『근역서휘(權域書彙)』·『근역인수(權域印藪)』·『근묵(權墨)』 등은 모두 서예·서화에 관계된 것으로 그의 서화에 대한 관심과 깊이를 헤아리게 하는데 이는 부친 경석의 금석학에 대한 관심과도 연계된다고 할 수 있다.

글씨는 부친과 같이 전서와 예서를 즐겨 썼고, 특히 이를 혼합한 글씨나 와당·고전(古錢)·갑골문 형태의 구성적인 작품도 시도하여 독특한 경지를 이루었으며 고서화의 감식과 전각(篆刻)에도 조예가 깊었다. 글씨로는 합천 해인사의 「자통홍제존자사명대사비(慈通弘濟尊者四溟大師碑)」의 두전(頭篆) 등을 비롯하여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는 성장하면서부터 우리나라 개화사상의 거두인 부친 경석에게 많은 영향을 받았다. 그가 처음에 진출한 관직이 조부 때부터의 가업을 이은 것이었고 부친과 같이 기울어져 가던 조선의 국운회복을 위해 노심초사하였음도 그러하며 저술인 『근역서화징(權域書徵)』을 비롯한 제반의 저술에서도 이러한 영향을 읽을 수 있다. 즉 그는 일제강점기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한묵(翰墨)으로 소일하며 부친과 자신이 수집한 풍부한 문헌과 고서화를 토대로 우리나라 서화사(書畫史)에 기초가 될 만한 각종 저술활동을 하였다. 저술의 제목에 모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무궁화 및 무궁화가 자라는 지역의 의미로 근역(權域)이라 하였음에서 그가 얼마나 조선의 국권회복에 절치부심했는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역서화징』

1917년 편집하여 1928년 계명구락부의 기관지 『계명』20호에 게재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역대 서화가를 삼국, 고려, 조선의 상·중·하 5편으로 나누고 이를 작가의 출생연도순으로 편차하였다. 서술방법은 성명, 자, 호, 본관, 가세(家世), 출생연도, 수학관계(受學關係), 관직, 사망연도 등의 이력을 붙인 후 예술에 대한 기록과 논평을 싣고 유전(遺傳)되는 작품의 명칭과 소재를 실었다.

비록 예술성이 뛰어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기록에 실려 있는 인물은 모두 신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성명은 전하나 연대를 알 수 없는 경우와 자나 호만 전하는 인물도 ‘대고록(待考錄)’이라 부기하여 추후에 보완을 생각하였으며, 또 ‘대고록’에 38인이 수록된 것으로 보아 실제 보완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 1917년 편집을 마친 뒤 1928년 간행할 때까지의 수집된 자료는 ‘증록(增錄)’을 덧붙여 서가 5인, 화가 6인, 서화가 5인, 총 16인을 ‘증록’하였고 열람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성명과 호의 색인을 별도로 마련하였다.



책머리에는 참고한 서적과 수록한 인명의 목록을 실었는데, 참고서적만도 읍지, 족보, 비명(碑銘), 서화제발(書畵題跋)을 제외한 270종에 달하고 있으며 수록한 인명수는 1,117인에 이르고 있다. 수록된 인명은 분류별로 서가 392인, 화가 576인, 서화가 149인이며 시대순으로는 삼국시대의 인물이 23인, 고려시대 169인, 조선 상(태조~인종) 221인, 조선 중(명종~현종) 279인, 조선 하(숙종~철종) 371인, 대고록 38인, 증록(현종~철종) 16인이다.

이 책은 자신의 서화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토대로 이 같은 방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으면서도 객관적인 서술을 하기 위하여 편자의 품평을 피하고 있어 한국 서화사 연구에 있어 기본서가 되고 있다.

『근역서휘』

고려 말에서 대한제국 말까지 근 600여 년 동안의 선인들의 필적을 모은 3책의 서첩(書帖)이다. 여기에는 국왕의 어필을 비롯하여 유명인사들의 서간(書簡)·시축(詩軸)·문고(文稿)·중인·천민의 작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자료를 담고 있다. 그러나 역대 인물의 필적을 집대성한다는 편자의 목적에서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서명이 없는 것도 간혹 있어 신뢰에 있어서는 문제점이 있기도 하다.

수록된 서간·문고류의 필적은 우리나라의 서예사 연구에 일조를 하고 있으며, 특히 서간류는 선인들의 일상생활 및 교유관계 등을 살필 수 있는 사화사 자료로 중요하다. 첩장본으로 서울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근역인수』

조선 초기부터 해방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서화가 및 문인들이 사용하던 인장을 모은 인보(印譜)로 자신의 것 225개를 비롯하여 850명분 3,912과(顆)의 인장을 수록하였다. 인장의 종류는 성명, 호, 자, 장서인(藏書印), 사장인(詞章印) 등 다양하며 중국인의 명각(名刻)도 간혹 보인다.

근 500여 년에 걸쳐 850여 명의 것을 모아 놓았기 때문에 인장의 시대적 흐름과 사용자의 인품에 따른 다양한 각법(刻法)을 살필 수 있다. 이러한 규모의 인보는 중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방대한 것으로 우리나라 금석학 연구에 있어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으며 조선시대 서화연구의 기본자료이다.

『근묵』

고려 말에서 조선 말까지의 인물들의 서적을 모아 놓은 서첩으로 34책이다. 고려 말 정몽주, 길재 등의 작품을 비롯하여 안평대군, 김시습, 윤선도, 민영환, 안중식, 이도영 등 1,306인의 시, 서간 등의 친필을 수집한 것이다. 특히 서화의 감식에 조예가 깊던 편자의 안목으로 걸러진 작품들만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에서 『근역서휘』와 함께 서예사연구에

기본자료라 할 수 있다. 성균관대학교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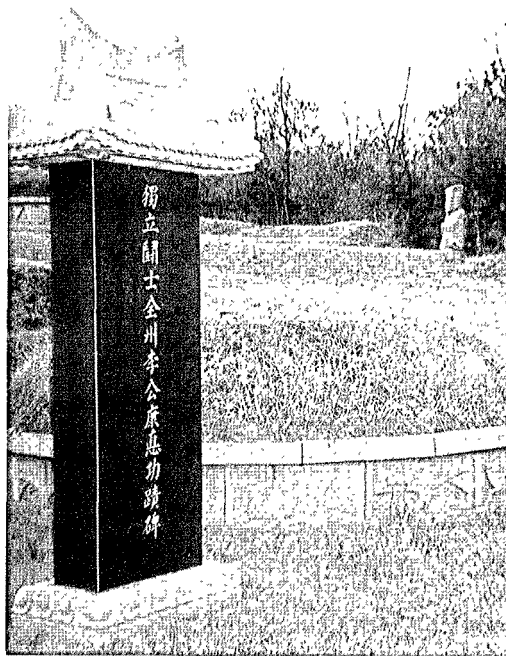
〈참고문헌〉 오세창, 『근역서화징』, 1928 ; 김영윤, 『한국서화인명사서』, 예술춘추사, 1959 ;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민족운동총서』, 1980 ; 임창순, 『한국현대서예사』, 통천문화사, 1981 ; 김종태, 『한국화론』, 일지사, 1989 ; 대한독립항일투쟁총서편찬위원회, 『대한독립항일투쟁총서』, 1989 ; 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1995.

이강덕(李康德) 1892(고종 29)~?

독립운동가이며, 구리면 아천리 출신으로 직업은 면서기였다.

1919년 3월 전국에서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항의하여 3·1 만세시위가 전개되자, 3월 28일 오후 5시 같은 마을에 사는 심점봉과 함께 아천리 주민 수십 명을 이끌고 만세시위를 주도하였다. 아천리·토평리·교문리 일대에서 시위를 한 후, 다음날인 29일에도 아천리 아차산에서 만세시위를 벌였다. 일본 경찰에 피체되어 1919년 5월 2일 경성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공소하였으나, 1919년 5월 30일 경성복심법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다시 상고하였으나 1919년 7월 3일 고등법원에서 기각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되어 복역하였다.

〈참고문헌〉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2, 1972 ;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자료집』 5, 1972 ; 國家報勳處, 『獨立有功者功勳錄』 2, 1986 ; 양주문화원, 『양주군지』 하, 1992



이강덕 묘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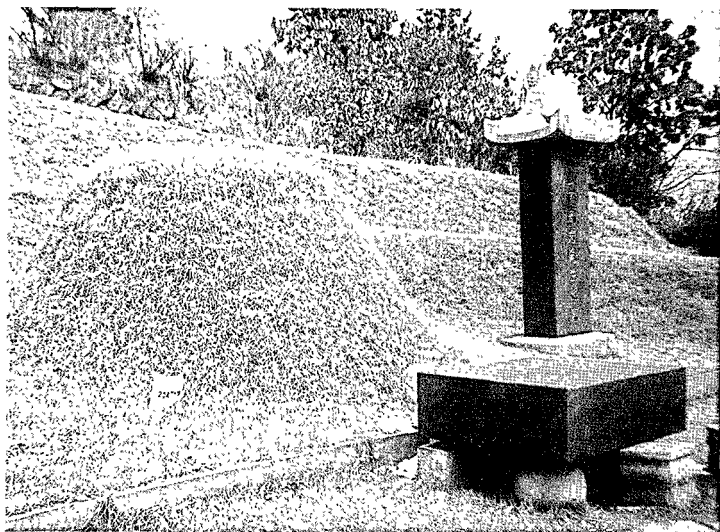
조봉암(曹奉岩) 1899(광무 3)~1959

일제시대 사회운동가로서 초대 농림부장관을 역임했다. 본관은 창녕(昌寧), 호는 죽산(竹山)이며,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4727) 구리시 지역에 있다.

1899년 9월 25일 경기도 강화군에서 빈농 집안의 4남매 중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911년 4년제 강화공립보통학교를 졸업하였고, 1913년에는 2년제 농업보습학교를 졸업하였다. 1914년 16세 때부터 강화군청 고용원, 면서기, 대서보조원 등의 일을 하였다. 또한 기독교 에버청년회에서 일을 보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였다.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젊은 동지 열두 명과 함께 참가하였다. 당시 강화에서의 만세운동은 유생 유봉진의 지도하에 치밀한 계획으로 약 한 달 동안 강화 전역을 휩쓸었다. 3·1운동 참가로 서대문형무소에서 1년간 수감되었다. 3·1운동과 그로 인한 서대문형무소 생활은 그의 인생에서 민족의 현실·운명에 관해 처음으로 진지한 질문을 던지게 하였으며 사회운동의 길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1920년 기독교청년회 중학부에 입학하여 월남 이상재의 곧고 의기로운 모습에 감명을 받았으나 자신의 혈기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하다고 느껴 일본유학을 생각하게 된다. 그



조봉암 묘역

해 5월 26일 학감 최선생, 유도왕 강낙원, 이제민 등과 공모하여 ‘폭발탄’을 제조·은닉하고 거사를 기도했다는 소위 ‘대동단사건’ 관련 혐의로 연행되어 2주일간 조사받고 풀려났다. 그는 후에 이때의 일을 일제로부터 받은 두번째 고초였으며 가장 어려운 고비였다고 회상했다. 평양에서의 이 일은 그의 항일민족정신과 일제 통치에 대한 적개심을 더욱 키우고 다지는 계기가 되었고 구체적인 항일행동의 욕구를 강하게 느낀 동기가 되었다.

석방 후 1921년 7월 7일 일본에 건너가 동경 세이쑤꾸 영어학교를 거쳐 연말 일본

쥬우오오대학(中央大學) 전문부 정경과에 입학하였다. 이 무렵 수암 김찬과 동지적으로 결합, 본격적으로 문학작품과 사회과학 방면의 책을 두루 섭렵하면서 ‘사회주의’를 접하고 사상편력과 사회운동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

1920년대 초 당시 일본의 사상계는 일본 사회를 개변하려는 ‘아나키즘’, ‘생디칼리즘’, ‘페비안리즘’, ‘사회민주주의’, ‘허무주의’, ‘불세비즘’ 등의 다양한 사상이 풍미하였다. 당시 재일조선인 유학생의 대부분이 이러한 ‘신사조’의 영향 아래에 있었다. 조봉암 역시 독서와 연구를 통하여 일본과 조선의 현실, 사상계의 움직임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나키즘’에 심취하였는데, 1921년 11월 29일 박연·신용우·방한상 등과 함께 재일 유학생 최초의 사회주의·무정부주의 단체인 ‘흑도회’를 조직하였다.

그 후 아나키즘 활동에 한계를 느껴 ‘무정부주의’를 청산하고 김찬, 정재달, 김약수, 정우영 등과 함께 불세비즘에 공명하였으며 일본과 싸워서 이기려면 소련의 지원·협력 아래 우리 자신이 굳은 조직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한다. 당시 망국의 한을 품고 만주·시베리아 등지로 떠나서 조국광복에 헌신하던 많은 애국자들이 혁명러시아와 제휴하여 조국광복의 숙원을 달성하려 하였다. 그리고 재일 유학생들이 1920년대의 맑스-레닌주의 보급에 앞장섰다는 전후 사정을 살펴볼 때, 그의 ‘사회주의’ 수용은 자연스러운 경로였다고 보여진다. 어쨌든 3년간의 일본유학생생활은 3·1운동을 계기로 민족의식에 눈뜬 그에게 본격적인 사상·조직운동에 투신하는 길을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흑도회가 해산되자 대학을 중퇴하고 1922년 7~8월경, 김찬·정재달 등과 함께 사회운동을 위해 귀국하였다. 11월에는 소련령 웨르호네스크에서 열린 고려공산당 합동회의에 국내파 대표로 참가하여 공산당 파벌 해소에 노력하다 실패하자, 통합대회 결렬사유를 모스크바 코민테른 대회에 다른 대표와 함께 보고하였다. 12월에 모스크바 동방노력

자공산대학에 입학하여, 맑스-레닌주의의 일반 이론·원칙에 대한 학습에 치중하였다. 이 대학은 소련연방 내 수십 개의 민족과 동아시아 지역의 사회주의자들이 한데 모여 사회주의·공산주의 이론을 공부하는 일종의 강습소였다. 그러나 주로 러시아혁명사 연구에 국한된 강의내용의 문제와 모스크바의 기후에 적응치 못하고 폐결핵을 얻어 결국 1년 반 만에 귀국하였다.

1920년대 초반 당시 서울에는 각 사회주의운동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어 맑스-레닌주의 보급과 선전활동에 치중하고 있었다. 이들은 전국적으로 대중적 집회, 연설회, 좌담회 등을 개최하여 초보적인 사회주의 계몽운동과 인권존중, 민족자주정신의 고취·함양에 힘썼고 반일감정을 높이는 데 주력하였다. 1924년 조봉암은 김조이(金祚伊)와 결혼하였으며, 이후 신흥청년동맹·화요회 등에서 활동하였다. 인권사상을 기초로 ‘공창폐지’를 내걸고 교원·종교인들이 중심이 되어 활동하던 혁청단(革淸團)을 좌익사상단체로 개조하기도 했다. 화요회와 서울청년회 등 각 공산주의자 서클의 주도에 의한 조선노동총동맹, 조선청년총동맹 결성에도 관여하였으며, 특히 조선청년총동맹에서는 문화부 책임을 맡았다. 1924년 4월 3일 꼬르뷰로 산하 청년부의 간부로 임명되었고, 4월 21일 조선청년총동맹 중앙집행위원 그리고 9월에는 박헌영 등과 함께 『조선일보』 사회부 기자로 재직하였다.

1925년 4월 17일, 18일 양일간에 걸쳐 서울 황금정 중국요리점 아서원에서 열린 ‘조선공산당 창립대회’에 참가 조선공산당 중앙위원으로 선출되어 코민테른과의 연관관계를 맡았다. 1925년 5월 고려공청대표, 조선공산당부대표 자격으로 코민테른 및 국제공산청년동맹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로 떠났다. 신의주 신만청년회의 일경폭행사건(1925년 11월 22일)을 계기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는 조직이 노출되어 이른바 ‘제1차 조선공산당사건’이 발생하고, 총독부의 집중적인 탄압으로 사실상 와해되고 만다.

1926년 김찬·김단야와 함께 제2차 조선공산당을 수립, 조직하고 5월 16일 만주에 가서 조선공산당 만주총국을 조직하였으며 그 책임비서가 되었다. 7월에는 코민테른의 지시로 상해로 가서 코민테른 원동부(遠東部)의 조선대표도 겸직하였다. 1926년 6·10만세운동과 관련하여 제2차 조선공산당 조직이 일본경찰에 의하여 다시 해체되자 제3차 당인 ML당 조직에 참여하였으나 국내당과 마찰을 빚어 지도기능을 잃었다. 1927년 4월 11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 조직에 참가하였다. 그 해 5월 20~26일에 조선에서 열린 범태평양노동조합의 1차 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가하였다. 8~9월경 일국일당원칙에 따라 홍남표, 여운형 등과 중국공산당 강소성위 법남구 산하에 한인지부를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1929년 10월 26일 한국유일독립당 상해축성회를 해체하고 유호 한국독립운동자동맹을 조직하였다. 그는 여기서 강령규약 기초위원에 선임되었다. 1930년 2월 15일 상해한인청년동맹을 조직하였으며, 1931년 2월 중국혁명호제회 상해한인분회를 조직하고 동생 조용암을 책임자로 임명하였다. 이해 12월 3일에는 상해한인반제동맹을 조직하였다.



1932년 불란서 조계지에서 일경에 체포되어, 10월 10일 일본 경찰에 신병이 인도되었다. 1933년 9월 25일 공판이 시작되어 12월 27일 신의주지방법원에서 7년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신의주 감옥소에서 복역하였다. 여기서 훗날 진보당사건과 관련하여 끝내 그를 사형으로 몰고갔던 양명산을 만났다.

1939년 7월 1년이 감형되어 출옥한 후 인천비강조합 조합장으로 일하였으며 1945년 1월 일본군 헌병사령부에 예비 검속되었다가 8월 15일 해방이 되어 석방되었다.

그는 이날 밤 ‘해방정국’에서의 건국과 사회개혁을 위하여 인천보안대를 조직하고, 8월 18일에는 건국준비위원회 인천지부, 인민공화국 인천인민위원회 조직을 주도했으며, 노동조합·실업자대책위원회 등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한편, 조선공산당이 결성되자 중앙간부 및 인천지구책에 선출되었고, 1946년 2월 15일 민주주의민족전선(민전) 결성식에 경기도 대표로 참석, 민전 인천지부 의장에 선임되었다.

이 와중에 그의 사신(私信) 「존경하는 박헌영 동무에게」가 CIC(미군정하의 첩보기관)의 공작에 의해 5월 7일자 신문지상에 게재되자 이를 계기로 그는 박헌영 및 조선공산당과의 관계를 청산한다. 이 사건이 표면적으로는 그의 사상변화와 이후 정치행적을 규제한 결정적 계기로 보인다. 이 사신에서 그는 박헌영과 조선공산당의 노선과 실천에 대하여 첫째, 인민위원회와 인민공화국의 조직시기·선거와 조직방법이 졸렬했다. 둘째, 민주주의민족전선에 당원이 과대히 침투하여 비당원의 능동적 활동을 스스로 제약시키고 있다. 셋째, 모스크바삼상회의 결정 지지투쟁의 태도와 방침은 지지하나 실천이 기술적으로 졸렬했고 대중의 이탈을 자초했다. 넷째, 당의 인사문제가 무원칙·종파적·불건적·무기력하게 처리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은 불세비키의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5월 14일 민전 인천지부 의장직을 사임하였다. 6월 11~22일 인천 미군방첩부대에 연행되었다가 풀려났다. 6월 23일 인천시민대회장에서 노동계급독재와 자본독재 반대 및 공산정부 반대의 「성명서」를 배포하였다. 이후 「3천만 동포에게 고함」, 「공산주의 모순 발견」 등 소책자를 저술하였으며, 8월 2일 기자회견으로 반공노선을 천명하였다.

1947년 2월 김찬, 배성룡, 이극로 등과 함께 그가 피력한 이른바 중앙노선을 내걸고 민주주의독립전선을 조직하여 극좌·극우배척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1947년 9월 해산되었다.

1948년 5월 10일 대한민국 단독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국회의원선거에 참가하여 인천을구에서 당선되었고, 6월 1일 제1회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 기초위원으로 선임되었다. 8월 2일에는 이승만에 의해 초대 농림부장관에 임명되었는데 이것은 이승만의 정권 이미지 개선과 한민당 배제음모에 의한 것이었다. 1949년 2월 22일 결국 그는 한민당과 「농지개혁법」, 「농업협동조합법」 등을 놓고 대립하다가 명목상은 관사수리비 유용혐의로 농림부장관직을 사퇴한다.

이후 1950년 5월 30일 제2대 국회의원선거에 재출마, 당선되어 장택상과 함께 국회

부의장에 선출되었고, 몇새 후 한국전쟁을 맞는다.

1952년 8월 5일 제2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2위로 낙선하였다. 자유당의 이승만, 민국당의 이시영과 경선하여 79만 503표를 얻은 그의 성과는 이승만의 523만 8,736표에 비하면 형편없는 것이었으나 민국당의 이시영보다는 20만 표를 앞선 것이었다. 1954년 3월 『우리의 당면과업』을 저술하였다. 5월 20일 당국의 방해로 제3대 국회의원선거 후보등록에 실패하였다.

사사오입개헌, 즉 제2차 정치파동 직후 국회 내의 호헌동지회를 중심으로 통일야당 창당이 제안되자, 1955년 2월 신당결성의 의의를 인정하고 흔쾌히 참여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이범석, 장택상, 조병옥 등 일부 반대자들은 혁신인사들의 활발한 진출을 경계하여 이른바 자유민주파만의 결집으로 민주당을 창당한다. 이에 그는 서상일 등 혁신계 인사들과 함께 이해 9월 1일 ‘광릉회합’을 거쳐 진보적 대중정당 창당에 합의하고 12월 22일 진보당창당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진위원회 대표에 선임되었다.

1956년 3월 31일 진보당 전국추진위원 대표자대회에서 대통령후보로 지명되어 5월 15일 제3대 대통령선거에 입후보하였다. 이 선거에서 216만 표를 획득함으로써 이승만을 대체할 유력한 인물로 부상하였다. 5·15선거 이후 1956년 11월 10일에 진보당추진위원회는 진보당 창당대회를 열고 진보당을 공식 출범시켰으며 그를 위원장에 선출하였다. 한국전쟁 이후 최초의 혁신세력에 의한 정당 출범이었다. 진보당의 정강·정책은 “피해대중의 자각적 단결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적 부패상과 특권관료통치를 타파하고 의회주의적, 평화적 방법에 의한 정권장악으로 노동자, 농민 등 근로대중 중심의 혁신정치를 실현하고 북한과의 평화적·정치적 합의에 의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남북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진보당은 북진통일만이 유일한 통일방안으로 논의되던 당시의 상황에서 평화통일을 주장하였다. 진보당의 평화통일 주장의 배경과 내용을 살펴보면 구체적 통일방안으로 ‘남북군경해산’, ‘국제감시하의 총선’, ‘남북연립정부 수립’, ‘자유로운 총선거로 통일내각 구성’ 등을 제안하고 있다.

조봉암에 대한 지지와 공감의 확산은 이승만 정권에게는 가장 큰 위협요소로 다가왔다. 그래서 이승만 정권은 조봉암 제거작업에 나섰고, 1958년 1월 12일 치안국은 평화통일구호 및 간첩 박정호와의 접선혐의로 진보당을 수사하고 있는 중이라고 발표하였다. 13일에는 조봉암 외 간부 7명을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하였다. 정부는 2월 25일 진보당이 “첫째, 유엔의 결의에 위반되는 통일방안지지 둘째, 진보당 간부들이 북한이 밀파한 간첩·밀사와 접선 셋째, 목적달성의 전 단계로 공산당 비밀당원과 공산주의 동조자들을 국회의원에 당선시키는 방법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음모”했다는 이유로 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하였다.

이어 재판에 회부되어 10여 차례의 공판을 거쳐 불법무기 소지, 국가변란 실행협의를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다른 진보당 간부들은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고



1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당은 대한민국을 변란할 목적으로 조직된 결사라고 볼 수는 없다고 인정하는 바이다.”라고 밝힘으로써 공안당국의 주장을 백지화해 버렸다. 그러나 검찰은 일심판결에 불복할 뜻을 시사하였고 7월 4일에는 이른바 ‘반공청년’을 자처하는 폭력배들이 법원에 난입 “친공판사 유병진을 타도하자. 조봉암을 간첩죄로 처단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여 조봉암의 재판에 압력을 가하였다. 10월 4일 결국 항소심 선고공판은 원심을 파기하고 조봉암·양명산에게 간첩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여 사형을 언도하였다.

1959년 2월 27일 상고심에서 사형이 선고(간첩죄)되었고, 7월 30일 대법원에서 그의 재심청구가 기각되었으며, 선고 다음날인 7월 31일 사형이 집행되었다. 그는 서울구치소에서 “아무 할 말이 없다.”는 유언을 뒤로 한 채 세상을 하직하였다.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검찰의 재수사와 대법원의 재판결로 1960년 10월 19일 조봉암과 진보당사건은 무죄로 확정되었다.

〈참고문헌〉 이영석, 『조봉암』, 『해방 40년 한국인물 40선』, 경향신문사, 1985; 김영준, 『진보당 당수, 조봉암』, 『역사의 진실』, 도서출판 녹두, 1990; 임범, 『조봉암』, 『발굴 한국현대사인물』1, 한겨레신문사,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0, 1995; 박태균, 『조봉암연구』, 창작과 비평사, 1995

지석영(池錫永) 1855(철종 6)~1935

의사·문신·국어학자이며, 본관은 충주(忠州), 호는 송촌(松村)·태원, 자는 공윤(公胤)이다.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3733) 구리시 지역에 있다.

1855년 5월 15일 서울 원동에서 지익룡의 4남으로 태어났다. 지석영의 성품은 총명하고 근면했으며 탐구열이 매우 강하고 성실하였다. 아버지 지익룡은 한의학에 조예가 깊었으며 의업에 종사하지는 않았으나 중인층의 한의학자들과 친교가 돈독하였고 당시 이름 있던 한의사인 박영선과 절친한 사이였다. 그래서 지석영은 박영선의 문하에서 한학과 의학을 배웠다.

이때 그는 봉건제도의 폐해를 통감하여 개화사상을 갖게 되었고, 스승의 영향을 받아 의학을 평생토록 공부하고 연구하게 되었다. 1876년 7월에 스승인 박영선이 수신사 일행으로 일본에 가서 도쿄 순천당위원의 의사에게 우두종법(牛痘種法)을 배웠고, 귀국시 『종두귀감(種痘龜鑑)』을 얻어가지고 왔다. 지석영은 다산 정약용의 『마과회통(麻科會通)』과 『종두귀감』을 읽고 처음으로 서양의학학을 접하였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천연두가 유행하여 막대한 피해를 내고 있었으나 효과적인 의료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지석영은 천연두의 창궐에 대한 한의학의 무력을 통감하고, 서양학과 종두법을 도입하여 이를 막을 필요를 절감하였다. 그는 부산에 있는 일본인 거류지의 제생의원(濟生醫院) 원장 마쓰마에와 해군 군의관인 도즈카를 찾아가 그에게서 서양종두법을 배우고 그 대가로 조일사전(朝日辭典)의 한국어 오자를 바로잡아 주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그는 조일사전의 한국어 부분의 교정을 보다가 국문법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2개월 후에 제생의원으로부터 두묘(痘苗)와 종두침(種痘針) 2개, 접종기구, 서양의학서적 몇 권을 가지고 상경하는 도중에 충청도 충주군 덕산면의 처가에 들러 두 살 난 어린 처남에게 종두를 실시하여 성공하였다. 지석영은 이에 자신을 얻어 그 마을의 어린이 40여 명에게 역시 접종을 시행하여 성공하였다.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우두의 접종이었다.

1880년 1월에 상경하여 개화사상을 받아들이는 집안의 아이들에게 우두의 접종을 실시하였다. 한편 종두법을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하여는 소에서의 두묘제조법을 배워서 두묘를 국내에서 자유로이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를 위하여 그는 1880년 7월 제2차 수신사로 김홍집이 도일하는 편에 그 일행의 하나가 되어 일본에 갔다. 1개월여의 짧은 기간에 일본 내무성 위생국의 우두종계소(牛痘種繼所)에서 우두묘(牛痘苗)의 제조법·채두기수장법(採痘痂收藏法)·독우사양법(犢牛飼養法)과 채장법(採漿法) 등을 완전히 익혔다. 일본인 의사들도 지석영의 재빠른 습득과 열의에 감탄했다고 한다.

1880년 9월에 귀국하자 서울에 종두장(種痘場)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우두접종사업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지방은 물론이고 서울 시내에서도 우두접종을 불신하고 여전히 푸다꺼리로 치료하려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사람들에게 천연두는 우두를 접종해야 예방할 수 있는 전염병이며, 푸다꺼리를 해서는 치료되지 않는 것임을 계몽하면서, 무당·수구과 및 의료상과 투쟁하였다. 그러나 1882년 7월 임오군란이 일어났을 때, 무당과 수구과는 지석영의 종두장을 불태워버리고 말았다. 이때 지석영도 피난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지석영은 임오군란이 수습되자 다시 종두장을 재개함과 동시에, 개화 척사논쟁에서 개화파에 가담하여 1882년 음력 8월 23일 개화정책을 적극 지지·주장하는 시무소(時務疏)를 올렸다. 이 상소문은 신사 개화 척사논쟁에서 개화파의 대표적 헌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여기서 급속한 개화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이를 위하여 중앙에 일종의 훈련원을 세우자고 주장하였다. 그곳에 당시의 세계정세를 알 수 있는 책과 외국의 과학기술에 관한 책들을 모으고 여러 가지 문물을 수집하여 전국에서 뽑아온 젊은이들에게 보이고 가르치자는 야심적인 계획이었다.

계속해서 지석영은 우두의 보급과 천연두의 퇴치에 온 힘을 기울였다. 1883년 2월에는 정부의 개화정책의 입안에 직접 참여하기 위한 의욕으로 문과에 응시하여 급제하고, 성균관의 전적(典籍)을 거쳐 사헌부 지평(持平)에 임명되었다. 그러나 1884년 갑신정변의 실패로 그의 후원자와 동지들이 몰락하자 수세에 몰려 관계(官界)에서의 활동은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그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1885년 4월에 『우두신설(牛痘新設)』을 저술하여 간행하였다. 이것은 근대에 이르러 우리나라 사람이 저술한 최초의 서양의학서이다. 이 저서는 1책으로 되어 있으나 상·하 2권으로 구분되었는데, 상권에서는 영국인 제너의 종두법에 대한 서양의학자들의 해설을 번역한 중국의 문헌들을 수집하여 소화한 후 이를 자기의

경험에 의거하여 정리하였다. 하권에서는 서양의학서들의 이론과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소아접종법 등을 해설하고, 종두의 기구에 대한 도해를 덧붙였다.

그는 그 후에도 종두 보급을 계속하였으며, 우두교수관으로서 전라도지방에 순회시종(巡廻施種)을 하며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지석영은 개화파의 몰락 후 나라가 날로 기울어져 감을 보고 개혁을 위한 11개조의 상소를 올렸으나, 수구파가 그를 급진개화파의 잔당으로 정변에 연루되어 있다고 탄핵하여, 전라도 강진의 신지도로 유배를 당하게 되었다.

1892년 10월까지 6년간의 유배 생활 동안 그는 두 종의 과학서를 저술하였다. 1888년에 지은 『중맥설』이라는 농학서와 1891년에 쓴 『신학신설』이라는 의학서이다. 『중맥설』에서는 맥작을 중시하여 과학적 영농을 하는 것이 민부국강(民富國強)의 요체의 하나임을 강조하였으며, 권양계법(圈養鷄法)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신학신설』은 위생과 질병 예방의 원리와 방법을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책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의학에 의거한 위생학서일 뿐 아니라, 한문을 모르는 일반 백성과 부녀들을 위해서 순국문으로 저술되었다는 것이 또한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1892년에 유배가 풀려 의료사업을 다시 할 수 있었다. 1892년에 서울 교동에다 우두보영당이라는 우두접종소를 설치하고 우두접종을 실시하여 천연두의 예방과 퇴치에 노력하였다.

1894년에 김홍집 내각이 수립되고 온건개화파가 집권하여 갑오경장이 시작되자 그는 형조참의에 임명되었다. 그가 갑오경장에 참여하여 이룬 큰 업적의 하나는 1895년 10월 7일에 ‘종두규칙’을 제정 공포한 일이다. 내부령(內部令) 제8호로 반포된 이 규칙에 의하여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종두를 실시하게 되어 천연두를 예방 퇴치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896년 2월 아관파천에 의하여 갑오경장 내각이 붕괴되자 1897년 10월 친러수구파 정부는 그를 이름뿐인 중추원 의관(議官)에 임명하였다.

1898년 3월 지석영은 일본에 망명해 있는 갑오경장 정부의 전 내부대신 유길준과 밀통이 있다고 하여 구속되었으나, 이해 6월 석방되었다.

1899년 정부에서 의학교를 설립하자 교장에 취임하여 8년간 재직하였다. 교장 재직시기에 수많은 의학도를 육성하였고, 재임중인 1900년대에 만주에서 페스트가 유행하자 우리나라에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페스트 예방운동을 벌였다. 1902년에는 『황성신문』에 「양매창론(楊梅瘡論)」을 씀과 동시에 성병의 예방과 퇴치를 위한 계몽운동을 벌였다. 1905년 3월에는 전염병인 온역(瘟疫)과 양매창의 예방에 관한 법규 제정을 정부에 건의하였으며, 1905년 7월에는 서양의학 지식의 보급과 전염병 예방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는 등 우리나라 의학과 국민보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하였다.

이 시기에 지석영은 국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였다. 1896년에 『대조선독립협회회보』1호에 「국문론」을 순국문으로 게재하였다. 이 글에서 국문을 암글이라고 하여 경시해 온 경향을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국문은 훈민정음 창제 때의 전통에 따라 음의

고저를 구별해서 고음은 글자의 우측 머리에 ‘ㅇ’표를 함으로써 상성·거성을 표시하자는 제안을 하였다.

1905년 7월 8일 국문의 신정(新訂)을 요청하는 상소 「신정국문청의소(新訂國文請議疏)」가 지식영의 제안 그대로 받아들여져 7월 19일 신정국문(新訂國文)을 공포하게 되었다. 이 ‘신정국문’의 공포는 형식상 대한제국 정부가 한 것이나 실제의 제작은 지식영의 작품인 것이다.

지식영의 건의에 따른 ‘신정국문’ 공포는 당시 학계에 심대한 충격을 주었고, 찬성과 반대가 일어났으나 당시 그가 국문법에 끼친 영향은 지대한 것이었다.

1907년 1월 12일 지식영은 ‘신정국문’에서 제기한 문제들을 중심으로 국문연구를 위해 국문연구회를 발기하였다. 같은 해 2월 2일에 그가 교장으로 있는 의학교에서 국문연구회가 창립되자 총무직을 맡았다.

1907년 5월에 그는 「대한국문설」이라는 논문을 『대한자강회월보』제11호와 제13호에 발표하였다. 여기서 ‘신정국문’을 이론적으로 해설하고, 당시 쓰이지 않는 자음과 모음의 ‘아래 아’ 자의 폐지를 주장하였다.

정부에서도 1907년 7월 8일 학부에 ‘국문연구소’를 개설하였는데, 이는 지식영이 ‘신정국문’에서 제기한 문제와 기타 국문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설치한 것이다. 따라서 당연히 지식영은 1908년 1월부터 그 위원에 임명되어, 1909년 「국문연구안」을 제안하였다.

같은 해에 국문에 대한 서적으로 『언문(言文)』을 저술하여 간행하였다. 이 책에서 그가 계속 제의해 온 상성·거성·장음에 ‘우가일점’을 하자는 주장에 의거하여, 우리나라에서 상용하는 1만 1,900여 단어에 고음은 우가흑점(右加黑點)으로 표시하고 장음은 우가권점(右加圈點)으로 표시하였다. 상편에서는 한자와 국문을 대조해서 그 국어된 까닭을 밝히고, 하편에서는 한자 자의(字義)를 국문으로 밝혔다. 국문전용을 하고 가로쓰기를 한 것도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국문연구와 국문운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앞에서 살펴본 바처럼 한자의 자의와 석음(釋音)을 국문으로 표시하는 방법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그 성과물이 『훈몽자략(訓蒙字略)』이다. 이 책은 최세진의 『훈몽자회(訓蒙字會)』를 참작하여, 지식영이 자기 시대의 국어에 일치하도록 독자적으로 한자의 국어에 의한 석음과 자의에 대한 국문의 표기방법을 연구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 『훈몽자략』은 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06년 우리나라 근대에 있어서 국어에 의한 ‘옥편’ 또는 ‘한한사전’의 효시인 『자전석요(字典釋要)』를 저술하고, 1909년에 이를 간행하였다.

1910년 조선이 일제의 식민지가 되자, 대한의원(大韓醫院)의 교육부(大韓醫院醫育部: 의학교의 후신) 학감 등 모든 직책을 사임하고, 남은 생을 독서로 일관하였다. 1935년 2월 1일 80세



한용운 묘역

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참고문헌〉 김두중, 『지석영』, 『한국의 인간상』, 신구문화사, 1966 ; 김두중, 『지석영』, 『한국근대인물백인선』, 동아일보사, 1970 ; 이광린, 『개화기의 인물』,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3 ; 이이화, 『지석영』, 『이야기 인물한국사』1, 한길사, 1993 ; 신용하, 『근대학과 국문연구의 선구자 지석영』, 『한국근대의 선구자와 민족운동』, 집문당, 1994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1, 1995.

한용운(韓龍雲) 1879(고종 16)~1944

승려·시인·독립운동가로 본관은 청주(淸州), 본명은 정옥(貞玉), 아명은 유천(裕天), 득도(得度) 때의 계명은 봉완(奉玩), 법명은 용운(龍雲), 법호는 만해(萬海·亘海)이고 응준(應俊)의 아들이다. 묘가 망우리공동묘지(묘지번호 204411) 구리시 지역에 있다.

1879년 8월 29일 충청남도 홍성군 결성면 성곡리 491번지에서 한응준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884년 향리의 사숙(私塾)에서 한문을 배웠으며, 1887년 9세 때에 『서상기(西廂記)』를 독파하고 『통감』의 문의(文義)를 해득했으며, 『서경』 기삼백주(基三百註)를 통달하였다.

1892년 14세 때에 향리에서 전정숙과 결혼하였고 계속 한학에 정진하였다. 1896년에 속사(塾師)가 되어 동몽(童蒙)들을 가르쳤고 의병에 참가하였으며, 군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홍성호방의 관고(官庫)를 습격하여 1,000냥을 탈취하였다. 1897년 의병의 실패로 몸을 피해 고향을 떠나, 1899년에는 강원도 인제군 설악산의 백담사 등지를 전전하였다. 이때를 전후해서 세계여행을 계획하고 설악산에서 하산하여 블라디보스톡으로 건너갔으나 박해를 받고 곧 되돌아와 이곳저곳을 정처없이 전전하였다. 1904년 다시 고향 홍성으로 내려가 수개월간 머물렀으며, 5·6월경 집을 떠나 다시 설악산 백담사에 들어가 불목하니 노릇을 하다가 중이 되었다. 한편 이해 12월 21일 맏아들 보국(保國)이 태어났다.

1905년 1월에 백담사에서 김연곡사(金蓮谷師)에게 득도하였으며, 전영제사(全泳濟師)에 의하여 수계(受戒)하였다. 4월에는 이학암사(李鶴庵師)에게 「가신론(起信論)」, 「능엄경(楞嚴經)」, 「원각경(圓覺經)」을 수료하였으며, 1907년 4월 15일 강원도 건봉사(乾鳳寺)에서 최초의 선 수업을 성취하였다. 그리고 1908년 4월 강원도 유점사(楡岾寺)에서 서월화사(徐月華師)에게 「화엄경」을 수학하였다. 그리고 도일(渡日)하여 각지를 다니며 신문물을 시찰하였으며, 동경 조동종대학(曹洞宗大學)에서 불교와 서양철학을 청강하고, 후일 같이 3·1운동을 일으킨 최린을 만나 사귀고 10월 귀국하였다. 그리고 12월 10일 서울에 경성명진측량강습소(京城明進測量講習所)를 개설하여 소장에 취임하였다. 또한 여러 사찰에 측량학교를 세우는 데 협력하고 측량에 대한 강연을 하였는데, 이는 국토를 일본

에 빼앗길지라도 개인 소유 및 사찰소유의 토지는 수호하자는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이다.

1909년 7월 30일 강원도 표훈사(表訓寺)에 불교강사로 취임하였으며, 1910년 9월 20일에는 경기도 장단군 화산강숙(華山講塾)에 강사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승려취처문제에 관한 건백서를 두 차례나 당국에 제출하였다.

같은 해에 『조선불교유신론』을 백담사에서 탈고하였다. 불교유신론의 골자는 오늘의 세계는 과거의 세계가 아니고 현대는 급격히 변천해가는 시대이므로 과거의 고루한 것에 애착을 가지면 앞날의 발전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는 오로지 현재의 유신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유신(維新)은 천운에 있는 것도, 타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 주장하고 불교유신의 선두에 나섰다. 그는 무엇보다도 파괴만이 최급선무임을 주장하였다. 파괴가 있는 후에 건설이 있는 것이요, 파괴가 빠르면 빠를수록 유신이 빠르고, 파괴가 크면 클수록 유신도 크다고 설파하였다.

1911년 박한영·진진웅·김종래·장금봉 등과 순천 송광사, 동래 범어사에서 승려결기대회를 개최하고 한일불교동맹 조약체결을 분쇄하였다. 범어사에 조선 임제종 종무원을 설치하여 3월 15일 서무부장, 3월 16일 조선임제종 관장에 취임하였다. 그러나 망국의 울분을 참지 못해 8월 만주로 망명하여 만주 일대에 흩어져 있는 독립군들에게 민족 독립사상을 북돋아 주고, 박은식·이시영·윤세복 등 독립지사들과 만나 독립운동의 방향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삭발한 그의 머리로 인하여 우리 독립군으로부터 일진회원으로 오인되어 통화현 소야가에서 저격을 당하기도 하였다.

1912년 경전을 대중화하기 위하여 『불교대전』의 편찬을 계획하고, 경남 양산 통도사의 고려대장경 1,511부, 6,802권을 낱낱이 열람하기 시작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장단군 화장사에서 「여자단발론」을 탈고하였다. 1913년 박한영·장금봉 등과 불교종무원을 창설하고, 5월 19일 통도사 불교강사에 취임하였다. 5월 25일 『조선불교유신론』을 불교서관에서 발행하였고, 논설 「원승려지단체(原僧侶之團體)」를 『조선불교 월보』에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하였으며, 4월 불교강구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1914년 4월 30일 『불교대전』을 범어사에서 발행하였으며, 8월 조선불교회 회장에 취임하였다. 이어 1915년 내장사·화엄사·해인사·통도사·송광사·범어사·쌍계사·백양사·선암사 등 영남·호남 지방의 사찰을 순례하며 강연을 하였다. 10월에는 조선선종중앙포교당 포교사에 취임하였다. 1917년 4월 6일 『정선강의채근담(精選講義採根譚)』을 동양서원에서 발행하였다. 12월 어느 날 밤 10시쯤 오세암에서 좌선하던 중 바람에 물건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 의정둔석이 되어 진리를 깨쳤다.

1918년 9월 서울 계동 43번지에서 월간의 『유심(惟心)』을 창간하여 편집 겸 발행인이 되었으며, 동지 창간호에 논설 「조선청년과 수양」·「전로(前路)를 택하여 나아가라」·「고통과 쾌락」·「고학생」을 비롯하여 신체시를 탈피한 신시 「심(心)」을 발표하였다. 이때부터 더욱 문학 창작에 힘을 기울여, 10월에는 「마(魔)는 자조물(自造物)이다」, 12월에



는 「자아를 해탈하라」·「천연(遷延)의 해(害)」·「훼예(毀譽)」·「무용(無用)의 노심(勞心)」, 수필 「전가(前家)의 오동(梧桐)」 등을 『유심』지에 발표하였다. 같은 해에 중앙학림 강사에 취임하였다.

1919년 41세 되던 해에 민족대표 33인과 함께 3·1운동을 일으켰는데 준비과정에서 한용운의 활동은 특히 돋보였다. 처음에 천도교나 기독교 측은 독립선언이 아닌 독립청원으로 하자고 한 의견을 반박하고 독립선언으로 한 것과 최남선의 독립선언서 중 불만스러운 점을 수정·가필하고 공약삼장(公約三章)인 “최후의 일인까지 최후의 일각까지” 등을 첨가한 것 등이 그 한 예이다. 그는 선언문 발표 후 일경에 구속되었을 때 ① 변호사를 대지 않는다. ② 사식을 취하지 않는다. ③ 보석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세 가지 투쟁원칙을 내세우기도 하였다.

7월 10일 서대문형무소에서 일본 검사의 신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조선독립의 서」를 기초로 하여 제출하였다. 이 글은 그의 민족사상이 가장 잘 정리되어 나타나 있는데, 너무나 당당하고 논리정연한 주장에 검사도 할 말이 없었다고 한다. 그리고 이 글은 11월 4일 상해임시정부에서 발행하는 『독립신문』에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후에 조지훈(趙芝薰)은 이 글에 대해 “3·1운동 당시 선생이 기초한 「조선독립에 대한 감상의 개요」라는 장문은 최남선의 독립선언서에 비하여 시문으로서 한결 음 나아간 것이다. 조리가 명백하고 기세가 웅건할 뿐 아니라 정치문제에 몇 가지 예언을 해서 적중한 명문이었다.”라고 격찬한 바 있다. 이 글은 ① 개론 ② 조선독립선언의 동기 ③ 조선독립선언의 이유 ④ 조선 총독정책에 대하여 ⑤ 조선독립의 자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8월 9일 경성지방법원 제1형사부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1920년 투옥 중 일제가 3·1운동을 회개하는 참회서를 써내면 사죄한다고 회유했으나 이를 거부하여 3년간의 옥고를 치르고, 1922년 3월 출옥하였다.

같은 해 5월 조선불교청년회 주최로 기독교청년회관에서 「철창철학」이라는 연제로 독립사상에 대한 강연을 하였고, 9월 옥중시 「무궁화 심고자」를 『개벽』에 발표하였다. 10월 조선학생회 주최로 천도교회관에서 「육파라미」라는 연제로 독립사상에 대한 강연을 하였다.

1923년 1월 「조선 및 조선인의 번민」을 『동아일보』에 발표하였다. 2월 조선물산장려운동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4월 민립대학 설립운동을 지원하는 강연에서 「자조」라는 연제로 청중을 감동시켰다.

1924년 10월 24일 미발표 장편소설 『죽음』을 탈고하였으며, 조선불교청년회 총재에 취임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민중계몽과 불교대중화를 위해 일간신문의 발행을 구상하다가 마침 『시대일보』가 운영난에 빠지자 이를 인수하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1925년 6월 7일 오세암에서 『십현담주해(十玄談註解)』를 탈고하였다.

같은 해 8월 29일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하고, 1926년 5월 20일 안동서관에서 발행하였다. 이 시집은 근대한국시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여기에 수록된 88편의 시는

대체로 민족의 독립에 대한 신념과 희망을 사랑의 노래로서 형상화한 것이다. 여기서 한 용운 문학이 불교사상과 독립사상, 문학사상이 삼위일체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27년 1월 비타협을 원칙으로 한 민족협동전선인 신간회를 발기하고, 5월 신간회 중앙집행위원 겸 경성지회장에 뽑혔다. 이는 그의 민족주의가 일관해서 일제에 비타협적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같은 해에 조선불교청년회의 체제를 개편하여 조선불교총동맹으로 개칭하고 김상호·김법린·최범술 등과 일제의 불교 탄압에 맞서서 불교대중화에 노력하였다. 7월 수필 「여성의 자각」을 『동아일보』에 발표하고, 8월 회고담 「죽었다가 살아난 이야기」를 『별건곤』지에 발표하였으며, 1928년 『건봉사 및 건봉사말사사적』을 편찬, 건봉사에서 발행하였다. 같은 해 1월 「천하명기 황진이」를 『별건곤』지에 발표하였고, 6월 논설 「전문지식을 갖추자」를 『별건곤』지에 발표하였다.

1929년 11월 광주학생의거가 발발하자, 조병옥·김병로·송진우·이인·이원혁·이관용·서정희 등과 함께 이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하여 민중대회를 열었다.

1930년 1월 논설 「소작농민의 각오」를 『조선농민』지에 발표하였다. 당시 시대 상황이 전국적으로 소작쟁의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항일운동이 사실상 이들 민중운동에 집중되어 있는 시기였다. 그가 소작쟁의를 거론한 것도 이 같은 시대상황의 한 반영이라 볼 수 있고 여기에서 그는 3·1운동의 지도적 인물로서 드물게 지주층보다 소작인층의 이익을 옹호하고 있다. 그는 이 글에서 소작인들의 단결을 강조했다.

1931년 6월 『불교』지(발행인 권상로)를 인수하여 불교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그리고 많은 불교 논설을 발표하여 고루한 전통에 안주하는 불교를 통렬히 비판하였으며, 승려의 자질향상·기강확립·생활불교 등을 제창하였다. 7월 전주 안심사에 보관되어 있던 한글 경판(經板) 원판을 발견 조사하였고, 「만화」를 7월부터 9월까지 『불교』지에 발표하였다. 8월에는 논설 「불교청년총동맹에 대하여」를, 9월에는 논설 「정교를 분립하라」·「인도 불교운동의 편신(片信)」·「국보적 한글 경판의 발견 경로」를 『불교』지에 각각 발표하였다. 9월 24일 윤치호·신흥우 등과 나병구제연구회를 조직, 여수·대구·부산 등지에 간이수용소 설치를 결의하였다. 10월부터 「한갈등」을 『불교』지에 연재하였고, 같은 10월에는 「중국불교의 현상」·「조선불교의 개혁안」·「불교개신에 대하여」 등을, 11월에는 「타이의 불교」를, 12월 시론 「중국혁명과 종교의 수난」 및 「우주의 인과율」 등을 『불교』지에 발표하였다. 한편 수필 「겨울밤 나의 생활」을 『해성』지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김법린·김상호·이용조·최범술 등이 조직한 청년비밀결사 만당(卍黨)의 영수로 추대되었다.

1932년 1월 수필 「평생 못 잊을 상처」를 『조선일보』에 발표하였다. 그리고 이해에도 많은 글들을 『불교』지에 발표하였는데, 그 제목을 살펴보면 「원숭이와 불교」·「선과 인생」·「사법개정에 대하여」·「세계종교계의 회고」·「신년도의 불교사업은 어떠할까」·「불교 신임간부에게」·「조선불교의 해외발전을 요망함」·「신앙에 대하여」·「교단의 권위를



확립하라」·「불교청년 운동에 대하여」·「해인사 순례기」 등이다.

12월 전주 안심사에서 발견한 한글 경판을 보각 인출(印出)하였다. 당시 총독부에서 인출비용을 대겠다고 제의해 왔으나 단호히 거절하고, 유지 고재현 등이 출연한 돈으로 간행하였다. 이때를 전후하여 일제의 시주를 받은 식산은행이 일본화정책으로 조선 명사를 매수하기 위하여 그에게 성북동 일대의 구유지를 주겠다고 했으나 이를 거절하였다.

1933년에도 『불교』지에 많은 글을 발표하였다. 그 제목을 보면, 「불교사업의 개정방침을 실행하라」·「한글경 인출을 마치고」·「종헌발표기념식을 보고」·「현대 아메리카의 종교」·「교정(敎政)연구회 창립에 대하여」·「선과 자아」·「신러시아의 종교운동」 등이다. 10월에는 「자립력행의 정신을 보급시키라」는 논설을 『신흥조선』지 창간호에 발표하였으며, 이때를 전후하여 『유마힐소설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였다. 이해 벽산 스님이 집터를 기증하고, 방응모·박광 등 몇 사람의 성금으로 성북동에 심우장(尋牛莊)을 지었다. 이때 총독부 돌집을 마주보기 싫다고 북향집을 짓게 하였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다. 1934년 9월 1일 딸 영숙(英淑)이 태어났다. 1935년 3월 8일 회고담 「북대륙의 하룻밤」을 『조선일보』에 발표하였다.

같은 해 4월 9일부터 다음해 2월 4일까지 장편소설 「흑풍」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그런데 여기서 작가로서 자신이 소설을 쓰는 것은 평소 독자에게 알렸으면 하던 것을 알리기 위함이라는 것이며, 글 속에 숨은 마음씨를 읽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는 그가 소설을 쓴 목적이 기실은 항일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그는 청국을 무대로 한 이 소설 속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었다. 「흑풍」은 부패하고 썩은 청조(淸朝)를 뒤엎고 나라를 바로잡으려는 혁명당의 활약상을 그린 것이다. 한용운은 「흑풍」을 통해 독자대중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려고 했다. 하나는 일제에 대한 반항으로 독립사상을 고취하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자본가층에 대한 증오와 반감을 불러일으켜 혁명을 조장하자는 일종의 사회주의적 경향이 그것이다. “글 속에 숨은 나의 마음씨”란 바로 이러한 경향을 뜻한다.

1936년 장편소설 「후회」를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하다가 이 신문의 폐간으로 50회에 중단되었다. 단재 신채호의 묘비를 세웠으며, 7월 16일 정인보·안재홍 등과 경성부 태서관에서 다산 정약용의 서세(逝世) 백년기념회를 개최하였다. 1937년 3월 1일 재정난으로 휴간되었던 『불교』지를 속간하여 신제 1집을 내고, 3월 1일 소설 「철혈미인」을 『불교』 신집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많은 글을 『불교』지에 발표하였는데, 「조선 불교 통제안」·「역경(譯經)의 급무」·「주지선거에 대하여」·「심우장설」 등이 그것이다. 그리고 시론 「산장촌묵(山莊寸墨)」을 10월부터 『불교』 신집에 연재하기 시작하였다. 1938년에는 「불교청년운동을 부활하라」·「공산주의적 반종교이상(反宗教理想)」을 『불교』 신집에 발표하였으며, 5월 18일 이듬해 3월 12일까지 장편소설 「박명(薄命)」을 『조선일보』에 연재하였다.

1938년 11월 그가 직접 지도해오던 불교계통의 민족투쟁 비밀결사단체가 연루된 만당

사건(卍黨事件)이 일어났고, 많은 후배동지들이 검거되고 자신도 고초를 겪었다. 이때를 전후하여 조선불교사를 정리하려는 구상의 일단으로 ‘불교와 고려제왕’이란 제명으로 연대별로 고려불교사의 자료를 정리 편찬하려고 자료를 뽑기 시작하였다.

1939년 7월 12일(음력) 회갑을 맞아 박광·이원혁·장도환·김관호가 중심이 되어 서울 청량사에서 회갑연을 베풀었다. 이때 오세창·권동진·이병우·안종원 등 20여 명이 참석하였다. 사흘 뒤 경남 사천군 다솔사에서 김법린·최범술 등 몇 명의 동지와 후학들이 베푼 회갑 축하연에 참석하여 기념식수를 하였는데, 다솔사는 당시 민족독립운동을 주도하던 본거지였다. 1940년 창씨개명 반대운동을 벌였고, 1943년에는 조선인 학병의 출정을 반대하는 등 일제 말기까지 단호하게 투쟁하였다.

1944년 67세에 심우장에서 사망하였다. 친하던 벗으로는 이시영·김동삼·신채호·정인보·박광·홍명희·송월면·최범술 등이 있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중장(重章)이 수여되었으며, 1967년 10월 ‘용운당 만해 대선사비 건립추진위원회’가 발족되어 파고다 공원에 ‘용운당 대선사비’가 건립되었다. 1971년 『만해 한용운전집』 간행을 위하여 신구문화사에서 만해 한용운 전집 간행위원회에서 수집 보관중인 원고를 인수하였다. 또한 김영호의 적극적인 협조로 누락된 원고를 다수 수집하였으며 최범술·조명기·박종홍·서경보·백철·홍이섭·정병욱·천관우·신동문·김영호 등을 위원으로 한 편집위원회가 구성되어 1973년 『한용운 전집』 전 6권이 간행되었다.

〈참고문헌〉 신동문, 『한용운』, 『한국의 인간상』3, 신구문화사, 1966; 안병직 편, 『한용운』, 한길사, 1979; 정광호, 『한용운』, 『한국근대인물백인선』, 동아일보사, 1970; 안병직, 『한용운』, 『인물로 본 한국사』, 중앙일보사, 1973; 이민수, 『독립운동가 30인전』, 서문당, 1976; 송건호, 『한국현대인물사론』, 한길사, 1984; 발걸순, 『한용운의 생애와 독립투쟁』, 독립기념관부설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4, 1995